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9권 제2호 (통권 99호) / 2024. 6

# 신앙과 학문

제29권 제2호 (통권 99호), 2024년 6월호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마태복음 11:28-30절을 통한 개혁주의 상담학적 접근: '자아'와 '감정'을 중심으로 | 박은호  
A Reformation Biblical Counseling Approach with a Reflection on  
Matthew 11:28-30: Centered on 'Self' and 'Emotion' | Bak, Unho
- 027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과 이중직에 대한 변론 | 구준호  
Pastors' Financial Freedom:  
A Defense of Levitical City and Bivocational Ministry | Jun-Ho Koo
- 051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 김진 / 박에스터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in Career  
Planning among Non-Christian and Christian Participants in Life Career Design  
| Jin Kim / Esther Park
- 083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 참여 경험 | 김희영 / 이혜숙  
Experience of Christian Nurses Participating in Self-care Program  
| Heeyoung Kim / Hye Sook Lee
- 103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독교 학교 국내연구 동향 분석: 교육 공공성 요소를 중심으로 | 임고운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Christian Schools in Korea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the Elements of Educational Publicness | Kwoon Im
- 141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 개발 | 김보경  
A Development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Church Educational  
Programs for Cultivating Daily Spirituality | Bokyeong Kim
- 167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봉사경험과 지원요구 탐색 | 김기흥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ors  
and Social Workers Working in Disability Ministries in Churches | Ki Heung Kim
- 189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김성원  
A Qualitative Study of the Closing Experiences of Christian Childcare Center Directors  
| Sung-Won Kim



# 마태복음 11:28-30절을 통한 개혁주의 상담학적 접근: ‘자아’와 ‘감정’을 중심으로\*

## A Reformation Biblical Counseling Approach with a Reflection on Matthew 11:28-30: Centered on ‘Self’ and ‘Emotion’

박은호 (Bak, Un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oal of biblical counseling regarding a theory of self that individual's free will and decision become the center of life, emotion and experience become one's worth, with a focus on Matthew 11:28-30.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y of self and the diffusion of attention ha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culture of individualism and narcissism in today's society. In such cultural phenomena, individuals find themselves in a reality devoid of rest, characterized by survival competition driven by information and mechanization, tension and pressure, and constant fear. This article is questioning whether people truly become free and happy by considering one's self and emotion as an significant tasks and discussing the need of Christ-Centered approach in the modern counseling's issues and goals. To address the Christ-centered counseling goals and needs, this study reinterprets the concept of self and experience by teaching of Christ from the first centuries. To examine the concept, it also discusses the temporal progression of how self and emotions settled, and study their influences and outcome. Ultimately, it confirms that the core of modern counseling goals, issues of self-realization and emotion, can find true rest and peace by learning from the God and surrender oneself to higher authority.

**Key words:** ego(self), emotion, weary and burdened, yoke, rest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3일 최종수정일, 3월 12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상담대학원 조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ehpark9090@gmail.com

## I. 서론

상담의 문제는 인간의 고통에서 비롯한다. 여러 형태의 고통이 있지만 지나친 ‘자아 중심’과 감정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와 ‘감정’의 변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아는 실존하는 자기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자아의식이라 한다. 긍정적 자아의식은 개인이 내면에 지닌 강력한 힘으로 안정감과 용기, 정신 건강의 핵심이 된다(Mckay & Fanning, 2016: 10).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지와 안정은 사회적 존재로 지어진 우리에게 삶의 큰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자아에 대한 감각은 실패에 대한 복원력이 되고, 목표 도달을 위한 장애를 극복하는 힘으로 심리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신체적으로 각성하고, 인지적으로 평가되는 반응이다(Myers & DeWall, 신현정·김비아 역, 2016: 253). ‘자아’와 ‘감정’의 문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요 주제로, 내면을 탐색하여 자아를 이루고, 감정은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아와 감정은 자아 인식과 내면 탐색을 위한 기능으로, 사조 속에서 용어로 정의되고 개념화되면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고대 그리스, 헬라철학과 Kant와 Descartes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자아 개념, Freud에 의해 정의된 자아 개념들이 이 사실을 말해준다.

19세기 철학이 감정과 이성을 분리시켰다면, 1920년대 이후 프로이트에 의해 인간의 욕망의 세계(Id), 자아(Ego)의 구분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구축하여 ‘자아 성취’의 목표가 설정되었다(Cushman, 1990: 599-611). 자아 성취의 구축은 긍정적 감정의 경험, 소통, 표현 등을 핵심으로 하며 확장되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사회학과 인류학, 심리학의 영역에서 ‘자아’와 ‘감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이후 Jean Twege를 비롯하여 자아 개념의 방향성에 대한 자성과 문화적 영향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아와 감정과의 관련성이 주는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는 Christopher Lasch의 「나르시시즘의 문화」, Charles Taylor의 「불안한 현대사회」, Eva Illouz의 「근대 영혼 구원하기」 등 역사학, 철학, 사회학 등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Taylor는 현대의 자아에 대한 탐구는 불안과 개인주의를 형성하였다는 관점에서, Illouz는 자아 이론은 의료적 행위, 자기 계발과 대중 심리학, 기업의 생산성과 결합되어 대중화를 이루었다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자아와 감정을 주제로 한 상담과 교육,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감정과의 자아 탄력성(최지현, 2009 ; 이보미, 2011), 노인의 우울감(김양은, 2003 ; 박봉선, 2019 ; 구경진, 2023),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삶

의 만족도(정득·이종석, 2015)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자아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심리학자의 비판은 Paul Vitz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현대 심리학의 동향에 대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아 숭배에 기초한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한 형태가 되었다고 하고 (Vitz, 장혜영 역, 2010: 14), 목회상담의 관점에서의 Paul Pruyser와 Thomas Oden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집중하여 신학적 자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비평했다(Pruyser, 1976:60-61 ; Oden, 오성춘 역, 2006: 23). Brooks Holifield는 심리학의 수용과 자아실현은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리학의 수용으로, 구원을 자아실현의 필요로 전환하였다고 한다(Holifield, 2005: 355-356). 그는 자아 이론의 발달에 대해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자아를 이루고자 했던 전통은 20세기에 개인의 우주적 이성과 원칙에 도전하여 행복을 찾는 것에 그대로 이어졌다 (May, 백상창 역, 1997: 50). 현대 자아 이론의 발전은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가 되는 성경의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간 실존으로서의 '자아'와 내적 반응과 외적 동기의 기제가 되는 '감정'의 근거를 성경에서 모색하여 상담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사회와 상담 문화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아와 감정에 대한 집중을 통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졌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감정을 추구했으나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인의 감정 표현, 자기주장, 개인의 느낌에 대한 탐구는 개인이 이루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아'와 '감정'에 대한 탐색은 그리스의 철학을 계승한 1세기의 헬라철학의 배경하에서 자아와 진리를 찾으려는 수고와 스스로 자신의 규율에 매였던 자들에 유비할 수 있다. 그들의 진리 추구는 도달하고자 하나 도달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멍에로 은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대비된다.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한다. 또 자신에게 배워 마음의 쉬를 얻으라고 초청한다. 마태복음 11: 28-30절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순종을 통해, 자아와 감정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진리와 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학적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고대 철학적 방법이 자아를 이루기 위해 내면을 향했다면, Augustinus는 자아나 정신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내면을 향했다고 한다 (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2015: 274-275).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내면 탐색을 통한 '자아'와 '감정'개념의 시대적 형성과 관련성을 살펴 '자아'에 집중한 인간 마음의 욕망을 도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적 상황과 상담의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 II. 펴는 글

20세기를 사로잡은 심리치료와 상담의 목표로서의 ‘자아’는 시대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인간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사조와 같다. 자아에 대한 관념은 20세기의 산물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삶의 현재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이루고자 했다. 감정은 인간의 품성과 행실과 함께 고대 윤리학의 주제로 Plato는 감정을 불완전한 이성의 결과로 보았으며(Gill, 2006: 4),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아는 이성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Taylor, 권기돈·하주영 역, 2015: 237-239). Plato와 Aristotle의 철학적 윤리학의 목표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게 감정을 제거하거나 이성적 개입을 통해 감정이 절제된 상태를 이루는 것이었다(Gill, 2006: 4). 고대 그리스 철학은 자아 형성을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영혼 안에 형성하고 자아의 변화를 일으켜 영혼이 행복한 상태를 이루도록 이끌었다(Hadot, 1969: 10-22). Plato와 Aristotle의 철학을 계승한 갈레노스는 감정을 다루는 철학적 방법을 자기인식에서 찾았다(박정훈, 2023).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과 같이 현대 또한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자기 자신이 되라’ 것에서 찾는다. 반면 교부들은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 헬라철학의 용어인 ‘자아’를 차용하였는데, Augustinus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재정립될 때 본래의 자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Augustinus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찾는 영적 고투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고백록에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에 와 계셔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한 후부터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Fitzgerald, 1999: 564).

현대의 자아 개념은 17세기에 시작된 Descartes, Locke, Hume의 철학과 Rousseau, Goethe, Nietzsche 등의 낭만주의 문헌을 통해 강화되었다(Mcminn & Phillips,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 2006: 189-190). 20세기 Freud 이후 상담과 심리치료는 자아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치심, 죄의식, 불안과 같은 감정적 고통의 해방을 위한 실천으로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전통은 용어로 정의되고 개념화되고 또 시대에 따라 변형되며 심리학과 사회학, 교육학, 상담학을 통해 계승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Taylor, 송영배 역, 2019: 47-49). 20세기의 상담 문화를 지배하는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심리학의 중심 주제와 경향은 자기 개념인 ‘자아’와 경험과 느낌으로서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 이후 자아의 강조는 4단계의 변모를 거치며 확장되고 형성된다.



## 1) 자아 이론의 변천과 형성

정신분석학에서 대상관계 이론까지, 다음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의 Carl Rogers, Abraham Maslow의 계보와 자존감 운동, 마지막으로 긍정심리학의 수립과 함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자아 이론의 변모와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자아 이론의 발전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와 안전은 '건강한 감정의 결과'라는 도식 형성을 통해 자아실현의 목표를 확고하게 하는 과정이다.

### (1) 정신분석학자들의 자아와 자아실현

Freud에 의해 자아와 개인주의, 현대상담과 정신 건강이론의 기반이 형성되었다(Seligman & Reichenberg, 김영혜 외 역, 2015: 47-48). Freud 이후 Carl Jung은 추동과 Id의 강조에서 벗어나 자아를 강조하는 자아 이론으로 수정한다. 그 이후 Karen Horney의 자아 심리학, Heinz Kohut의 자기 심리학, Melanie Klein의 대상 관계를 비롯한 신 프로이드주의자들의 계보를 통해 자기실현으로서의 자아 이론의 변모가 이루어진다. Horney의 자아는 '안전을 위한 자아'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자신의 통합과 자기실현을 이루어 내는 힘이다. Honey는 자아를 보는 방식이 대인 관계의 질을 높이므로 자아를 보는 방식, 즉 부정적인 사고 유형을 바꾸어 주는 것이 대인관계의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하였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타인들도 자신을 호의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Seligman & Reichenberg, 김영혜 외 역, 2015: 117-121). 고전적인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신 프로이드학파로의 전환은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이다. 신 프로이드학파로 분류되는 Eric Fromm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도덕적 가치로, 자신의 힘은 자신을 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Fromm, 강주현 역, 2018: 22-23). Kohut의 자아는 자기에 대한 개념으로 자존감을 조절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의 핵심으로, 자아를 강조하는 것이다(Seligman & Reichenberg, 김영혜 외 역, 2015: 134-135). 그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은 과장된 자아가 부모상에 대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 안정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Kohut, 이재훈 역, 1999: 90-113). 요약하면, 이웃을 돕고 공헌하기 위해서는 자아 안의 능력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정신분석가들의 자아 이론이었으며 도덕이었다.

### (2) 인본주의자들의 자아실현: 1950-1960년대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자아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 결정론을 거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비 제약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변해갔다. 대표적으로 Rogers와 Maslow에 의해 자아는 스스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형성된다(Illouz, 김정아 역, 2022: 92-93). Rogers의 자아는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진정성을 말하는데(Rogers, 1961: 166), 진정성은 아무 두려움 없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과정은 재능과 자질을 발견하여 자신을 경험하고,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완전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Rogers, 1961: 37-38). Maslow는 Rogers의 이와 같은 측면을 더 발전시켜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재능을 구현할 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 자아실현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자신'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Illouz & Cabanas, 이세진 역, 2021: 179). Maslow의 인간 욕구의 단계설은 하위단계의 욕구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 단계를 이루게 된다. 이 마지막 욕구가 이루어진 사람은 한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깊은 소망을 추구하고, 자아를 강화하여 최대한 발전시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히 개인화된 나 자신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본주의자들의 완전히 기능하고 자신에게 만족한 '진정한 자아'에 대한 연구는 자아 존중감 운동으로 이어진다.

### (3) 자존감 운동과 자아실현 : 1980-1990

1890년대 William James에 의해 자아 존중감이라는 용어가 처음 시도된 후 1980년대를 거치며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Twenge & Campbell, 이남석 역 2010: 210). 자아 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고,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이고 자신에 대한 수용과 개인의 가치를 가늠하는 긍정적 마인드로 정신 건강의 핵심(조세핀 김, 2014: 59)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그리하여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신체상, 자아상,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도와와의 관련성과 교육과정의 중심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 외에도 동기, 성격, 개인의 복원력, 지능, 창의성, 성공 등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의 만족도로서의 행복을 연구한다. 이제 경쟁사회에서 자존감과 자기 확신은 필수적 조건이 되었고,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키워 주기 위해 자녀에게 훈육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심어주도록 교육하고 있다.

### (4) 자아의 행복과 정신 건강 운동

1990년대 초부터 Michael Argyle, Ed Diener, Daniel Kahneman 등에 의해 행복에 대한 실증주의적 연구가 시작되었다(Illouz & Cabansa, 이세진 역, 2021: 34-34). 자아 존중감과 성격,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 연구들은 행복, 정신 건강 운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자아 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실패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Nettle, 김상우 역, 2005: 146-159 ; 최인철·최은수, 2006: 95-114). 정신 건강 운동의 핵심은 자아실현과 긍정적 감정이다. 자아실현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은 인간의 기능이 최고에 이른 상태로 '참된 자아', '초월적 인성'의 포괄적인 '건강한 정신'을 의미한다(Bulkley, 차명호 역, 2006: 152). 정신 건강 운동은 개인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완전하고 풍족하여 만족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 행복을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자아 개념의 확장과 대중화

자아 개념이 주는 여러 긍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식에만 머물던 자아가 자아 존중감으로 개념화되고 대중적인 용어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방식, 자의식에 집중하게 된다. 자아의식에로의 집중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과 죄의식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맺어, 자아의식은 병적인 내적 관찰, 부끄러움, 당황의 말로 변하기도 한다(May, 백상창 역, 2016: 99).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려면 자신에 대한 감정의 가치를 느껴야 하므로 감정은 자기 인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방식 중의 하나는 절대적 진리성은 부인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므로 감정을 지성보다 우위에 둔다는 특징이 있다(최재호, 2003: 3-19).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선호도에 근거한 선택이 도덕과 대중문화의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 (1) 집단 이데올로기

Freud의 '자아와 과거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구상은 자아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욕망에 대한 이론으로 평범했던 자아를 성취해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가정과 직장,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Illouz, 김정아 역, 2022: 26-28). 불안과 거절당한 느낌과 같이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은 결혼 관계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병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자아'와 '감정'의 문제는 의료와 정신 건강, 가족, 교육, 기업의 생산성, 광고산업,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자아는 아동과 청소년 발달, 성격, 정서, 자아 존중감, 개인주의의 핵심이 된다.

자아와 감정에 대한 집중과 관심은 자기중심 세대의 문화적 현상이며 집단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자아와 감정으로서의 행복은 모두의 삶의 목표와 의미이며 삶의 방식이 되었다. 인간은 자아를 찾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아 이론의 내용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행복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삶은 상담과 치료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의 문제와 책임의 영역이 되었다

(Illouz, 김정아 역, 2022: 40-41). 왜냐하면 자아를 풍요롭게 성취하는 것은 '선'이 되고, 자아를 빈약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고 자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이 열망하는 번영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통념이 형성되었다(Illouz, 이세진 역, 2021: 82).

## (2) 긍정심리학의 자아실현

1998년 Martin Seligman에 의해 긍정적인 감정, 낙천주의, 삶의 만족, 자아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행복 과학으로서의 긍정심리학이 수립되고, 긍정심리학은 매우 빠른 성장을 한다. 긍정심리학은 Rogers와 Maslow의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표현하여 진실하게 행동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개인은 진정성, 안전,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다는 접근법을 활용한다. Seligman의 긍정심리학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진정성, 에너지를 발휘하는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eligman, 김인자·우문식 역, 2014: 27). 긍정심리학은 긍정적 감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낙관주의와 건강과 노화의 관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행복의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감, 성공적인 삶과 생산성, 성격에서의 강점, 정신 건강, 노화, 영성의 관계로까지 영역을 넓혀간다(Illouz, 2022: 41-43).

행복 과학으로서의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요소는 자아실현이다. 몰입하여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통합적인 자아를 얻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Csikzentmihaly, 최인수 역, 2004: 103). 사람들이 일상 활동을 통해 몰입하고 삶의 만족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현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다움과 자아실현을 향해 가는 길이며,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두 번째 요소는 소통으로서의 접촉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이 중요하다. 타인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계가 좋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관계는 행복의 주요소로 행복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여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고 사회적 관계를 잘 구축해 간다. 긍정심리학에서의 행복의 요건은 다양하지만 몰입을 통한 자기실현과 사람들과의 접촉이 행복의 가장 큰 요소다. 사회적 공헌과 도덕적 가치로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요로 전환된다.

자아 이론은 자기 중시, 자기 가치, 자기 사랑, 자기 존중 등으로 표현되며 자기 계발에 대한 강조, 자기 향상의 추구하고 함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자아실현을 말하고 있다. 자아에 대한 관심과 행동의 내적 에너지로서, 감정에 대한 연구는 50년대와 60년대에 절정을 이루어 완전하게 기능하는 자아와 감정적으로 만족한 자아를 위한 이론으로 조직화 된다. 90년대 이후로는 행복과 성공, 안전을 보

장하는 변영의 자아 이론이 형성된다.

## 2. 현대 자아의 개념과 감정의 결합

현대의 자아개념은 자아를 주와 객체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칸트의 철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칸트의 자아 개념은 순수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총체적 개념이다(이만갑, 2004: 14). 경험적 자아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곧 개인의 감정을 말한다. 자아 개념의 발전과 형성에서 살펴 보았듯이 완전한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와 자신에게 만족한 감정이 필요하다. 현대 상담과 심리치료 또한 감정과 감정의 근원을 탐색한다. 감정은 주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경험이다. 감정은 행동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즉 행동화될 수 있는 에너지다. 20세기 상담의 주요 핵심 주제가 되는 불안, 경쟁심, 무관심, 죄의식들은 모두 감정의 영역으로 감정은 자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아와 감정의 연결은 자아와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타인과의 감정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 능력으로 함의되고 있음을 앞에서 밝혔다. 자아와 감정의 연합이 어떻게 사회 능력의 담론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리하면,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과 자아의 연결은 건강한 감정과 자아실현으로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아 안의 느낌과 감정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감정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뿌듯하다는 자기 만족감을, 유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무가치함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감정은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자아 됨'을 실현할 수 있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끄는 핵심이 되지만, 자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무가치한 감정은 소외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른다. 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 심리적으로 불편한 감정들이 가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시하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감정적인 소통을 제시하는 사회가 되었다(Mayo, 1949: 65-72). 이처럼 자아실현으로서의 인간관계의 확장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인의 건강한 감정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고, 건강한 감정을 자아의 중심에 두게 되면서 친밀감, 타인과의 소통을 '자아 됨'의 요소로 등장시켰다. 소통의 능력은 내부적으로는 감정 조율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이며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해석할 수 있고 말의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으며, 자아를 은폐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이처럼 감정은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능력이 되었다(Illouz, 김정아 역, 2022: 43-57). 소통은 '건강한 감정'을 전제로 하는데, '건강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의 억제,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감정이입, 자기표현 능력을 말한다.



## 1) 현대적 자아개념과 감정 강조의 영향과 결과

개인의 자아와 감정에 대한 집중을 통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았다. 자아 이론은 ‘자아 됨’을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정서와 자기애적 문화를 이루고, 소통을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제안했지만 관계 맺기보다는 개인주의를 형성하고, 신비주의와 같은 영성과 결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아와 감정에 대한 강조가 개인의 정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현대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자기를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하여 ‘자아’라는 목표에 치중하게 되었다. ‘자아 됨’을 형성하기 위해 자율성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인은 자유를 얻지 못했다. 자아실현으로서의 자기 몰입은 자신을 비판적인 완벽주의와 무기력에 이르게 했다. 개인의 느낌과 감정의 절대성을 추구했지만 감정의 절대성의 기저에는 불안, 냉소, 자기 패배적인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다. 감정적인 안정과 안전을 원했지만 긴장과 압박감이 대신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수립 이후 낙천적이고 만족한 감정으로서의 행복의 지향은, 자기 만족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결핍과 불만을 과장하고 방어하기 위한 허영심으로 나타나고, 감정 표현과 감정 처리에 집착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박은호, 2022: 181). 긍정심리학이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타인에 대한 공포와 회피 증상은 더 늘어났다. 이와 같이 개인의 특정한 정서에 대한 관심은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과 우울, 두려움들을 건강하지 않은 감정으로 진단하여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함의가 되었다(Ayan, 손희주 역, 2014: 91-94; Frances, 김명남 역, 2014: 7). 건강한 관계와 자아실현에 대한 주력은 상담, 자기 계발, 대화법,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치료적 행위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아와 감정의 강조는 개인주의와 자기에 강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May는 1920년대 이후 과학이 발달하며 인간 능력에 대한 자신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 존엄성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다(May, 백상창 역 2017: 58). Taylor는 자기실현으로서의 자기 발견에 대한 이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관적인 형식으로 실행되고, 실현의 목표는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시켜 수단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는데(Taylor, 송영배 역, 2019: 86), 이는 자신에 대한 탐구는 개인주의를 양산했으며 개인주의는 자기애적 감정을 파생했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 느낌과 감정에 대한 선호는 숨겨진 자기애를 드러나게 한다.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기애의 특징은, 전능한 자아를 추구하는 자아로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강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사람의 인정을 바란다(Lasch, 최경도 역, 1989: 110).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자신의 부정적 자아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기제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의 과업과 업적에 대해 과대한 자랑을 하게 된다(Mcgrath, 윤종석 역, 2001: 26-

35).

마지막으로 계몽주의에서의 합리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이성은 우주적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 종교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개념으로 재현된다(May, 백상창 역, 1997: 49-52). 개인의 자아와 감정의 강조는 치료 요법으로서의 우주와의 합일을 위한 기도와 감사, 용서와 같은 영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영성을 찾는 특징이 있다. 인본주의자들의 잠재력 발견과 더 높은 자아와의 접촉에 대한 열망은 자신 안의 신적 실재,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전인적 건강 운동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영적인 경험은 신비주의로 표현되는 뉴에이지, 마음 챙김 명상, 수용전념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뉴에이지는 Maslow의 자아실현의 '하나 됨과 완전함'은 '우주와의 연합'이라는 초월적 경험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신비적 경험은 뉴에이지주의자인 Shirley MacLaine에 이르러 '더 높은 자아'로 탄생한다. 뉴에이지 운동은 자기만의 신성을 개발하여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표현된다(Vitz, 장혜영 역, 2010: 194-203). 마음 챙김과 명상은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몸의 느낌과 감각, 경험, 마음에 집중하여 고통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으로(Nettle, 김상우 역, 2019: 223), 내면의 탐색을 통해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여 자신이 소우주가 되고자 한 동양의 선사상, 티베트의 명상을 자아의 탐색과 행복을 위해 도입한 영성이다(Richard, 2006: 255-266). 마음 챙김 명상의 개요는 명상을 통해 자아가 신비에 찬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자아에 몰두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며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심신의학, 통합의학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 장애에 대한 현대 인지치료의 주된 요소로서 수용 전념 치료로 명명되고 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여 불안, 두려움, 우울과 같은 자신의 감정들과 함께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자아와 감정의 추구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세속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 Amundson 은 '자아'에 집중한 현대를 이렇게 표현했다(Amundson, 2015).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안을 들여다 봄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신은 물러나고 개인적 감정 상태, 희망,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진정성 있게 즉각 인식하는 것이 진실하고 '완전한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아는 숭배의 대상 비슷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자아의 몰두는 몸의 느낌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생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3. '자아'와 '감정'의 성경적 변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상담과 교육과 같은 학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일반 학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사도행전 17:28에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경험, 지식, 가치 기준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철학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자아'와 '감정'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판단 기준과 의지, 경험적 느낌에 의존한다. 학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의 모습 안의 성취적 동기와 감정, 사람과의 관계성 등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경험과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고대 철학의 자아를 이루기 위한 자기 인식은 신프로이트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공헌이라는 도덕적 가치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외부의 속박을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문화로 계승되고 있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 자아 인식의 방법과 결과는 해석적 오류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현대의 자아 개념은 자아를 찾고자 했으나 구현되지 않았다. 자아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성취해야 할 개인의 짐이 되었고 심지어 감정은 사회적으로 전염되고 유포되어 개인의 사소한 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고통의 유형이 되었다(Science Daily, 2008). 자아에 대한 관념이 고통이 되는 원인은 만족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Augustinus에게서 근거를 찾아보면, Augustinus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도시가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두 도시를 구분한다. Boyd는 Augustinus의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의 차이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세속적 자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McMinn & Phillips,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역, 2006: 163-166). 자아에 대한 Augustinus의 해석을 보면, Augustinus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롬 7:9)”는 진술에 대해 자아는 욕망을 따르는 무거운 상태라고 해석한다. 이곳에 나오는 '나'는 옛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옛사람의 특징은 욕망이다(최승락, 2018). 욕망에 대해서 Evans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들로의 전향의 문제로 보았는데(Evans, 1982: 116), 욕망은 인간의 감각과 연결되어 욕망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에 중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취해야 할 큰 과업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자아와 감정은 Augustinus에 의하면 옛사람에 속한 자기애적인 욕망이다. 바울도 육신에 속한 옛 자아는 육신의 욕망(소욕)이라는 점에서 Augustinus와 같은 관점을 가진다. Babcock는 욕망은 충족을 찾을 수 없



는 곳에서 충족을 찾고자 하는 사랑의 절박한 촉구며 자기애로 표현된다고 하였다(Babcock, 1991: 39-66).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는 길의 장애는 감각적 사물들의 허상과 욕망에 몰두하는 삶이다(최승락, 2018). 무엇보다 욕망은 만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간에게 고통이 된다.

이처럼 욕망은 옛 자아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려면 욕망이 제거되어야 한다. Fredric Bruce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바울의 표현은 (갈 5:24), 자기중심적인 옛 자아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다(Bruce, 2006: 185-186). 자아는 육신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상담과 교육, 치료의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자아실현, 자기만족, 자기신뢰를 추구하는 인간관과 성경적 인간관의 차이는 뚜렷하다. 성경의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죄로 인한 타락으로 구속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 자아실현을 하여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와 감정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집착은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 현대의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느낌에 집중하여 자기를 실현하고 완전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는 같듯이 생긴다. 자아실현의 중심 개념이 되는 자아 이론과 감정에 대해 성경적 비판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으며(엡 2:10),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 자아 존중감, 자아개념, 자기애를 통한 자기 인식은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John Calvin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무능하고 만족할 수 없으며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한다(Calvin, 김종흡 외 역, 1989: 179).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구현해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더 고통스러워졌다. 자아를 중시하여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정신 건강의 조건으로 삼았지만, 개인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불안이 증가했다. 성경은 그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한다(엡 5:20; 살전 5:16; 빌 4:4; 골 3:17).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된다. 또 스스로 자신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힘에 의존해 살며,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로의 귀의이며 변화에 대한 요구다.

자아 이론과 경험주의적 감정에 근거한 상담의 이론과 방법이 되는 명상, 수용 전념 치료와 같은 영성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신과의 합일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은 노자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라, 온 우주가 복종할 것이다’와 같은 논

리로, 각 사람은 작은 우주가 되며 주인이 된다고 하는 범신론이 전제된 이론이다. 성도의 정체성은 명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평안을 소유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할로 인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유명복, 2018: 93-120).

### 1) 마태복음 11:28-30절의 적용

자아와 감정의 변화를 위한 성경적 목표는 자아의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입각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기만적인 인간의 거저됨, 약함에 직면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1) 그리스도의 초청

성경적 자아와 감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 11:28-30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초청을 적용할 수 있다. ‘자아 됨’의 추구를 ‘수고하고 지치고 절망한 자’로 ‘자아와 감정’을 ‘무거운 짐’으로 유비하여 1세기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아 이론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 대한 배경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대상이다. 헬라인들은 수세기 동안 진리(신)를 찾았으나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 어려워 지쳐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들이다 (Green, 김장복 역 2023: 218).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 Barclay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적 탐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Barclay, 박근용 역, 1976: 48). 유대인의 경우는 그들의 종교가 짐이었다(Green, 김장복 역, 2023: 218). 그리스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했다(마 23:4). 유대인에게 종교란 하나도 남김없이 준행해야 하는 끝없는 규례와 규칙인 율법의 멍에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어깨에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한다.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복종을 의미한다(Barclay, 박근용 역, 1976: 49-50). 그리스도는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다. 여기서 ‘쉽다’는 말의 헬라어 Chrestos는 ‘몸에 잘 맞는다’는 의미로 “나의 멍에는 몸에 잘 맞는다” 곧 “내가 주는 생명은 너를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또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쉽’을 제안하시는데, ‘쉽’은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성취가 정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 가서 의탁하기만 하면 된다(Green, 김장복 역, 2023: 218).

Boyd는 자아는 ‘주관적인 내적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McMinn & Philips, 한국복음주의 기

독고 상담학회역, 2006: 163). Matthew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는 시련들과 환난의 무거운 짐으로 이해한다(Matthew, 박문재 역, 2015: 219).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은 내적으로 평온하지 않아 다른 것을 찾고 채우려고 한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사람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일은 수고와 짐, 고통이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자기애와 같은 명어로 인해 개인주의와 고립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된다. 그리스도의 명에는 가볍고 쉬우나 인간 본성의 부패함이 명어와 짐을 어렵게 만든다(Matthew, 박문재 역, 2015: 221). 현대 자아 이론의 자아실현에 대한 과제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맞지 않는 명어를 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상담 이론은 자아는 힘, 완전함, 진리가 되므로 자신을 신뢰하라고 하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느 8:11).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명어를 매는 것이고 가볍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한 반응은 명어로 상징된 겸손과 온유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Turner, 2008: 402). 예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쉽다.

## (2) 온유와 겸손의 순종의 원리

현대상담은 자신의 열망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요구를 더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명어를 따라'는 명령을 잘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겸손과 온유의 태도인 순종이다. 자아의 자율성, 자기애, 자신의 느낌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는 점에서 영적 전쟁이다. 세상의 문화는 익숙해지고 확대되면, 진리처럼 느껴지고 가치 기준이 되어 사람들은 그 문화를 당연하게 따르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감정과 자신에 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율성은 개인이 중심이 되고 개인이 원하는 욕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며 예배의 문제이다(Tripp, 황규명 역, 2005: 103).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두거나 다른 것을 추구하는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비롯한다(롬 1:24).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한 완벽 추구, 자기도취적 자기 향상, 자신의 느낌과 경험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향한 마음에는 욕망이 들어 있다. 마음이 욕망과 전쟁 중이면(야 4:1)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자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새로운 자아가 된다. 자아와 개인적 감정 추구 안에 숨겨진 동기와 욕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아의 발견과 새로운 감정 즉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 향한 마음은 자기실현, 자기신뢰, 자아 존중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희생으로 가능하다. 자기실현으로서의 개인의 자질, 능력에 대한 필요는 삶의 목적과 의미라고 강조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질로서의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의 마음이다. 순종의 마음은 사랑의 짐으로 이행되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쉼으로 완성된다.

### (3) 개혁주의 상담학적 접근: 마음의 변화로 인한 '자아 인식'과 '감정'의 변화

현대상담의 자아와 감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말씀에 근거한 상담적 접근을 시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새 자아, 새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진정한 인간의 실존과 감정의 변화는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의 변화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대 상담의 큰 영역 중 하나는 자기 신뢰와 만족을 위해 긍정적 사고와 감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의 핵심에는 불안이 있다. 긍정적 사고는 자기 확신이 없고 자신에게 낙관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의식적으로 사고의 힘을 강화하여 자기 신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hrenreigh, 전미영 역, 2011: 23-24). 그러므로 긍정적 사고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한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훈련은 불쾌한 생각을 억누르고 차단하려는 힘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불안을 제거하지 않고 형성된 긍정적 감정과 자기 신뢰는 자기기만이라 할 수 있다. 불안한 심리를 스스로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가지므로 중요한 존재라고 평가하고 자기 만족감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자아 이론은 Freud 이후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내세웠다. 그러나 개인의 진정성과 감정의 절대성의 강조로 인한 개인주의와 자기애의 팽창은 냉소와 고립, 공허한 개인들을 양산했으며 이는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의 욕망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냉소적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느낌이다. 느낀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것들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느낌과 감정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입구로 느낌은 대체로 욕망과 기대감을 전달한다. 현대의 자아에 대한 장려는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여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떠나는 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했다. 성경은 올바른 감정과 느낌을 장려한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경험, 감정, 욕망, 신념을 꿰뚫는다(히 4:12). 그러므로 느낌이라는 뿌리, 감정과 느낌에 숨겨진 것들을 보아야 한다. 성경은 그 영역을 마음이라고 하며,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한다(렘 17:9). 그리스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막 7:15-16). 사람은 외적인 환경이나 행동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욕망과 기대, 동기가 담겨진 마음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개혁주의 상담학적 접근은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에 권위를 가진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것에 둔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한 우리의 실존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마음의 동기와 욕망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따라 마음이 쉼을 얻는 해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자신이 될 때 삶의 의미를 상실하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아 개념의 형성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적인 고통, 자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다(겔 36:26 ; 딤후 3:5 ; 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아 인식은 회개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께 수용되고 구속된 자아(영혼)는 성경이 가르치는 토대 위에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성취, 자아와 감정이 담긴 마음의 방향을 직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개인의 경험이 주는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이 성경적 근거 위에 있다면 감사와 기쁨이 되지만,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이 비성경적 근거에 의한다면 고만이나 우울감, 자기 만족감이 될 수 있다. 역으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이 성경적 자아 인식과 연합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이 비성경적 신념과 연합될 때 무가치함과 자기 비하감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아의 해결은 마음을 보도록 돕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패한 본성에 대한 자기 인식은 회개와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아와 감정을 주께 가져가도록 이끄는 상담이 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시 51:10), 은혜와 순종의 마음에는 쉼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시 131). 성도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을 통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Calvin에 의하면 성경은 사람이 가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바른길을 찾아가는 '실'이며 '안경'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에게로 오라고 한다.

### III. 결론

지금까지 현대상담 이론과 심리치료의 핵심 요소로서 '자아'와 '감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자아 이론은 Freud의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긍정심리학에 이르기까지 현대상담 이론의 핵심 주제가 된다. 자아에 대한 관념은 고대 철학에 등장하는 주제였으나 Freud 이후 여러 변천을 거치며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자아실현의 원리로 형성되었다. 둘째 자아실현은 개인의 경험, 정서, 감정

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며 행복, 낙관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 건강 운동으로 이어진다. 자아와 감정이 연합된 자아 개념은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을 중시하며 가족, 교육, 광고산업, 인간관계, 의료를 비롯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자아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역할과 문화적 단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셋째, 자아실현은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중요한 존재에 대한 함의는 소통과 함께 사회적 관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 발전과 탐구의 영향과 결과는 개인주의와 자기애적인 문화적 자아를 형성하고, 개인의 정서는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몸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신이 되고자 하는 신비주의와 같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치료요법을 등장시킨다. 이와 같은 자아와 감정에 대한 담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이 성취해야 하는 무거운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개인은 오히려 개인화되어 소외되고, 불안과 무가치함을 경험한다. 자아와 개인적 감정 추구는 예배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에게 배울 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으나, 죄의 상태에 있게 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탐구하여 자율성과 자기 신뢰, 자기애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통해 마음(심령)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속의 은혜는 그의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자아 추구 안에 숨겨진 인간의 동기와 욕망의 변화를 위해 마음의 변화를 제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학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근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자아 추구로 인한 개인의 경험과 정서에 대한 상담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주현 역 (2018). **자기를 위한 인간**. Fromm, E. (1947). *Man of Himself*. 서울: 나무생각.
- 권기돈·하주영 역 (2015). **자아의 원천들**.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서울: 새물결 출판사.
- 김비아·신현정 역 (2015). **마이어스의 심리학**. Myers, C. & Dewall, N. (1954). *Psychology*.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상우 역 (2019). **행복의 심리학**. Nettle, D. (2005). *Happiness: The Science Behind Your Smile*. 서울: 와이즈 북.
- 김인자·우문식 역 (2014). **긍정심리학**. Seligman, M. (2002). *Positive psychology*. 서울: 물푸레.
- 김장복 역 (2023). **마태복음: 천국의 도래**. Green, M. (2000). *Message of Matthew: the kingdom of heaven*. 서울: IVP.
- 김정아 역 (2022). **감정자본주의**. Illouz, E. (2007). *Cold Intimacies: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파주: 돌베개
- 김정자 역 (2014). **행복이란 무엇인가**. Shahar, T. (2012). *What is Happiness*. 파주: 느낌이 있는책.
- 박문재 역 (2015). **청교도 성경 주석: 마태복음**. Poole, M. (1985). *Bible Matthew-Commentaries*.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박은호 (2021). 행복과 건강 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상담학적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제71집, 105-137.
- 박정훈 (2023). 철학하는 의사 갈레노스의 영혼돌봄에 관하여. **한국서양고대역사문학학회**, 66, 213-248.
- 박한선·이수인 역 (2014). **행복의 역습**. Dworkin, R. (2006). *Artificial Happiness: The dark side of the New Happy Class*. 서울: 도서출판 아로파.
- 박형신·전수남 역 (2023). **근대 영혼 구원하기**. Illouz, E. (2008). *Saving the Modern Soul: therapy, emotion, and the culture of self-help*. 파주: 한울 아카데미.
- 배용덕 역 (2014). **마태복음**. Turner, D. L. (2008). *Matthew*. 서울: 부흥과개혁사.
- 백상차 역 (1997).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May, R. (2009). *Man's search for Himself*. 서울: 문예 출판사
- 송영배 역 (2019). **불안한 현대사회**, Taylor, C.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서울: 이학사.
- 안경승 (2014). 행복과 기독교 상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연구소. **ACTS 신학저널**, 제19권(1), 213-245.
- 이남석 역 (2010).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Twenge, J. & Campbell, K. (1971). *Narcissism epidemic*. 서울: 옥당.
- 이만갑 (2004). **자기와 자기의식**. 서울: 소화.

- 이세진 역 (2021). **해피크라시**, Illouz, E. & Cabanas, E. (2018). *Happycracy*. 서울: 청미출판사.
- 오성춘 역 (2006). **목회신학, 교역의 본질**. Oden, C. T. (1983). *Pastoral Theology: Essential of Ministry*.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유명복 (2018). 명상의 비교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7, 93-120.
- 유정수·홍경자 (1996). **나를 사랑하기 자기 존중감 향상법**. Mackay, M. & Panning, P. (1987). *Self - Esteem*. 서울: 교육과학사.
- 윤종석 역 (2003). **자존감: 십자와 그리스도의 자신감**. McGrath, A. & McGrath, J. (2001). *Self - 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서울: IVP
- 장혜영 역 (2010). **신이 된 심리학**, Vitz, P. (2010).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플 러스.
- 전미영 역 (2014). **긍정의 배신**. Ehrenreigh, B. (2010). *Bright Sided*. 서울: 부키.
- 차명호 역 (2006). **왜 크리스찬은 심리학을 신뢰할 수 없는가**. Bulkley, E. (2006). *Why christian can't trust psychology*. 서울: 미션월드.
- 최경도 역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m*.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승락 (2018). 욕망의 개혁: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을 딛고 라캉, 지젝과 대화하기. **성경과 신학**, 85, 1-33.
- 최인수 역 (2004). **몰입**. Csikzentmihaly, M. (1990). *Flow*. 서울: 한우림.
- 최재호 (2003). **대중문화와 성경적 세계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2006). **영혼돌봄의 상담학**. McMinn, M. & Philips, T. (2001).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gy*. 서울: CLC.
- Amundson, G. (2015). Psychotherapy, Religion, and the Invention of the Self. *Therapy View: Musing on the Work and Play o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and culture*. Nov-1.
- Babcock, W. S. (1991). Cupiditas and Caritas. in (Ed.) *the Ethics of St. Augustine*. Atlanta: Scholars Press.
- Bruce, F. F. (1982).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 Cushman, P. (1990). Why the Self Is Empty: Toward a Historically Situated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y*, 45(5), 599-611.
- Evans, G. R. (1982). *Augustine on Evi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tzgerald, A. (1999).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Eerdmans Pub Co.
- Gill, C. (2006). *The Structured Self in Hellenistic and Roman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 Holifield, B. (2005). *History of Pastoral care*. Wipf and stock.



Mayo, E. (1949). *The social problems of an industrial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ruyser, P. (1976).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A: Philadelphia Press.

Richard, M. (2006). *Happines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ScienceDaily 2008. 12. 5. "Happiness is 'infection' in Network of Friends: Collective-Not Just individual- Phenomenon."

# 마태복음 11:28-30절을 통한 개혁주의 상담학적 접근: ‘자아’와 ‘감정’을 중심으로

## A Reformation Biblical Counseling Approach with a Reflection on Matthew 11:28-30: Centered on ‘Self’ and ‘Emotion’

박은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 논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이 중심이 되고, 감정과 경험이 개인의 가치가 되는 자아 이론에 대하여 마태복음 11:28-30절을 중심으로 상담의 성경적 목표를 고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아 이론의 정립과 관심의 확산은 개인주의와 나르시시즘의 문화를 형성하였다(Taylor, 송영배 역, 2019:14). 이와 같은 문화적 현상 가운데 개인은 정보와 기계화로 인한 생존 경쟁, 긴장과 압박감, 두려움과 같은 쉽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이 글은 자신의 자아와 감정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대 상담의 문제와 목표에 있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실천을 지향할 필요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상담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 1세기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아 개념과 경험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아와 정서가 새로운 담론으로 정착하게 된 시간적 추이를 살피고,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결론적으로 현대 상담 목표의 핵심인 자아실현과 감정(정서)의 문제는 주님께 배우고 자신을 더 높은 권위에 굴복함으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주제어: 자아, 감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 쉼

#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과 이중직에 대한 변론\*

## Pastors' Financial Freedom: A Defense of Levitical City and Bivocational Ministry

구준호 (Jun-Ho Koo)\*\*

###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for two significant aspects of life in pastors - namely ministry and livelihood - to be integrated to bring vitality to ministry, and proposes this be achieved through pastors' "financial freedom." For present-day pastors, salary from church is almost the sole source of income, and this is problematic because of polarization between mega churches and financially dependent churches, and growing individualistic nature of churches which overlooks the absence of the greater Church. The laymen also have a responsibility here. Many pastors today hold two jobs and this is a struggle they take on to support ministry and livelihood. Some argue that pastors must live by depending on the grace of God("living on the ravens" as mentioned in 1 Kings 17:1-7). However, through Scripture, God has already revealed financial principles His servants need to live by. Levitical cities in the Old Testament were like minimum wages for Levites who received no other inheritance but were to devote their lives to serving God. This principle continues into the New Testament era. Tentmaking in the New Testament is an amazing way for present-day pastors to achieve financial freedom(this is called bivocational ministry). From Levitical cities to tentmaking, this study presents financial principles for pastors. Obeying the "decrees and laws of God" written in the Bible will provide great vitality to the stagnant Korean church(Leviticus 25:18-19).

**Key words:** pastor, bivocational ministry, financial freedom, Levitical city, tentmaking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27일 게재확정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2023.11.18)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예수랑교회(Jesus-rang Church) 목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9번길 29 5층, kjhoouo@naver.com

## I. 서론

### 1. 문제 제기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기울어지고 바알숭배가 아주 극도에 이르렀던 시대이다. 여호와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설자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하나님은 이 때 선지자의 대명사격인 엘리야를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까마귀의 도움으로 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옳은 말이지만, 또한 아주 틀린 말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그 가뭄의 때를 견디게 하신 이유는 그 때에 이스라엘이 바알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섬김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는 열왕기상 18:4에서 잘 보여준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조직적인 소탕작전에 착수하고 있었다(Bimpson, 김순영 외 역, 1994: 483).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선지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바알숭배가 아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sup>1</sup> 따라서 하나님은 한시적 도움으로 ‘까마귀’를 보내신 것이지, 이것이 엘리야의 삶의 평생을 책임질 것은 아니었다.<sup>2</sup>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해 정하신 재정의 원칙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과 삶에 대한 오해(일명 까마귀의 도움)를 바로잡고 재정적 자유를 목회자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사역과 삶에 대한 성경적 재정의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교회사의 빛 가운데서 조명해 보며, 21세기 목회자의 사역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 대천덕 신부는 『토지와 경제정의』에서 바알숭배자였던 아합이 나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것처럼 바알의 경제는 토지 사유화를 정당화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도 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여호와와 신앙으로 산다면 경제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이러한 여호와와 신앙만이 레위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레 25장).

2) 우리는 흔히 까마귀가 직접적으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월튼(Walton, 정옥배 외 역, 2000: 537)은 까마귀가 음식을 저장하는 습성을 엘리야가 알고 그들의 음식을 꺼내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릇시냇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하셨고 우리는 이러한 ‘까마귀의 도움’을 사모하기도 한다.

목회자의 사역과 삶에 대한 재정과 관련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황원선(2018)의 “목회자 적정 사례비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류재린(2017)은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 얼마 전에는 김상덕(2023)이 “목회자 은퇴 연구: 공교회적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목회자에게 재정적 자유가 중요함을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고, 목회자의 처우개선과 노후를 위한 준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구약시대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성읍’과 ‘이증직 목회’를 목회자의 성경적 재정원리라는 입장에서 논지를 펼치고자 한다. 레위인 성읍은 구약연구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를 21세기의 목회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실천신학적이며, 필자 자신이 선교와 목회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이증직 목회에 대해서 고찰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적이다.

본 연구는 1장 서론, 2장 레위인 성읍에 대한 연구,<sup>3</sup> 3장 목회자의 이증직 문제, 4장 목사와 재정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 5장 결론으로 진행이 되었다. 1장에서는 간단한 문제 제기와 연구방법, 사전 연구 등에 대해서 기술했고, 2장 레위인 성읍에 대한 연구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이 강조되고, 3장에서는 성도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또는 공교회성이 배제될 때) 목회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4장에서는 목회자의 소명과 목회자의 삶에 대한 교회사적 조명을 재정의 관점에서 다루었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 II.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신 성읍

### 1.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인

구약시대에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시대마다 사역했던 선지자들(혹은 사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 레위인(제사장들을 포함)에 대해서 집중해 본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는데 장자가 한 집안의 대표인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민 3:12, 45).<sup>4</sup>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들

3) 한편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목회자의 사례는 구약시대의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성읍에 대해서만 고찰을 하는데 레위인에게 허락된 십일조를 다루지 않은 것은 십일조에 대한 연구가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인지되고 있지 않은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성읍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하고자 함이다.

4) 제사장의 수도 이 전체 숫자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역대기의 기사에 따르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제사장은 포함되지 않은 수였을 수 있다(참고. 허성균, 2008: 64)

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이 없이 거함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다(신 12:19 ; 14:27).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 중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주할 성읍을 제비뽑아 나누어준 일이다(민 35:1-8 ; 수 21:1-42 ; 대상 6:54-81).<sup>5</sup>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참고. 민 18:24-29 ; 신 18:1-8).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의 직임이 만인 제사장으로 확장된다(벧전 2:9).<sup>6</sup>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목회자를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단순히 일반화하여 여길 수는 없다. 김승호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 현 시대의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현 시대의 목회자의 직무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한다(김승호, 2016: 64). 오늘날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섬기며 봉사한다. 하지만 목회자는 신약 시대에 분명히 존재하는 역할이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다(엡 4:11). 본 논문의 목적은 신약시대의 목회자의 사역과 삶의 조화를 위한 것이지 목회자의 직분과 관련한 역할에 대한 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의 책 『예언의 은사』를 참고하기 바란다.<sup>7</sup>

<표1>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비롯한 제사와 절기 등 구약의 개념들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정리이다.

<표1>에서 보듯 구약에서 신약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그 의미와 사용이 단절된 것은 희생제사 및 다른 제사이며 여기에 따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소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8</sup>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

5) 본 논문은 레위인 성읍이 이상적이고 역사적인 성읍으로 실재하였다는 하란(Haran)의 입장을 따르며,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1장에서 이 성읍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케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허성균의 입장과 같이한다(허성균, 2008: 19-21,53).

6) 나카노 미노루(Nakano Minoru)는 이를 ‘전신도 제사장성(性)’이라고 표현하며 베드로전서 2:9의 제사장은 한 성도 한 성도의 개인이 아닌 제사장 집단(ἱεράτευμα) 즉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전서보다 오히려 요한계시록(1:6, 5:10, 20:6)에 가깝다고 한다(Minoru, 2019: 15-31). 그러나 전신도 곧 만인이 제사장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7) 이 책에서 그루뎀은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시대의 목사는 사도가 아니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도 구별된다. 사도는 성경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직분으로서 오류가 없지만, 목회자나 신약시대의 선지자 등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의 진위와 권위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8)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마 8:4 ; 눅 1:5)과 레위인들(눅 10:32 ; 요 1:19)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와 같은 예외도 있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 등의 번제물을 목돈을 받고 파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마 21:13 ; 막 11:17).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분개하셨다(마 21:12).

구약	신약
제사장 직분과 역할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 직분과 역할	제사를 돕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섬기며,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를 섬김.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것
희생 제사 및 소제와 전제 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심. 그러므로 희생제사에서 제사장의 소득이 나오지 않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러졌다고 함(딤후 4:6).
레위인에게 주어진 십일조	십일조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없음. 십일조를 드렸던 바리새인의 전통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일조를 언급하시며 금하지 않으셨기에 십일조는 신약시대에도 이어짐. 하지만 그 용례에 대해서는 십일조를 모두 목회자를 위해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	구약시대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성읍의 의미를 신약시대 성도들이 되살릴 수 있음.
첫 열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와 절기는 모세 오경에 명한 7대 절기만 아니라 부림절과 수전절과 같은 절기들이 더하여져서 예수님 당시에 지켜졌음. 예수님께서 절기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셨으며 절기를 폐하지 않으심. 그러나 절기를 다 지키신 것은 아니심(요 6:4)
정결예식 등	정결예식에 따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눅 2:22),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음(행 10장).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정결예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함(행 15:11 ; 고전 8장 ; 갈 2:16).
희년	예수님이 친히 희년을 선포하셨음(눅 4:18-19).

<표1>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연계

이다.

하지만 제사장을 위해 봉사했던 레위인들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9에 서처럼 이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를 돕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일은 구약시대 레위인들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의 역할로만 한정되지 않고, 선지자적 역할도 있기에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한 재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신구약을 연계한 폭넓은 탐구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사장의 직무는 폐하여졌고, 만민제사장으로 연계되었다. 하지만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의 직무는 오히려 더 새롭게 되었다. <표1>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레위인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레



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에 따른 레위인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 2. 레위인은 거울과 같은 존재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을 도움으로 회막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신 18:1).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집과 가축을 기르기 위한 작은 성읍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텃밭에서는 채소와 과일 등을 재배하며,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를 기르고, 염소와 양, 나귀 등의 짐승을 소량 기르고 그것에서부터 털과 고기, 우유 등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넓은 기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레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의 삶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것이다(신 10:8-9). 이 말인 즉 레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히 11:27).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심으로 레위인의 삶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거울(reflecting mirror)과 같은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에 때로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했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다. 하지만 이처럼 궁핍할 때에도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이 거할 집과 그들의 가축을 기를 초목이 있었다. 즉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셔서 그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셨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의미였다.<sup>10</sup> 하지만 하나님이 레위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소소한 것일 뿐 이것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를 넘어, 풍성함이 되지는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다(신 12:12 ; 14:27,29). 여기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림이 포함된다.

9) 이은선(2012: 41-66)은 칼빈이 신 인식과 관련하여 자연과 우주, 성경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하며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곧 자연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거울(vice speculi)’이고(*Inst.*, 1.5.1),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의 살아있는 형상이 비취지는 거울(speculi, in quo viva eius effigies relucet)’이다(*Inst.*, 1.10.2, 1.14.1). 덧붙여 칼빈은 성례까지도 ‘영적인 복의 거울(bonorum spiritualium speculum)’이라고 말하는데(*Inst.*, 4.14.3) 레위인들의 삶도 이러한 신 인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형상 곧 거울과 같이 기능한다.

10)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기본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만민의 권리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변하며 외쳤다(김회권, 2022: 400-422). 성경은 레위인들도 이러한 공의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레 25:32-34).



레위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삶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에게 토지가 있어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기르며, 풍성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먹거리, 그 삶의 풍부함이 결국은 넓은 토지나, 자신의 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에 땅의 소출을 얻음을 레위인을 보며 알게 하려함이다(신 8:11-20).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말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들의 삶이 아무 기업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먹을 것을 얻고, 살게 됨을 보며 알도록 의도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하심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그 집안의 대표이듯 그들도 레위인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거울처럼 말이다. 레위인의 삶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살 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마 4:4)”을 알게 하신 것이다.

### 3. 신약시대의 목회자도 거울과 같은 존재

따라서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된다. 또한 목회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보는 성도들은 그들의 힘만으로 돈을 모으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염려치 말 것에 대해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근거하여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마 6:26)”라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 6:28-30)”고 또다시 물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 6:30).”

이것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야말로 성도의 삶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신약시대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으로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프로테

스탄티즘의 삶의 윤리가 바르게 형성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격려하며,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마음을 주의 뜻으로 왜곡하는 습관을 배격하기 때문이다(살후 3:6).

하지만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에게는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기본적 생활의 바탕이 되는 토지와 성읍이 없다(민 35장 ; 수 18:7, 21장).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으로 삶의 필요를 공급받지만, 무엇이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토지와 성읍’이 될 수 있을까.

본질상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레위인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목회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를 목양하라고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딤후 5:18). 이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며(눅 10:7), 주님께서도 친히 그러한 섬김을 받으셨다(눅 8:1-3). 따라서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아 생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한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칠십 전도대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눅 10:4)”라고 하셨는데 이는 특별한 전도의 상황 속에서의 일이지 평생을 이와 같이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속에는 사역자의 삶의 원리-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축복하면(민 6:22-27), 그 삯을 받게 된다는 원리-가 잘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비가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과 토지의 의미라면 이 금액은 목회자가 생활하며, 사역과 삶의 유기적 연관성을 갖도록 함에 적합한 수준이면 족하다.<sup>11</sup> 지나치게 많은 사례를 받아 성도들의 삶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sup>12</sup> 이형원(2009: 168-169)은 이렇게 말한다.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여 삶의 목표를 물질이나 부동산을 늘리는 데 두게 된다면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권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 축복을 가능하는 절대 기준처럼 강조되고 있는 한국 교계에서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11) 류재린은 목회자의 사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째 투명한 급여 체계, 둘째 직급보다는 필요 우선적인 급여 체계, 셋째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급여 체계를 제시한다(류재린, 2017: 143-145). 본 연구자의 주장대로 사례비를 단지 레위인의 성읍 개념으로 한정한다면 류재린이 언급했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급여 체계까지 고려되지는 못한다. 즉 노후에 대한 대비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비에는 레위인 성읍개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도들이 바쳤던 십일조와 같은 헌신적 예물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은 레위인의 성읍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2) 여호수아 13-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레위인들이 받은 땅은 전체 가나안 땅의 0.1%도 안 되는 성읍과 토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땅은 현재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현재의 이스라엘 영토인 22,070km<sup>2</sup>를 기준으로만 해도 전체 이스라엘 인구에 대비해 레위인을 4%로 볼 때 이것은 자립을 위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와 성읍임을 알 수 있다(<표2> 참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으니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신 14:27).

축복이 그러한 범주를 넘어선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 축복으로 간주하며, 그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한다.

### III. 이중직 목회<sup>13</sup>

김승호는 『이중직 목회』에서 구약시대의 이중직 목회의 예로 아담-농부, 아벨-목자, 가인-농부, 노아-농부, 아브라함-목자, 모세-목자, 여호수아-딤나 건설, 기드온-밀 타작, 아모스-농부, 호세아-상인 등으로 제시하는 도르(Luther M. Dorr)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몇몇 예외가 있지만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자급자족했거나 혹은 이중직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김승호, 2016: 60-62)”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목사가 급여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Heaven is Real>이라는 영화를 보면 목회와 일을 병행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나온다. 이 영화는 콜튼 버포(Colton Burpo)라는 4살 짜리 소년이 천국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토드 버포(Todd Burpo)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그의 아버지는 네브라스카 주의 한적한 시골마을

지파	인구수(민 26장)	분배받은 성읍과 토지(수 13-22장)
르우벤	43,730	14성읍 이상과 토지
시므온	22,200	18성읍과 토지
유다	76,500	112성읍 이상과 토지
잇사갈	64,300	16성읍과 토지
스불론	60,500	12성읍과 토지
단	64,400	18성읍과 토지
납달리	45,400	19성읍과 토지
갓	40,500	부정확
아셀	53,400	22성읍과 토지
에브라임	32,500	부정확
므낫세	52,700	동쪽 60성읍, 서쪽 12성읍과 토지
베냐민	45,600	26성읍과 토지
레위	22,273(민 3:43)	48성읍과 성벽 사방 천 규빗(암마)의 토지(민 35:4)
전체인구 대비 레위인	약 4%	전체토지의 약 0.1 미만의 성읍과 토지를 소유

<표2>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지파의 인구대비 토지규모 분석

13) ‘이중직’이라는 단어 보다 ‘자비량’이라는 단어가 좀 더 논문의 취지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중직은 ‘두 개의 일을 겸함’이라는 뜻으로 그냥 두 가지 일을 한다는 어감이 들지만, 자비량(自備糧)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데 의미 그대로 ‘자기가 쓸 양식을 스스로 갖추’이 되기 때문이다. 목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식을 만드는 일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행 18:1-4). 따라서 본 논문은 흔히 사용되는 ‘이중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그 취지는 ‘자비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의 목사로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를 이어간다. 극중 토드의 모습에는 주중에 일을 하고 주일에 목회를 하는 모습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아마도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러한 이중직 목회를 생업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까닭이다(김승호, 2016: 111-117). 이러한 이중직 목회는 교회의 성장감소와 관련이 있는데 김재완은 한국교회가 포스트-성장(post-growth) 시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한 것이 이중직 목회라고 말하며 오늘날 한국교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말한다(김재완, 2023: 2).

## 1. 목수 예수

예수님께서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 목수(木手)의 일을 하셨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직업교육을 받는데 예수님도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배운 것이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여인 후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셨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다(막 6:1-3).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에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실 만큼 성경에 대해 잘 아셨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요 1:1)이셨지만 그분은 또한 ‘바 미쯔바(Bar Mitzvah)’ 곧 ‘말씀의 아들’로 자라나셨기 때문이다(눅 2:41-51).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이 ‘바 미쯔바’ 예식이다.<sup>14</sup> 유대인들은 ‘바 미쯔바’를 하기 1, 2년 전 성전에 미리 올라가 ‘말씀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웠다(제자원, 2004: 253). ‘바 미쯔바’는 종교적 성인이 되었다는 선언이며 큰 잔치였다. 오늘날의 메시아닉 유대인도 이를 행하고 있다. ‘바 미쯔바’ 후에는 모든 말씀의 책임이 예식이 끝난 자에게 있어 부모는 그 아이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조연자로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많은 축하금이 들어와 목돈이 마련된다(김형중, 2015: 268-273). 그러한 유대교적 전통에서 말씀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분개하신 것이다(정연호, 2010: 189-199).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말이다. 율법의 정신은 무너져 있고, 율법의 가르침만을 전하는 무너진 집과 같은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셨고(마 23:23),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외치셨다. 여기 이러한 건축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가지셨던 목수의 일과 잘 어울린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며 이러한 일을 묵상하셨기 때문이다.

14) 이 예식은 토라 전체를 차례대로 암송한다. 대제사장 아론의 147대손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리 코헨 박사(Dr. Gary Cohen)도 13세 때에 토라는 물론 이사야 전체를 암송하여 바 미쯔바 예식을 행했다고 한다(김형중, 2015: 187).

목수의 일은 무너지고 곰팡이 난 집을 소위 리모델링하며, 그 집에 필요한 집기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당시 부패한 종교지도자들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는 것과 닮았으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일꾼을 보내시는 주님의 일과 닮았다(마 16:18). 공생애 이전의 일(work)과 공생애 때의 사역(ministry)이 조화를 이룬다.

## 2. 이중직 목회자의 고뇌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가지셨던 일이 공생애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목회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 과정도 목회를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중직을 가지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단순히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하지 않고 일을 하느냐는 비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로 목회자가 목회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업을 가졌기에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주광은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 앞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며 ‘믿음을 찾아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에 ‘목수 목사’가 되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익히는 데만 6개월, 어깨너머로 현장에서 일을 배운지 8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의 목수가 되었다. 그는 목수와 목사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한다(최주광, 2022: 98-101).

현장에서 일하며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이 고되기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독서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의 모친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빈소가 차려진 곳이 전라도 광주였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광주에 도착하니 늦은 밤 12시였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와 현장 근처에 숙소를 잡고 두 시간 동안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면서 ‘나는 일도 목회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매우 괴로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목회자로서 일을 하며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마도 이 점이 목회자로서 이중직을 고민하는 경우에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일을 할 때 성도들의 삶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이 수고하며 흘리는 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들이 힘들게 수고하며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며 그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목회자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목사로서 목회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목회를 위해 돈을 벌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라는 이분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구분은 중세적인 것으로 중세에는 소명(vocation)이란 단어가 종교적 직업(사제·수도사·수녀)에만 국한됐지만 루터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상인·농부·뜨개질하는 사람·주부 등에게 적용하여 사업이나 집안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Pearcey, 홍병룡 역, 2006: 160). 그러므로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울 수 있다.

### 3. 성경 속 이중직 사례

바울은 많은 경우에 정기적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빌립보교회를 통해서 간혹 지원을 받아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는 빌립보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다(빌 1:7).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자금을 오늘날과 같이 신속하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 재정이 없을 때는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와 노동을 병행하였다. 그렇다고 바울의 자비량 목회가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일을 했던 것이다(행 18:1-4 ; 고전 9:4-17 ; 행 20:28-35).

이처럼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전임으로 목회만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을 하기도 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행 18:2-3)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고전 9:6).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른 세속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성격 때문으로, 이를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그대로 따라야 할 목회자의 전형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김승호, 2016: 64).

이러한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사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에 임했고(왕상 19:19-21), 사사 기드온은 평소 자기의 일을 하다가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삿 6:11-8:28).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기 전 그는 엘리야와의 만남이 있었고, 선지자의 생도로써 훈련을 받는 일에도 간혹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전(막 1:16-20) 그들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다니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고(요 1:35-42), 가나의 혼인 잔치에도 함께 참여(요 2:1-11)하는 등 준비



단계가 있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대변했던 사사와 선지자들은 많은 경우 일반적인 일을 겸하고 있었다. 사사는 자기의 일을 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 중 이사야는 궁중에서 기록관의 일을 했다(대하 26:22).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생활했다(암 1:1, 7:14-15).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지냈던 요셉은 철저히 애굽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아무 근심 없이 머물며,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70명이라는 한 가족의 규모를 넘어 70만에 달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해주셨다. 요셉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다윗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이였다. 다윗 왕국이 가지는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고, 왕궁에서는 사울의 무기든 자로, 음악치료사로,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으로 여러 직임을 감당했다. 이후 십칠 년이 넘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 때 그 때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의 찬양을 남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처럼 일과 사역을 겸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찾아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선교사들이 창조적 접근 방법으로 일과 선교사역을 함께 하는 모습(BAM, Business As Mission)을 종종 보게 되는데 목회의 현장에서는 이 일이 아직은 좀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특별히 BAM은 선교사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하는 이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다. 즉 직업의 현장이 전투적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BAM은 Business For Mission(선교를 위한 사업)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오늘에 유익하다(엄기영, 2009: 14-21).

#### 4. 이중직과 목회의 본질

모든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중직이 필요 없을 만큼 목회의 현장이 재정적으로 목회자의 삶을 풍성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면 목회자는 가르치며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임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막 1:16-20).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일곱 명의 안수 받은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는 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행 6:4)”였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전념하라고 하시는 소명으로 여겨야겠다.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목회자라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더욱 목회에 정진해서 양들을 잘 목양해야겠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중직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한다. 내가 어떤 일터의 사장이든지, 혹은 직원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목회사역과 직업이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부름을 받고 목회의 현장으로 온 목회자들은 일과 목회를 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불신자와 의만남, 삶의 이해 등-도 있음을 알기에 필요하다면 이중직을 권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찮은 세상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간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sup>15</sup> 그러므로 목회와 세상일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앉거나 일어서야 한다. 주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주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교회 일은 주님 일이고, 세상에서의 일은 세상일이라는 잘못된 이분법만 갖지 않는다면, 그 일이 교회의 일이든,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세상의 일이든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받을 수 있다. 목회자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 해도 말이다.<sup>16</sup>

15) 작년(2023) 가을 총회에서는 유달리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2672&code=61221111&cp=nv> (검색일 2023.10.19.)

16) 필자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사역 후 안식년으로 제주에 머물며 한동안 조그만 가족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따로 후원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익숙함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경험이 쉽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렇게 선택한 일은 피트니스 사우나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었고, 약 7개월 동안 일을 했다. 필자가 중국에서 처음 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을 할 때도 목회와 일을 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재정적 문제보다는 비자와 한인교민들에 대한 이해 등 사역적인 이유가 컸다. 성도들도 일을 해보라고 권하는 분도 있었지만 설부터 시도할 수는 없었다. 새벽기도와 주중에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중직에도 큰 유익이 있다.



## IV. 목회자와 재정의 연관성

### 1. 목회자의 헌신과 교회

목회자는 필연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목회자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샅꾼 목자라 불러 마땅하다(요 10:12-13). 그래서 스펀셜 목사는 목사가 되려는 후보생들에게 목사의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을 당부하며 만약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를 고려한다면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목사의 직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purgeon, 이용중 역, 2012: 51-55).

목회자는 목회사역에 집중하여 성도를 목양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잘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일에 전담하는 목회자의 재정적 자립을 책임져야 하고, 목사는 그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 말씀으로 목양하며, 생명을 다해 주께 충성해야 한다. 따라서 목사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Spurgeon, 이용중 역, 2012: 44). 고린도전서 9:6에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100%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때로는 담임목회자에게 집중되어 부교역자에게는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경우는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목회자가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강요된 청빈’일 뿐 정의롭지 못하다(김상덕, 2023: 609). 따라서 목회자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교인들의 자발적 참여

네덜란드의 경우 교회는 매년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등록한 각 성도들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지정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임대비와 유지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sup>17</sup> 어떻게 이러한 실제적인 재정방법이 만들어졌는지는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가 칼빈의 개혁사상을 이어 받은 화란계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17) 필자는 네덜란드에 살며 현지교회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목회현실에 대해 공감하였고, 현실적 대안으로써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 합의하여 제정을 세우는 네덜란드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2) 국가교회 차원에서의 헌신

유럽은 대체적으로 국가교회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 말은 목회자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주었다는 말이다. 독일의 경우는 종교세(일명 교회세로 알려진 Kirchensteuer)가 있어서 목회자가 준공무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sup>18</sup> 미국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이러한 종교세가 있어서 목회자의 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sup>19</sup> 오늘날 이러한 국가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반발로 종교세 납부 거부 등이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은 종교세를 유지하고 있다.<sup>20</sup>

## (3) 외부 지원

한국의 경우는 선교사들의 복음전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네비어스 선교방법에 의해서 자치, 자립, 자전의 교회관으로 교회가 외부의 간섭이 아닌 스스로의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되며, 외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스스로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sup>21</sup> 그러나 네비어스 선교정책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황원선은 “존 네비어스의 선교 전략은 한국의 모든 지방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주로 평안도 지방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교 기관들의 재정적 지원이 토착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데 효과적이었다(황원선, 2018: 274)”고 말한다.<sup>22</sup>

## 2. 경제구조의 변화와 교회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100% 재정자립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교회의 불균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불균형성이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하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오지와 산간 등 비교적 외지에서의 교회성장이 없음으로 생긴 문제이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른 문제로 과거에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였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8)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57331> (검색일 2023.08.18.)

<https://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 (검색일 2023.08.17.)

19) 피어시(Pearcey, 홍병룡 역, 2006: 482-485)는 미국의 초창기에 존재했던 국가교회 시스템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약화되었다. 사업이든 학교든 교회든, 독점은 게으름을 낳기 마련이다.”라고 말한다.

2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53372.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53372.html) (검색일 2023.08.18.)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비어스 선교정책”

22) 통합교단에서 개척을 하고 노회에 가입한 목회자에게 최저생활비 100만원을 주었는데 이는 자립이 어려운 교회를 돌아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김승호, 2016: 205). 또 루터회는 교회 개척에 나설 경우 5억원을 지급하며, 모든 목회자에게 매달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191만 1440원을 지급하고, 목회자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920> (검색일 2024.04.28.)

젊은 세대의 이동-이것은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책임질 수 있는 주 경제계층의 이동-으로 노년들만이 대부분 남게 되어 교회의 재정적 자립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3</sup> 물론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의 수평 이동은 주로 조직이 갖추어진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의 이동이 많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를 목회자는 잘 읽어야 한다. 피어시는 산업화에 따른 가정파괴의 문제에 대해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이들의 양육을 엄마의 역할로만 축소했고,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말한다. 본래 하나님은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모두 함께하며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Pearcey, 흥병룡 역, 2006: 600-609). 근래에는 아빠만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밖에서 일하며 자녀의 양육은 학원과 보육시설에 의탁하는 구조가 되었다.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출산계획은 생각지도 못 하고, 또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부모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히려 자녀를 홀로 두고 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는 포스트-성장 시기의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맞벌이 부모를 정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도시화 속 가정에 나타나고 있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가정의 역할을 곰곰이 씹어볼 일이다.

### 3. 공교회성의 부재

또한 교회의 공교회성의 부재가 목회자의 재정적 자립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헌금으로 교회의 존립을 위한 책임감을 다함인 약하기 때문이다.<sup>24</sup>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교회의 자발적 헌금은 큰 도전이 된다. 대형교회가 필요한 하지만, 대형교회로 성도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는 헌금에 대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을 즐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의 대형교회도 그 교회의 재정을 활용할 때에 단일 교회의 목회자의 재정적 자립은 책임을 저주지만, 지역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의 생계까지 함께 책임지려는 교회는 적기 때문이다.<sup>25</sup>

23) 도시화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는 한편 선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김동석은 “세계의 도시화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는 결국 선교 현장의 다양성에 맞는 적합한 사역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집중되므로 선교의 자원이 풍성해져 다양한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김동석, 2023: 18).

24) 최현중은 “한국 개신교회의 성도 1인당 헌금액은 13.5만 원(1982), 50.9만 원(1992), 61.8만 원(1994)/85.5만 원(1996), 164.9만 원(2015)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를 해당연도의 1인당 GNI로 나누어 헌금/소득의 비율로 비교할 경우에는 오히려 9.4%(1982), 8.2%(1992), 7.6%(1994)/8.1%(1996), 5.4%(2015)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최현중, 2017: 224)”는 분석을 하였다. 이는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이 물질이 풍요해 질수록 약해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25) 재정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단순히 사례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게 사례를 주어, 당장에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노후까지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의 생계를 돕는 일은 재정적 자립도가 높은 중대형교회에서 힘써야 할 일이다. 초대교회와 칼빈 지도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전강수, 1991: 2009).

#### 4. 국가적 대안

최근 들어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퇴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목회자의 퇴직 연금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다.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만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퇴직 연금’ 가입을 추진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up>26</sup> 물론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신 15:11).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Bolz, 김주성 역, 2008: 148-149). 지혜와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의 큰 과제이다.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개혁을 넘어 세속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제네바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완모, 2013: 107-132). 국가를 의지하면 안 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개혁되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변혁시키는 것은 교회의 책무이다.

#### 5. 올바른 재정의 사용

칼빈의 개혁의 대상에는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돈의 올바른 사용 곧 돈이 지니는 봉사의 기능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었다(전강수, 1991: 207). 교회가 돈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를 세속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비엘러는 “칼빈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친다(Bidler, 홍치모 역, 1992: 55-56)”라고 말하며 칼빈의 관심 속에는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적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의 원리를 잘 회복하고, 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 원리를 잘 연구하여 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깨달을 때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눅 16:13).

26)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437> (검색일 2024.02.16.)

## V. 결론

예수님은 어부의 일을 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고 하셨다. 어부에게 있어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는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천국 백성을 건져 올리는 일을 그들이 한다는 것이다. 어부의 일을 하면서 가졌던 기쁨, 즐거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갖게 된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세상의 직업을 연관시켜 부르기도 하신다. 세상일은 속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거룩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속된 어부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꿈꾸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했다(마 4:18-22).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 음악가, 작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실현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할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을 부르신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으로 표현하는 요리사, 제빵사는 어떤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George, 김윤상 역, 2005: 535).

이제 요한이 밧모섬에서 황홀경에 빠져 감은 눈으로 보았던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독교 정신의 극치이며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벽옥 담장과 진주 대문을 가진 곳이다! 이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권리가 자유롭게 주어질 때 소수의 자본독점이 아닌 진정한 경제번영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의 기자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성경적 가치를 담은 경제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도록 애썼던 인물이다.<sup>27</sup>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

27)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에 반대하여, 이자(자본의 산물)와 임금(노동의 산물)은 개인에게 돌리고 지대(토지사용료)만 환수하여 다른 세금은 폐지하자는 ‘단일세(Single Tax)’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사상이 토지공개념이란 이름으로 부각된 이후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와 ‘토지공공임대제(Public Land Leasing System)’로 제시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토지가치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가치세’는 그 환수이익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복환의 경우는 이미 국유화된 토지를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활용해 통일 이후 초래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부동산 열풍을 방지할 수 있다. 필자는 헨리 조지에 대해서 알게 된 후로 그의 사상이 성경적 경제관과 과연 부합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R. A. 토레이는 무디 성경학교 교장 시절에 경제학에 관한 헨리 조지의 가르침이 옳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Torrey III, 전강수 외 역, 2004: 9). 우리가 이 분야에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는다면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를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그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목회자의 이중직도 이러한 점에서 고민해 볼 일이다. 교회가 목회자의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 전심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혹 이러한 일이 안되더라도 목회자는 사역(ministry)과 일(work)을 병행하며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결코 이 일을 책망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 주실 것이다(마 25:14-30).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였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셨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 일명 구약시대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던 ‘까마귀의 도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재정의 법칙은 아니다. 레위인 특별히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정의 법칙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정해진 원리가 있다. 부디 본 논문을 통해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위한 성경적 법칙을 잘 이해하고, 목회자는 ‘까마귀의 도움’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며,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원리가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약적 개념의 교회와 신약적 개념의 교회에 따른 목회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일뿐 옳고 그름의 차원은 아니다. 구약적 개념의 교회를 간단히 언급하면 건물로서의 예배당과 유급 목회자와 상하관계의 직분자가 존재하여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이며, 신약적 개념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예배당과 유급 목회자가 없고, 상하관계의 직분자도 없이 모두 동등한 상태의 교회이다. 김승호의 『이중직 목회』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는 이런 신약적 교회의 개념과 잘 맞는다(김승호, 2016: 190-221). 구약적 개념의 교회에서 헌금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라면, 후자에게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근거한다. 이는 다음 연구 과제로 넘기도록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동석 (2023). **성경적 관점에서 본 디아스포라의 歷史性과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牧會와 宣敎的 考察과 課題(GKCC 공동체의 사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Cohen University.
- 김동수·김윤아 역 (2015). **예언의 은사**. Grudem, Wayne (2000). *The Gift of Prophecy in the New Testament and Today*. 서울: 솔로몬.
- 김상덕 (2023). 목회자 은퇴 연구: 공교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3, 597-622.
- 김승호 (2016). **이증직 목회**. 대구: 하명출판.
- 김순영·김장복·김재영·성기문·이철민·임용섭 역 (2007). **IVP 성경주석-구약**(pp.452-522). Bimpson, J. J. (1994). 열왕기상하. in Carson, D. A., France, R. T., Motyer J. A. & Wenham, G. J. (Ed.)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서울: IVP.
- 김윤상 역 (2005). **진보와 빈곤**. George, H. (1981). *Progress and Poverty*. 서울: 비봉출판사.
- 김재완 (2023). 목회자 이증직 현상을 통해 본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쇠퇴하는 교회와 증가하는 선교적 가능성.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학술제 자료집**, 34-43.
-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역 (1989). **기독교강요**.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주성 역 (2008). **천국경제의 열쇠**. Bolz, S. (2005). *Keys to Heaven's Economy*. 서울: 도서출판 순전한 나드.
- 김형중 (2015). **테필린**.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 김희권 (2022). **자비 경제학**. 서울: PCKBOOKS.
- 류재린 (2017). 한국의 목회자 사례비 격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2(1), 121-155.
- 엄기영 (2009). 상하이한인연합교회와 BAM-제2차 SKBF 초청 메시지. SKBF 조직위원회 (편저). **21세기 선교비전 BAM으로 가는 길**. 상하이: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출판부.
- 이완모 (2013). **John Calvin 사회복지와 인간**. 서울: 책나무출판사.
- 이용중 역 (2012). **목회 황제 스펀전의 목사론**. Spurgeon, C. H. (1999). *Lectures to my Students*.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이은선 (2012).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신 인식과 인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3, 41-71.
- 이형원 (2009). 땅 분배 과정에 나타난 설교 주제들(수 16-21장).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저). **여호수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전강수·홍종락 역 (2004).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Torrey III, R. A. (2002). *Biblical Economics*. 서울: 흥성사.
- 전강수 (1991). 칼빈의 경제윤리. **통합연구**, 4(2), 203-210.



- 정연호 (2010).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바리새파의 재발견**.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 정옥배·이철민·신재구·이지영·박신구·전성민 역 (2007). **IVP 성경 배경 주석: 구약**. Walton, J. H., Victor, H. M. & Mark W. C. (2000).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서울: IVP.
- 제자원 (2004).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106 누가복음 1-8장**. 서울: 제자원.
- 최주광 (2022). 생존과 소명 사이에서. **월간목회**, 3, 98-101.
- 최현중 (2017). 한국교회 재정구조 분석-한국 교회는 시장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신학과 사회**, 31(3), 217-249.
- 허성균 (2008). **레위성읍에 관한 연구: 민수기 35장, 수 21장, 역대상 6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Pearcey, N. R. (2004). *Total Truth*. 서울: 복 있는 사람.
- 홍치모 역 (1992). **칼빈의 경제윤리**. Biéler, A. (1964).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서울: 성광문화사.
- 황원선 (2018). 목회자 적정 사례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50(3), 263-287.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6564>
- Nakano Minoru. (2019). 제사장성(性)의 성경적 근거의 재검토: 베드로전서 2:4-10을 중심으로. **성서학연구원 저널**, 102, 6-33.
- 국민일보 2023. 9. 24일자. “8개 교단 총대에 물어보니… “정년 연장 반대, 이중직 찬성””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2672&code=61221111&cp=nv>. (검색일 2023.10.19.)
- 노컷뉴스 2024. 1. 11일자. “목회자 은퇴 이후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437>. (검색일 2024.02.16.)
- 아이굿뉴스 2022. 6. 7일자. “목회자 최저생활보장, 공교회성 회복의 첫걸음”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920> (검색일 2024.04.28.)
- 예장뉴스 2019. 3. 28일자. “세계교회 알아가기(독일 편)”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 (검색일 2023.08.17.)
- GUTENTAG KOREA 2021. 9. 21일자. “독일 교회의 종교 활동 재원은? - 교회세(Kirchensteuer).”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57331>. (검색일 2023.08.18.)

#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과 이중직에 대한 변론

## Pastors' Financial Freedom: A Defense of Levitical City and Bivocational Ministry

구준호 (예수랑교회)

### 논문초록

본 논문은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일치시키고, 목회에 생명력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이다. 오늘날의 목회자의 수입구조는 교회를 통한 사례비가 거의 유일한 자원인데, 사실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것에 있어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양극화 문제와 개교회성이라는 미명에 가려진 공교회성의 부재가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따른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사역과 삶을 위한 몸부림이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왕상 17:1-7, 일명 까마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의 삶을 위한 재정의 원칙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레위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같았다. 이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이어진다. 게다가 신약시대의 텐트 메이킹 사역(자비량 선교)은 오늘 날의 목회자에게 재정적 자유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이것을 이중직 목회라고도 부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레위인의 성읍에서부터 텐트 메이킹에 이르는 목회적 재정원리를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한다면 침체하는 한국 교회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레 25:18-19).

주제어: 목회자, 이중직 목회, 재정적 자유, 레위인 성읍, 텐트 메이킹



##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in Career Planning among Non-Christian and Christian Participants in Life Career Design**

김진 (Jin Kim)\*\*

박에스더 (Esther Par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In the reality of modern individuals exposed to confusion and dilemmas regard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areer planners who provide specialized life-career design services, issu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rapid digit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AI following the pandemic. Given that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areer planners inevitably affects life-career desig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henomena of what identity non-Christian and Christian career planners possess, what transformational experiences they undergo, and what essenti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ey experience while participating in life-career design. This study seeks to elucidat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dentity formation by exploring the significance demonstrated in the life-career design experiences of non-Christian and Christian career planner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meaning of transformational learning experiences manifested through life-career design by five non-Christian career planners and five Christian career plann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essence and meaning of life-career design phenomena, was adopted.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interviews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similarities among the study subjects included a transition from personal identity to professional identity in life-career design, possessing a vocational mission identity, and expanding career planning expertise. However, Christian career planners differed from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27일 게재확정.

\*\* 백석예술대학교(Baekseok University of Arts) 외래교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23, kjbaul@naver.com

\*\*\* 한국진로적성센터(Korea Career Aptitude Center) 대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6 트윈시티남산 6층, esther-park@naver.com

non-Christian career planners in that they categorized complex life-career problem-solving within life-career design, experienced a transition from professional identity to spiritual identity with a 'calling motivation and role provision' in career planning, and underwent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tegrated transformational experiences with God. This study presented the fact that life-career design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solving not only career,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issues but also spiritual problems. The initial clinical study results suggest that when general pedagogy and Christian worldview faith are integrated with life-career design based on God's human creation principle, biblical career design theory, and creation principle-based career aptitude assessment tools, it can provide solutions to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problems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Key words:** life career planning,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non-Christian career counselor, Christian career counselor, Giorgi phenomenological approach

## I. 서론

팬데믹 이후 AI의 등장과 디지털의 확장으로 직업세계는 전례없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가져왔으며, 첨단기술은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다양화시키며 ‘기술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는 새로운 고용시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개인 삶의 변수들의 증대는 ‘생애진로설계’라는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이유우, 2022). 이 사실은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에게 모두 인적자원과 경력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데, 변화에 대한 응전으로서 개인의 생애는 지속적 적응의 과정이라는 생애전환 측면의 생애진로설계 개념을 부각하고 있는 시점이다(노규성·이주연, 2016 ; 이광석, 2021).

개인들은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고정된 일터를 떠나 유랑하며 일하는 유목민과 같은 ‘노동노마드’의 삶을 조우함으로써 생애진로설계의 중요성이 비단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비기독교계와 기독교계 모두 생애진로설계를 진행하는 진로설계사<sup>1</sup>와 같은 전문 상담 영역에 대한 전문가 필요성과 수요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최혜윤 외, 2019). 높아지는 이직률과 함께 생애진로설계를 받고자 하는 교육 수요의 욕구는 ‘진로의 전환’이라는 진로현상과 구체적인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생애진로설계를 제시하는 진로설계사들의 공급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김신희·양은주, 2019).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한 상담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피설계자의 진로동기를 촉진하는 ‘촉진자’, ‘멘토’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정연·이복희 2022).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성인학습자 자신이 가진 세계관과 직업 정체성은 직업이 갖고 있는 자신의 특성, 흥미, 가치관, 능력에 대한 명확한 상징성의 체감과 변화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생애진로설계는 단선적 직업수행과 학습경험으로의 진입을 넘어 생애사건의 심층적 역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생애전환적 사건들은 곧 직업과 관련한 고유한 정체성 형성의 전환학습경험을 의미한다는 가능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1) 개인의 성향과 적성, 전(全)생애를 통해 선택해야 할 생애진로정보를 찾아주고, 설계된 진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적, 심리적, 교육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진로교육전문가로서, 민간자격 제 2018-004359호에 해당하며,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 응시자격 및 취득하는 일반 진로설계사 자격과 기독교인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취득할 수 있는 성경적 진로설계사 자격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자격시행기관은 한국진로설계사협회이며 자문기관은 한국진로설계학회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한국진로적성센터, 2024, 한국진로설계사협회, 2024).

최근 다수 배출되어 온 진로관련 상담가들이 일반 진로설계와 기독교 측면의 진로설계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적으로 자신의 진로설계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한 때, 진로전문성 역량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겪는 정체성 딜레마를 극복하도록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달리 어떠한 기독교적이며 성경적 진로설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이 필수적인 실태이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개인들은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준거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신의 직업의식과 직업정체성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반응여부도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자기이해에 기반한 진로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의 확립은 생애사적 진로이벤트를 수행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자아정체감과도 연결되는 생애 준거들이라 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종교 여부에 따라 진로설계시 직업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최성미, 2019).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성향, 역량, 신념과 같은 가치관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종합적으로 연합된 일련의 정체성 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진·이희수, 2022).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종교적 신념 및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의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는 진로설계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신념, 세계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피설계자에게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진로설계사가 피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진로설계 학습경험에 상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미령, 2020 ; 박진희, 2013 ; 채현순·장유진, 2016).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입교’라는 생애사적 진로전환사건을 겪었으며, 신앙적 신념체계가 내재화하는 구성주의 발달의 전환학습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직업의 일자리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직업전문인으로서 인식함에 더 나아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자신의 직업 전문성 및 일자리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신을 향한 차별적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일을 맡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이해하는 피진로설계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원리<sup>2)</sup>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과 적성, 역량을 갖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피진로설계자들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는 전문적 행위를 생애진로설계라고 이해한다(Lloyd-Jones, 1965). 이러한 기독교 진로설계의 출발점은 기독교 기반의 상담의 필요성을 주창한 제이 아담스(J. Adams)와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 학자들에 의해 들어왔다.

2) 구약성경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 139: 13).”의 말씀을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인 성경적 진로설계의 근거로 밝히고자 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자기이해, 직업 전문성을 통한 전문가적 조인의 제공이라는 직업 정체성 측면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경험하는 정체성 경험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와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의 동기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정체성 상호작용과 통합적 동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사전에 인지한 직업정체성 형성 경험이 생애진로설계에 임하는 진로설계자 자신의 정체성에도 유의미한 경험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자신과 피설계자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어떠한 경험의 전환이 서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경험하는 학습경험이 어떠한 전환적 경험과 연결되는지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김윤숙, 2011 ; 박진희, 2013 ; 이미정,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경험을 하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종교정체성 유무에 따라 생애진로설계의 전환학습경험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설계 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할 때, 진로설계사라는 공통된 배경을 공유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간의 종교 차이에 따른 정체성 경험의 형성과 의미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서의 경험은 서로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가?**

**연구문제 2.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는 서로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생애진로설계

현대사회는 전 산업영역과 종교, 교육영역에 첨단 정보기술과 AI기술이 접목된 디지털사회이다. 개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도화되고 급격화한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생애와 직업세계

를 격변시키기에 충분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로설계사는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애발달과제는 전생애적 측면의 진로과업으로써 당연히 추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오인탁, 2017). 진로설계사가 당면할 수 밖에 없는 진로과업은 삶과 일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과 이를 제공하는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진로설계 전문성 발달 형성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생애진로설계는 한 개인이 전 생애사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진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진로의사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과정이다. 생애진로설계를 주도하는 진로설계사는 개인이 자신의 성향, 적성, 역량의 특성에 최적합한 생애진로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피진로설계자의 생애진로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박에스터·김진, 2021). 진로설계사는 성향과 역량에 맞는 직업제안을 통해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피진로설계자의 생애진로 방향을 설정할 때 선도적 역할을 한다.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시 피진로설계자가 타고난 성향에 맞는 직업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구적 역할을 함으로써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진로설정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전문가로서 생애동력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채현순·장유진, 2016).

이미정(2014)에 의하면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 발달은 개인적 직업정체성 발달과 전문적 직업정체성 발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거 밝혔다. 이에 따라 진로설계사 개인의 직업정체성 발달은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기 생애발달과제를 인식하고 자기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진로설계사의 전문적 직업정체성 발달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을 인식하여 자존감과 전문적 기능의 유능성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유사하게 생애진로설계에서 피진로설계자를 돕는다는 전문가적 역할에 진정성과 기능성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고 경험하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탐구문제를 제기한다. 생애진로설계 측면에서 전문적 진로설계서비스를 제공하며 피진로설계자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피진로설계자의 직업과 일을 찾아주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을 다르게 형성하고 발달해가는지에 대한 일부 연구를 탐구할 필요가 대두된다(이은미, 2019).

## 2. 전환학습경험

학습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호교환적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성인들의 학습경험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을 계발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김향식, 2010 ; 엄미란·최

은수, 2013 ; 정금희, 2018).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절벽에 마주한 피설계자들을 맞아 필연적으로 전환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서 경험하는 학습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전환학습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성인학습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습이론인 전환학습이론의 창시자 Mezirow는 전 생애사 속에서 겪어가는 학습경험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이 전환학습경험이라고 보았다(Mezirow, 2000).

Mezirow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동기로서 생애혼돈의 ‘혼란스러운 딜레마’와 같은 성인의 생애를 격변시키는 생애진로이벤트를 전제하였다. 기존의 사고체계로 수용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마저도 성인학습자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ezirow, 1991).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디지털화한 AI시대는 역동하는 모순 없이도 충분히 생애를 조망하고 통찰하는 통합적 관점의 생애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축적된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에 대한 전환적 성찰을 통해 의미있는 진화를 일으킨다는 새로운 전환학습의 개념이 기존 전환학습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되었다(김지현 외, 2013).

Mezirow(2000)가 성인의 학습경험에서 생애 관점을 전환시키는 동기로 갈등상황에 주목하였다면, Kegan(1994)은 개인과 그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 통찰, 의미부여의 활동 등 전인격적인 변화를 ‘전환’이라고 본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환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비판적 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통한 개인의 생애에 대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Merriam, 2000).

이러한 비기독교인의 전환적 관점과 달리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의 전환학습은 통전적인 의미 구성으로의 관점 전환으로서, 삶과 생애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단계로 바뀌는 영육 간의 전환을 뜻한다. 전환학습 측면에서 진로설계사는 자신이 마주하는 생애사건들 속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의 수단이기 보다 수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들로의 전환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앙정체성이 직업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독교인은 신앙 형성 과정에서 비기독교인이 자신과 사회를 통한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달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창조되었다는 전환의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기독교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명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김희영, 2018). 이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화’와도 유사맥락을 보이기에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시 전환적 학습을 경험하는 탐구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계진 외, 2022 ; 김진·이희수, 2022 ; 박경호, 2003).

### 3. 전문적 정체성

에릭슨(Erikson, 1968)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자아 정체성을 정체성(Identity)로 인식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보는 자아가 일관된 형태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형성의 생애 과정에서 고정적이며 변하지 않은 자아의 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신이 자부심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직업적 중요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직업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유흥준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정체성은 전문적 직업인으로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전문지식에 대한 자기검증을 완료했느냐는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이를 개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내재적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인식과 함께 대외적으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특성에 비추어 ‘전문적 정체성’이라 명명한다. ‘전문적 정체성’을 가지면 고유한 직업의 명칭개념과 사회적 상호맥락에서 특별한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전문적 정체성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정체성이 전문적 정체성의 역할과 기능으로 전환되어지는 생애직업정체성으로 발달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을 경험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종합하여 정의하자면, 진로설계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피진로설계사의 생애문제와 심리, 관계적 문제를 전문적 기능과 자격, 성품, 영성을 통해 해결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개인의 좌절을 극복한 신앙 정체성 발달을 경험했다는 연구 사실이 기독교 신앙과 일반 진로설계에서 어떠한 전문적 정체성에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김미경, 2005).

## III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진로설계 경험을 중시하며, 그 경험의 의미가 갖는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적합하

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개인의 생애 기술, 이론의 개발, 사례분석이 아닌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떠한 전환적 학습을 본질적으로 나타내었는가를 밝히고 그 경험의 의미를 미시적으로 깊이 분석하고자 하는데 적절하였기 때문이다(고은숙, 2019).

여타 다른 현상학의 분석방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종교적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각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개별적 학습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화하여 일관되게 분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종교적 배경에 따른 전환학습경험 현상은 연구자의 선이해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남인(2004)의 연구는 연구자의 판단을 최대한 보류한 상태에서 현상 자체를 들여다 볼 때, 전환학습경험 연구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련 사실을 기록화하고 현상학 연구를 수행한 교육학 박사 2인에게 현상학 연구의 설계와 자료를 검토 받은 뒤, 판단 보류하여 연구진술을 도출하고 연구범주를 조직화하여 연구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유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종교적 배경과 세계관에 따른 전환학습경험이 직업정체성과 연구맥락적 측면에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남을 예측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사유로부터 연구의 논리적 통찰을 진행하기에 타당하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전환학습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Giorgi, 1985 ; 박예진, 2016).

## 2. 연구참여자

###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해서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경험하고, 종교 배경에 따라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는 전환학습경험이 각각 어떠한지를 탐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타당하게 실행하려면 적합한 생애진로설계의 전환학습경험을 풀어내어 현상학적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인 진로설계사들을 적합하게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상학적 연구를 과학적으로 하자면 연구참여자 모두가 연구에 실제 참여해야 한다는 Creswell(2015)의 연구의 절차를 따라 연구참여자 선별 선택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생애진로설계 전환학습경험에 대해

심층적이고 풍부한 연구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 진로설계사들을 연구 취지에 맞도록 합목적적으로 채택하는 유의 표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연구군에서 추출하는 집중 표집을 사용하여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 현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진술을 본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비추어 현상학적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표집된 참여연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진로설계사 협회의 진로설계사 자격(진로설계사, 성경적 진로설계사)을 공식적으로 취득 보유 및 유지하고 있는 자
- 둘째, 생애진로설계 학습경험의 현상을 충분히 경험한 생애진로설계 활동의 기준인 매주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셋째, 기독교 세례와 세례교육을 받아 세례증서를 갖고 있으며, 출석교회 소속증명서를 제출한 자
- 넷째, 진로설계사 본인이 구두로 기독교인임을 인정한 자
- 다섯째, 진로설계사 본인이 구두로 비기독교인임을 인정한 자
- 여섯째, 진술의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피설계자로부터 선입견 및 편견 등 부정반응이 없었던 자
- 일곱째, 연구자와 개인적 관계 및 접촉이 최소화된 자
- 여덟째, 본 연구에 심층인터뷰에 응하고 자료 사용을 허락한 자

이와 같이 생애진로설계에서 형성된 감정, 태도, 정서, 관계 등 ‘경험 자체’를 사실 그대로 설명할 때, 현상학의 연구목적이 충족되기에 연구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표집된 연구참여자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다섯 명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다섯 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 전, 심리적 공감대를 가지기 위한 사전 대화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연구분위기를 편안하게 형성한 후 사전연구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대상의 수는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국내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현상적인 본질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연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연구 대상의 수를 3명에서 10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권혜진·김지현, 2021).

본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으로 목적 표집하여 최종 연구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맞추어 피설계자에 대한 생애진로설계 경험의 현상적 의미



를 본질적 면담으로 심층적으로 표현하며 생애진로설계 현상을 충분히 경험한 연구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진로설계사는 진로설계사 자격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생애진로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개인 센터와 교회, 교회 부설기관, 한국진로설계사협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생애진로설계 전환학습경험의 생동감있는 질적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생애진로설계 임상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매월 생애진로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현직 진로설계사들 중 평균 27개월에서 31개월 간 활동하며, 1개월 평균 20~25회 내외의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는 진로설계사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삼았다.

다음 <표 1>은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이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세)	최종학력	교육경력 (년)	진로 설계사 경력 (개월)	종교구분	직분	생애진로설계 참여 횟수(개월당)	생애진로 설계선입견 사례여부
A	42세	대졸	14년	32개월	기독교인	성도	26회	없음
B	46세	박사수료	21년	22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18회	없음
C	54세	석사졸업	26년	34개월	기독교인	사모	32회	없음
D	56세	대졸	29년	29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24회	없음
E	35세	박사재학	8년	20개월	기독교인	성도	19회	없음
F	52세	대졸	25년	35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22회	없음
G	46세	석사재학	18년	33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41회	없음
H	47세	석사졸업	19년	28개월	기독교인	목사	13회	없음
I	44세	대졸	16년	36개월	기독교인	목사	23회	없음
J	48세	석사졸업	20년	35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12회	없음

연구참여자 선정의 기준과 과정, 최종 채택은 현상학을 연구한 교육학 교수에게 연구참여자 선정의 타당성을 연구 초기부터 검토 받아 현상학 연구의 연구참여 설계의 주관적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대상의 자료수집방법으로 면담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시차를 두어 실시하고 전사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연구참여자의 전환학습경험 현상이 연구자의 전이해로 간주되면서 현상만이 온전히 도드라지게 객관화 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유혜령, 2015).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에게는 연구취지와 연구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사항, 연구의 중도중지 권한, 개인정보의 보장, 연구종료 후 연구자료 폐기, 종교적 개입이 없음을 자세히 공지하고 연구 동의를 수락한 뒤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을 실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이 생애진로설계 참여 학습경험에 대해 다양한 연구정보가 진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작성하였다. 질문내용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에게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주요 면담 질문은 ‘당신은 진로설계사라는 직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당신은 피설계자의 생애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향하십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생애진로설계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무엇이 바뀌며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이었다.

면담 후 녹취하였고 녹취한 자료를 현상학의 연구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자의 주관에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고 원자료의 자료 현상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3~4번 반복 청취하며 기록하고 녹취록을 재확인하며 면담시 실제적 느낌을 떠올리며 현상의 의미를 검토하며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인 진로설계사들에게도 녹취자료를 송출하여 자신의 면담구술과 다른 내용을 사전 검토받았다. 면담을 위한 질문항목들은 생애진로설계 이해와 자세, 생애진로설계 과정 중 전환경험, 진로설계사 역할 인식, 진로설계사 직업관, 생애진로설계시 피설계자 및 연구자 변화경험, 생애진로설계 시 문제해결경험, 생애진로설계 자가피드백 연구질문들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현상학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면담 정보를 제공해 설계된 질문지는 질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평생교육 전공 교육학박사 2인의 검토와 자문을 구하여 연구자의 현상학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질문과 면담의 오류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였다.

### 4. 자료 분석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자료를 통해서 의미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사전동의와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자료를 연구 후 동의 하에 폐기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지켰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의 면담자료들을 구조적으로 밝히기 위해 연구참여자인 진로설계사들의 의미경험들을 조직적인 질문과 포괄적인 질문을 혼합하여 상세하고 풍부

한 연구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반복적으로 구술하는 문장, 어휘를 조사하여 기호와 표시로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의 순으로 개별 코드화 시키고 특정 자료들 체제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자료분석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 예수님, 신앙, 사명, 소명 등의 기독교 용어와 문장, 비기독교인의 용어와 문장 사용을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서로 유사한 용어를 기록하였다. 연구자의 종교적 배경과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두 연구대상 그룹의 연구맥락을 상호 비교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연계하여 묶고, 차별되는 내용은 별도로 분류하고 기호치기를 하면서 두 연구대상의 공통된 학습경험과 구분된 학습경험, 혼합된 학습경험을 분석해 나아갔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사자료를 밀줄과 기호로 적시하며 연구주제를 연구참여자의 전사자료에서 찾는 연구자료의 실증 분석을 추구하였다.

현상학적 자료분석의 중요한 지점은 면담 전사자료에 담긴 현장성과 실증성이다. 이를 위해 면담 내용만이 아닌 비언어적 메시지, 음성반응, 느낌 등에 주의하며, Giorgi의 현상학 자료 분석의 지침에 따라 면담자료를 객관적 사실로 분리하고자 추출하였다. Giorgi가 주창한 현상학적 재현된 연구의 자세인 별도로 객관화 지향하기의 자세를 지향하여 연구현상의 본질적 특성에 개입하지 않고자 주의하였다(Giorgi, 1985). 연구참여자 중심의 진로설계사 정체성 형성의 경험이 사실대로 드러나도록 비구조적 질문과 반구조적 질문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여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구분하지 않도록 연구 대상의 범위와 자료의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과 연구참여자의 정보가 서로 혼합되는 비현상학적 연구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연구자의 생각을 메모하여 객관화시킴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연구정보와 분리하도록 노력하였다.

Giorgi(1985)의 4단계 연구분석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의 심층면담을 주 2~3회로 약 2시간씩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활발한 연구자료 채집을 위해 피진로설계사들을 진로설계한 진로설계사들의 당일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였다. 1단계는 전체 녹취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청취한 뒤, 녹취 전사자료를 반복해서 읽는다. 2단계는 연구주제의 학습경험에 자료분석 목표를 정렬하여 밀줄과 기호로 표시하며 들어가며 코딩기호를 기록한다. 이런 방식으로 채증되어 기록된 의미진술은 연구결과, 총 106개의 연구산출물로 분석되었다. 3단계는 채증된 의미진술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개념인 학문의 개념용어로 의미를 치환하는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상상과 개입에 의해 의미진술의 본질을 담으면서도 학문적 개념용어로 변환하는 용어 치환의 기술이 연구분석에 필수적이다. 4단계는 치환된 의미단위를 통합된 구조의 대개념으로 묶어 기술하는 일이다. 도출한 의미단위들을 상위와 하위 구조용어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관관계

와 의미관계의 공통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의 현상 본질’을 찾아내는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대상의 본질을 찾으려면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론적 선입견이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연구자세를 지녀야 하므로 본 연구자는 의미 경험과 관련된 문장과 단어는 밑줄을 긋고 반복되는 진술들은 의미망을 도출하여 다채로운 텍스트 맥락에서 숨겨져 있는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탐구하였다.

<표 2> Giorgi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분석 절차

구분	분석 절차
1 단계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기술문장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느낌 파악
2 단계	연구참여자의 사고 단위로서,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 단위 구분
3 단계	의미 단위에 부합하는 학문적 용어로의 전환
4 단계	전환된 의미단위의 구조적인 통합

\*출처: 정금희(2018,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p.64)를 연구자가 재구성

## 5. 연구 윤리

본 연구자는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과 면담의 수행과정 및 절차, 연구참여 의사를 타진하였고, 현상학 연구는 녹취, 전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의 중립성과 적용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에게 본 연구의 사전 주의와 연구숙지를 시켰다. 진로설계사들의 업무특성 상 생애진로설계의 전환학습경험이라는 연구주제는 엄밀하고 세심한 주제이므로 면담내용 녹취 동의, 질문대답 거부여사의 자유, 논문 수록 활용에 대한 연구 사전 동의를 사전에 알리고자 하였다. 면담내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밀이 보장됨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현상학 연구 목적을 성취하는 중요 지점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사전지식’에서 벗어나 연구의 객관성을 획득하고 연구 현상의 본질적 경험 정보를 기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일관성과 타당도를 높이는데 최적인 Denzin(1998)의 삼각 검증법을 사용하여 면담, 관찰, 복수 연구자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기록된 녹취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재확인하여 문자정보와 구술정보의 오류와 텍스트 해석의 신뢰성을 검토받았다. 이와 함께 연구참여

자의 면담과정에서 표출되는 비언어적 행동, 표현, 상황을 관찰노트에 기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 분석에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면담관찰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도 염두에 두었다. 연구수행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상학을 다수 연구한 현직 교육학 교수에게 현상학 연구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고, 도출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들을 질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학 박사 2인에게 현상학 연구설계 검증을 거쳐 현상학 연구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참여한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어떠한 전환학습경험이 이루어지는지 보는데 있다. 5명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5명의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을 심층 면담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전사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면담의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상황적 기술구조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총 10명의 면담에서 추출한 의미진술은 총 106개로 나타났다. 이 중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면담의 의미진술은 총 58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면담의 의미진술은 48개를 추출하였고 이 의미진술 자료들을 범주 분석하여 총 106개의 의미진술들에서 추출된 총 1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13개의 주제에서 6개의 주제군과 5개의 범주를 최종 산출하였다. 채집된 의미진술을 각 연구참여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에게 진술자료를 보여주고 자신이 구술한 내용이 맞는지, 자신의 생각이 구술과 기록, 문자로 드러났는지를 상호 재검토하여 의미진술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였다. 해당 주제, 주제군, 범주 중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범주로 재구분한 결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범주는 총 9개의 주제, 4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범주는 총 4개의 주제, 2개의 주제군,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 주제, 주제군, 범주자료 중에 연구 문제 1과 관련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참여 학습경험과 관련된 범주는 총 9개의 주제, 4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 범주자료 중에 연구 문제 2와 관련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참여 학습경험과 관련된 범주는 총 4개의 주제, 2개의 주제군,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다수 자료인 의미진술자료들은 주제와 주제군 분류로 포함시켜서 <표 3>에 기술하였다.

현상학 연구방법을 위와 같이 적용 분석한 결과, 연구목적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전환학습경험과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는 연구결과자료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구분하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5개의 주제, 2개의 주제군, 2개의 범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진로설계사들이 어떠한 학습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학습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전환적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설정되었다. 진로설계사 10인의 면담전사자료의 의미진술 106개에서 최종 도출된 연구결과 자료는 13개의 주제, 6개의 주제군, 5개의 범주, 2개의 구분으로 최종 산출되었다. 이러한 진로설계사의 연구참여정보를 의미 분석한 결과,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전환학습경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서로 유사함과 다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현상의 의미 차이가 밝혀졌다.

<표 3> 연구결과 도출된 의미진술의 주제, 주제군, 범주, 공통

주제	주제군	범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로설계를 시작했어요	기독교인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	직업 정체성 형성	기독교인	다 름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성경적 진로설계를 해요				
생애진로설계 자체가 피설계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주제	주제군	범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
생애진로설계와 함께 신앙을 전할 때 이후 문제도 해결되리라 희망을 봐요	기독교 신앙과 진로설계 병행으로 다수 문제 해결	복합적 생애 진로문제 해결	기독교인	다 름
방황하며 아파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피설계자가 만족하도록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확장으로의 전환	생애 진로설계 전문성	기독교인	비 슷 함
피설계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니 전문성을 더 기르려 노력하게 돼요				



아픔과 방향을 함께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해요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생애진로설계 제공			비 슷 함
열정을 다해 피설계자를 이끌어주려고 해요				
피설계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요	피설계자를 진심으로 돕는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헌신	생애 진로설계 진정성	비기독교인	
나를 찾아온 피설계자들의 어려움을 전문가로서 해결할 때 기뻐요				
피설계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걸 볼 때 나도 더 성장해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내 삶의 의미	진로 전문성의 생애 정체성		
전문성을 계속 길러 더 나아지고 싶어요				
13주제	6개 주제군	5개 범주	2개 연구대상	2개 구분

### 1.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비슷한 전환학습경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학습의 범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생애진로설계 진정성, 진로전문성의 생애정체성이다. 먼저 첫 번째 전환학습경험의 범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이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주제군은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확장으로의 전환’,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생애진로설계 제공’, ‘피설계자를 진심으로 돕는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헌신’,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내 삶의 의미’로 제시되었다.

사실 처음 진로설계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땐, 호기심도 생기고 잠깐 쉬다가 인제 일도 다시 할 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로전문가 목사님들이 전공도 하시고 교육학자시고 창조원리 찾느라 10만명 임상도 하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가르쳐주는 전문노하우 가르쳐주시고, 운영도 하시니까 뭔가 인심이 되기도 하구, 크리스찬으로 돈보다도 힘든 사람들 살리는 일, 그러면서 뭐랄까 전문적인 일...; 진로설계사 처음 따고 할 때 속으로 나같은 생짜 초보가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과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떨어가며 성향을 설명해주는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한가지만 물어봐도 돼요?”해서 대답해주었는데, 나중엔 어둡던 얼굴이 환해지던 반수 그만두고 유학간 여대생을 잊지 못하겠어요. 제 초보 생애진로설계로 구한 첫 작품인 셈이죠. 제게 오는

사람들의 인생에 책임감을 느껴요. 더 노력해야죠.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A 의미진술 일부 -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이라는 주제군은 ‘피설계자가 만족하도록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이 사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선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이라는 심층된 전환학습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직업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신앙을 가진 진로전문가에게 신뢰를 나타냄으로서 전문적 직업정체성 확보에 같은 신앙이라는 동기가 작용하는 배경요인이 되었다. ‘피설계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니 전문성을 더 기르려 노력하게 돼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군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참여를 통한 전환학습경험으로 생애진로설계의 개인적 만족을 넘어 자신을 진로전문가로 인식전환하여 진로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맥락의 전문성 발달에 나서게 된 전환된 인식을 경험하였다.

직장을 열 번 넘게 옮기다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해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더라구요. 정수리가 흰하구, 노총각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내미가 매일 숙제도 안하고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서 빈둥거리는걸 참고 싸우고 참고 하다 갑상선이 걸린 어머님도 오시구, 정말 진로설계사는 직업만 찾아주는줄 잘못 알았는데, 온갖 문제 다 해결해주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에요. 제일 먼저 와야 하는 곳인데 제일 나중에 와요. 안타깝죠. 어떨 땐 속상해서 상담하다가 피설계자들이랑 같이 옮기도 해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선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정해진 상담시간을 오바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가끔 점심도 저녁으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잘 났으면 좋겠어요. 절 믿고 온 분들인데……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C 의미진술 일부 -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진로설계 제공이라는 주제군은 ‘아픔과 방황을 함께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해요’, 라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피설계자의 상황과 환경의 입장에서 공감을 더하고 감정의 동조를 넘어 생애진로설계과정에서 감정몰입의 경험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적 고통을 당한 피진로설계자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자 진로설계전문가의 안타까움이 혼재된 경험을 보였다. 체험적으로 깊은 공감의 상태는 기독교인으로서 진로설계가 영혼을 살리는 일로 전이되는 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나타내었다. ‘열정을 다해 피설계자를 이끌어주려고 해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서 피설계자

의 공감과 경청, 이해의 차원에서 진로전문가로서 문제해결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열망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상담실에 들어올 때는 안좋은 표정을 왔다가 끝날 때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볼 때는 참 기뻐요. 나이도 먹고 과외만 하다가 뭐 자격증 하나 없어 반신반의 하며 왔는데. 진짜 되게 기쁘더라구요. 피설계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전문가선생님이다! 처음 만났지만 뭔가 날 도와줄 사람이다’, 이런 시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고 문 열고 나갈 때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진로를 몰라 방향 엄청 많이 했거든요. 가끔 잘 맞는 일 찾아줘서 취직했다고, 고맙다고 쿨 한상자 보내온 백수였던 분도 있고……

- 비기독교인 연구참여자 F 의미진술 일부 -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생애진로설계 제공 주제군은 ‘피설계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도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진로설계에서 기쁨과 전문적 직업인의 사명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새로운 삶을 도와주고 찾아주고 싶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정도는 질지 못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도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기본 자격직무기능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지속적 전문적 정체성 확보의 동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찾아온 피설계자들의 어려움을 진로전문가로서 해결할 때 기뻐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참여를 통한 전환학습경험으로 생애진로설계의 만족을 넘어 자신의 실질적인 진로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업정체성 발달 행동에 나서게 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울하거나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로를 못찾아 왔거나 목표를 못찾아 왔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마음이 힘들어요. 정신과 약을 먹다가, 심리상담 갔다가 얘기만 들어준다구, 해결이 안되서 오는 경우도 많구요. 잘못 진단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 긍정면 부정면 둘 다 있는게 정상인데, 온전한 사람을 못보고 부정적인 부분만 계속 들춰서 정신과 약을 잘못 먹거나 참 안타깝죠. 진짜 이 사람의 성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원리로 만든 옥타그노시스 검사와 생애진로설계로 찾아주면 신기하게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럴 땐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우리 가족들도 ‘있는 그대로’의 성향을 찾고 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와 우리 가족, 친구들, ‘있는 그대로’의 진짜 ‘존재’를 모르는데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 비기독교인 연구참여자 B 의미진술 일부 -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삶의 의미인 주제군은 ‘피설계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걸 볼 때, 나도 더 성장해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제공이 곧 가족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라는 경험을 넘어 자신의 생활의 미로 연결되며 삶의 의미로까지 전환되고 확대되는 경험을 보였다.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피진로설계자를 바라보지는 못했다. ‘전문성을 계속 길러 더 나아지고 싶어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참여를 통해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면서 자신의 생애정체성을 진로전문성 위에 일치시킨다는 정체성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의 범주에서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확장으로의 전환,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진로설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환학습경험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진로전문성이 생애정체성이라는 범주에서 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삶의 의미라는 범주와 유사한 전환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신앙적 관점과 일반 전문가적 관점을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교하여 신앙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하지 않으면 진로설계에서 신앙정체성과 진로설계 전문성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이런 신앙정체성과 진로설계 전문상의 정체성 사이의 고민 보다는 진로설계 전문성과 역량, 보람을 나타내는 경험을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적 배경과 크게 관련이 없이 진로설계사 자격의 전문성과 진로설계의 보람, 흥미, 노력은 유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환적 학습의 경험도 유사하였음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 2.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상이한 전환학습경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에서 성향에 맞는 적합한 직업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 직업정체성을 경험하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전문가로서 전문적 학습 및 전문인의 정체성과 영적 정체성을 계속 강화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에서 나타난 전환학습경험의 의미 범주들은 직업정체성 형성, 복합적 개인문제해결이다. 먼저 첫 번째 학습경험의 범주인 ‘직업정체성 형성’을 살펴볼 때, 이 범주에 들어가는 주제군은 ‘기독교인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 ‘기독교 신앙과 진로설계 병행으로 다수 문제 해

결'로 나타났다.

전 진로설계사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창조원리 성경적 진로설계사로 돕게 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을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한마리 어린양'으로 대해요. 하지만 자격증들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이 성경적 진로설계사를 선택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원리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한 뒤 만들어진 상담도구와 이론들이라는 이유예요. 십자가와 함께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아는게 제일 임무고 이걸로 교회에서 사역자도 뽑고, 이혼도 막고, 교회학교에서도 쓰구 불신자 전도도 하구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에게 옥타그노시스 검사는 딱 '21세기형 전도지'이고 성경적 진로설계사는 '21세기형 전도자'인 셈이죠.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I 의미진술 일부 -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피진로설계자를 보는 관점과 경험이 달랐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도와줄 '피진로설계자'라는 입장이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성경적 진로설계 관점의 교육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영혼의 하나님, 진로설계 검사도구와 상담의 이론을 대하는 것도 한영혼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치유시켜 주려는 진로설계전문가로서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일반 진로설계사에서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전환한 뒤, 이를 접목한 영적 진로설계의 원리를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진로설계를 하지않고 성령님의 주도로 피진로설계자를 공감하고 영적으로도 피설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반상담이라는게 제가 믿는 기독교와는 뭐랄까 약간 다르다고나 할까요. 일반학문에서 배우면 하나님이 만드신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일반 상담도 좋지만 뭔가 불편하고 2프로 채워지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상담도 기독교 상담학도 배웠는데 사실 일반 상담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았어요. 전 그 답을 진로설계사와 옥타그노시스 검사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유전체 임상 그대로 지으신 모습, 달란트, 성향을 찾아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바로 회복이, 저절로 되거든요. 전 이 과정과 이 이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저를 알게 되었어요. 힘들 때는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일반학문의 심리학, 상담학, 정신과에서 해결 못하는 진로문제, 심리문제, 관계문제, 정신적 문제들이 풀리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교회 떠난 가나안 사람들 돌려보내거나 무종교인들 전도도 백명 넘게 했어요. 요즘 교회 애

기하기 힘들다지만 피설계자들이 찾아오니깐요. 저도 그래서 진로설계사 한거구요.

이렇게 빛나는 별로 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구 하면 별 거부반응이 없어요. 예전엔 학문, 신앙, 상담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이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이자 성경적 진로설계로 합쳐지고 쓰이니깐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하는 일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걸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께 전 받기만 했는데 오시는 피설계자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로 주게 돼요. 생애진로설계가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기뻐요. 물론 가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매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해요. 저는 오시는 분들을 사랑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지으신 뜻을 알면 가능해요!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H 의미진술 일부 -

이처럼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를 정확한 진로정보를 제공한 직업전문인으로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을 인식함과 비교하여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한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날 때 신앙의 힘으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전문인이라는 직업정체성 측면에서는 비슷하였지만 진로설계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신앙적 동기라는 점에서는 상이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고충에서도 진로설계 청지기로서의 소명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생애진로설계를 응대하는 관점도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이론, 상담방법, 신앙, 진로적성검사 도구, 상담자 자신, 피설계자를 바라보는 지식과 시선이 자신의 전문적 시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그 자체 측면에 입각하여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영적 시각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 신앙과 상담학 이론, 진로교육학 이론 등이 가치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융합하고 일체가 되어 성경적 진로설계를 심층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이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 경험과 유사한 점은 개인에서 전문적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보인 점과 직업전문인의 정체성 인식,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열정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였다. 다른 점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달리 ‘피진로설계자들을 보는 영적인 관점’, ‘진로설계사를 시작한 동기’, ‘직업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과 경험’, ‘생애진로설계에 기독교적 전도방식의 도입’이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직업정체성 형성이 선행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설계사 이전에 ‘기독교 신앙인’의 경험과 정체성이 선행된 후, 진로설계사 자격과정의 생애진로설계라는 전환학습경험에서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으로 전환 및 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지각하는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체성’과는 유사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지각하는 ‘생애진로설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 신앙에 기반한 진로전문가로서의 기능성과 함께 영적인 문제해결도 포함하고 있다는 직업발달적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진로전문가로서 개인의 직업정체성 전환에 충실한 반면에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와 기독교인, 자아와의 영적 정체성 통합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생애진로설계를 하다보면 모두 문제들을 한아름 안고 옵니다. 진로설계사 초기에는 문제만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전 문제 이면의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강점들과 성향, 사명과 일을 발견 해주면 되는데요. 직업이나 학과 같은 현실적 문제뿐 아니라 우울감, 자존감 낮은 거, 주변 사람들과 사이 안좋은 것도, 가족들과도, 즉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걸 자주 봐요. 얼마 전에는 집에서 하 키코모리로 2년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던 남자 중학생 아들을 집사님들이 데리고 왔어요. 씻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눌러붙어 눈도 안보이는데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이 그 아이를 꽉 붙잡고 있는게 보였어요. 심호흡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여 달란트 찾아줬더니 씻기고 달래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보냈어요.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E 의미진술 일부 -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적 경험에서는 부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적 경험은 영적인 정체성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도구’, ‘진정한 어둠을 물리치는 자’, ‘진로설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로서 진로설계사의 기독교 정체성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진로설계의 주체는 진로교육적 진로설계 전문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로설계 전문가로서 정체성인 영적 정체성이 생애진로설계 현장에서 동시에 작동하였다.

생애진로설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에요. 내게 주신 사역이고 이 곳이 사역처이자 선교지이지요. 교회 다니다 떠난 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자기 모습을 되찾아주면 다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요.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져서 피부병까지 좋아진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돈벌이 같은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품어야 하지만 이 성경적 진로설계사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전 그래서 일반대학원에서 진로쪽 박사논문도 쓰고 있고 나중에 신학을 배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줄 거예요.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I 의미진술 일부 -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전환학습경험을 탐구한 결과,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 지식 체계를 수직적으로 기반하여 전문적 진로설계에 대한 수평적 의미와 목표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설계자에게 전환적 접근과 일체감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도 유사한 경험을 보였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애진로설계의 중심으로 보면서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였고, 생애진로설계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진로설계자와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다르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기반하여 생애진로설계를 실시하며, 자신의 영적 경험과 신앙 가치가 피설계자의 생애진로설계 방향성과 목표설정 및 진로의 미 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관점의 전환도 모두 나타내었다.

이처럼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시 복합적 생애진로문제해결을 범주로 하며, '기독교인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제공'을 담당해야 한다는 영적 관점과 전문적 정체성의 통합적 전환이 이야기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직업전문성과 생애진로설계의 직업전문인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하나님의 창조신앙 원리를 전한다는 신앙적 직업정체성으로의 전환하였다. 이 사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신앙인 관점으로 진로설계사 전문적 정체성과 생애진로설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론, 상담방법, 진로설계방법, 진로적성검사 도구, 피설계자 인식, 신앙경력 등이 역동적이고 통찰적으로 전환 후 작동되면서 피진로설계자들의 심리, 진로, 관계, 영적인 통합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생애진로설계에서 전문적 가치를 추구하고 피진로설계자의 심리, 진로, 관계 등의 종합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며 동시에 직업진로, 직장이직 등의 표면적 문제와 함께 강박증 같은 신경증 증상, 우울증 같은 심리 증상 문제 해결, 성향으로 인한 관계문제 해결, 하나님의 창조원리 습득으로 인한 지식문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진로설계 방법, 진로적성검사 도구, 상담자 자신, 피설계자를 바라보는 지식과 시선이 모두 하나

님이 지으신 본질적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임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자신도 직업과 신앙의 합일적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였지만 진로설계사라는 직업정체성을 넘어 영적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측면에서 전환학습경험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과 유사하지만 신앙적 정체성과 연계되어 영적 정체성과의 통합,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정체성 연계, 피진로설계자의 영적 정체성 전환경험의 투사라는 학습경험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 V 연구결론

### 1. 결론 및 논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어떤 직업정체성로서의 전환경험을 하느냐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다른 직업정체성 전환을 나타낸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 사실은 (김미령, 2020 ; 박진희, 2013 ; 채현순·장유진, 2016)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의 총 58개의 의미진술로 산출된 4개의 주제군과 3개의 범주로 생애진로설계 학습경험의 본질적 현상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이전에 형성된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신앙정체성 형성의 경험과 생애진로설계의 상담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진로설계 전문성 사이에 주권적 견인을 나타내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진로설계사 직무와 피설계자, 상담의 도구, 학문 등을 전문적 정체성에 입각해 본다면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개인의 삶과 진로설계의 전영역의 생애진로설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피진로설계자의 삶과 신앙에 전환적으로 적극 작용하고자 하는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의 직업세계관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진로설계사가 피설계자를 대상으로 종교의 유무와 신념에 따라 정체성 전환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 (김윤숙, 2011 ; 박진희, 2013 ; 이미정, 2014)의 선행연구는 일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생애진로설계는 직업정체성의 준거틀인 ‘가치관적 요인과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여 연계하는가’라는 정체성 형성의 맥락에 달려있다는 (김진·이희수, 2022)의 선행연구의 결과도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참여 과정에서 진로설계 전문적 정체성의 역할과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충실성과 신뢰성을 포함하여 현대인의 교육문제, 관계문제, 진로문제, 취업문제 등의 사회교육적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문제까지 포괄된 복합적이며 전환적

문제의 해결에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성경적 진로설계, 창조원리 검사도구의 통합적 해결 및 영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됨을 증거하였다. 따라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간의 생애진로설계의 관계를 형성에 있어 전환학습경험의 차이를 심도있게 탐구할 필요성을 주창한 김윤숙(2011)과 이미정(2014)의 연구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학문과 일반자격과정, 상담과정, 교육학, 심리학 등 분야가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성경적 진로설계, 창조원리 진로적성 검사도구를 배제한 채, 기독교적 창조원리 기반 유전임상과 기독교 철학과 가치관, 성경을 도외시하여 얻는 유익과 인간 문제해결력보다는 성경적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투입되어 연구된 이론과 도구, 즉 생애진로설계, 성경적 진로설계의 직업정체성, 창조원리 진로적성 검사도구의 문제해결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학문 및 이론과 현실에 적용할 때,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일반학문은 기독교 신앙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세계, 학문을 창조했다는 기독교 창조원리를 비과학적이며 증명 불가한 것으로 제외하는 관습이 있다.

이 관행은 인간이 유전적성으로 설계된 인간 그대로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반학문 연구자 개인의 사고와 연구는 연구를 개인의 사유적 추리에 한정시키고, 이를 전체 인간의 교육 문제에 똑같이 인위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의 교육 및 심리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왔다. 이 사실은 일반 학문이 개인 간 교육, 심리, 인간 문제 해결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교육 및 심리 문제를 방치하는데 주요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간 임상 유전적성 연구에 기반한 인간 창조원리 생애진로설계와 기독교 기반 성경적 진로설계, 창조원리 진로적성검사도구는 교육이론연구, 학문연구, 교육도구 개발, 개인심리문제, 진로문제 등, 총체적 인간문제해결의 근간으로써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누적되어 온 개인, 사회, 교육, 심리, 관계, 목회상담, 복음의 도구, 영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개별적 동인의 전환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자기 존재라는 생애 정체성과 진로설계 전문가로서의 기능적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학습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설계사로서의 정체성 발달은 그리스도인의 통합된 직업정체성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다르게 구분되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안에서 진로설계사 자신, 피진로설계자, 하나님과의 삼중관계를 재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생애진로설계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전문가로서의 생애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자신의 생애진로설계 경험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통합적 정체성 경험으로 전환하였다.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매회 개발되는 급변화된 시대상황에서 교회와 세상과 교육선교의 현장은 다변화, 다차원의 영적 교육전쟁의 세계로 급격히 진입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복음 전달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입각한 교육과학적 진로적성검사 도구와 상담, 교육,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해결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기존 교육학, 심리학 등의 학문과 지식에 더하여 ‘영성’과 ‘유전적 인간임상’을 기반으로 한 ‘인간창조원리’라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되는 ‘생애진로설계’가 교육적 지성과 학문연구, 기독교교육 부문에 지속적으로 합류된다면 현재의 교육과 미래의 교육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대치하고 해결하는데 긴급하고 필요한 대책이 될 것임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생애진로설계 측면에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적 경험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일부 연구한 국내 연구들이 있었지만 기독교적 측면에서 생애진로설계를 재해석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둘째, 일반 교육학 입장의 진로설계사 직업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적 입장의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이 어떤 관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를 경험적 의미로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적 입장의 진로설계 접근이 깊고 내밀한 인간의 문제에 더 통찰적이면서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생애진로설계가 진로, 심리, 관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이며 기독교적 방안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였다. 이 사실은 기존에 진로설계가 단순한 직업학과를 찾아준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교육적 문제와 정신병리적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확장적 관점과 통합적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여 인간의 교육문제와 병리적 문제, 영적 문제해결의 연구적 단초를 밝혀내었다.

넷째,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진로설계사 전문가와 성경적 진로설계이론, 창조원리 인간임상으로 연구된 진로적성검사 도구가 인간을 둘러싼 교육과 상담, 심리, 신앙의 문제 해결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 대안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일반교육학과 상담학, 기독교 세계관의 신앙이 대립과 혼돈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입각한 생애진로설계로 접근하여 일반교육학으로 분류되는 진로교육과 상담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신앙이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이루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비교 측면의 질적 연구를 객관화하기에는 연구참여자가 소수라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역량을 찾아주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하나님이 모태부터 창조하신 인간의 유전적성을 찾아주는 기

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일반 진로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문제와 심리 장애 현상을 해결하는 통합적 상담과 교육목회, 복음연구의 도구, 신학과 교육학문의 연계 연구, 기독교교육과 성경적 진로설계 부문의 기초 연구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이로써 개인생애문제 해결, 교육문제 해결, 심리문제, 영적 문제 해결의 통합학문연구와 선행연구로써 전환의 트리거(Trigger) 연구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연구는 생애진로설계에서 기독교인의 창조적 세계관과 직업정체성을 연구하는 실제적 사례 연구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계진·김진선·신주연 (2022). 특수대학원 상담전공생의 학업 과정에 나타난 전환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문제연구**, 40(3), 145-174.
- 고은숙 (201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90년대생 대학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김미경 (2015). **수퍼비전이 기독교상담자 발달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미령 (2022). 중년기 여성의 진로전환: '사람을 돕는 직업군(Helping professions)'의 진로생애사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1(1), 87-126.
- 김신희·양은주 (2019).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진로 전환기 직장인의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의 적용 연구. **인간발달연구**, 26(2), 77-106.
- 김윤숙 (2011). **성경적 자기 이해를 통한 청소년 진로상담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김정연·이복희 (2022). 평생교육 교수자의 성인 발달장애인 교수경험 의미탐색.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연구**, 1(2), 91-114.
- 김지현·문한나·성문주·손수진·이정은·한유리 (2013). 고등교육맥락에서 본 학습자의 전환학습 경험에 대한 자기 성찰적 보고. **성인교육학회**, 16(2), 31-57.
- 김진·이희수 (2022). 청년 구직자의 직업상담에서 나타나는 전환학습 경험의 의미. **평생교육·HRD연구**, 18(1), 1-36.
- 김향식 (2010).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희영 (2018). 기독교인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44, 225-257.
- 노규성·이주연 (2016).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설계 지원 플랫폼 모형에 관한 융합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167-174.
- 박경호 (2003). 전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성인교육.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7, 292-315.
- 박에스더·김진 (2021). 50대 중년여성 3인의 생애전환 경험에 관한 의미 탐구: 진로설계사로 새 인생 출발하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857-875.
- 박예진 (2016). **기독교인 초보상담사의 신앙과 자기성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진희 (2013).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복음과 상담**, 20, 125-152.
- 엄미란·최은수 (2013). 산업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성인교육학회**, 16(4), 135-166.
- 오인탁 (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 417-445.

- 유혜령 (2015).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 Max van Manem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5(1), 1-20.
- 유흥준·유태용·장태인·배성호·조아름 (2014).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4), 617-642.
- 이광석 (2021). 코로나19 국면 인공지능 자동화와 플랫폼 노동의 위상학.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67-98.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 이미정 (2014). **상담수련과정에서 기독교인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유우 (2022). 생애경력설계의 통합적 측면에서 중년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 관련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94-194.
- 이은미 (2019). 기독교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신앙과 학문**, 24(2), 127-157.
- 이진구·정일찬·오미래 (2018).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14(3), 1-30.
- 정금희 (2018).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3rd Ed.):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채현순·장유진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형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167-192.
- 최성미 (2019). **성경적 상담자의 정체성 경험과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 최혜윤·김은하·홍숙선 (2019). 상담전문가로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20(3), 141-164.
- Denzin, N. K.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UK: Sage.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University of Duquesne.
- Lloyd-Jones, D. M. (1965).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and Its Cure*. MI: EERDMANS / KCBS.
- Kegan, R. (1998).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modern lif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rriam, S. B. (2000).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F: Jossey-Bas.
- Mezirow, J. (2000).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Mezirow, J. & Associates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F: Jossey-Bass.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F: Jossey-Bass.

한국직업능력연구원.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CpCd=0001>.(검색일 2024. 12. 04.)

한국진로적성센터. <https://aptitude-x.com/certificate.php>.(검색일 2023. 12. 21.)

#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in Career Planning among Non-Christian and Christian Participants in Life Career Design

김진 (백석예술대학교)

박에스더 (한국진로적성센터/교신저자)

### 논문초록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도래한 디지털화와 AI의 등장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현대인에게 생애진로설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 측면에서 혼란과 딜레마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생애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전환적 경험을 하며,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본질적으로 경험하는지에 대한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설계 경험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탐색하여 정체성 형성의 구조와 의미가 어떠한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는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반구조화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생애진로설계 현상의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방법은 면담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연구대상의 유사점은 생애진로설계의 개인 정체성에서 전문적 정체성으로의 전환, 직업사명의 정체성 보유, 진로설계 전문성 확장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였으나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시 복합적 생애진로문제해결을 범주로 하며,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제공'이라는 전문적 정체성에서 영적 정체성으로의 전환, 하나님과의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통합적 전환의 경험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애진로설계가 진로, 심리,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의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일반교육학과 기독교 세계관의 신앙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에 입각한 생애진로설계와 성경적 진로설계이론, 창조원리 진로적성검사도구와 함께 통합적으로 실시될 때,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의 교육과 심리, 영적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첫 임상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생애진로설계, 전환학습경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Giorgi 현상학적 연구

##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 참여 경험\*

### Experience of Christian Nurses Participating in Self-care Program

김희영 (Heeyoung Kim)\*\*  
이혜숙 (Hye Sook Lee)\*\*\*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ortance and implications of self-care through experience analysis of Christian nurses who participated in the self-care program. This study was conducted on 7 Christian nurses who participated in the self-care program operated by the Korean Nurses Christian Fellowship.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3 them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The three themes were 'Time full of vitality', 'Enlightenment and healing', and 'Resolution for a new leap forward'. The eight categories were 'Moved by the journey to the pilgrimage', 'Gratitude in nature', 'Joy with colleagues', 'Reflecting on Life and Thinking of Mission', 'Realizing the spiritual truth', 'A time for healing', 'Received new motivation', and 'Decided to take holistic self-car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able to decide on holistic self-care as experts in caring by experiencing recovery and promotion in the spiritual, professional, physical, relational,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omains of self-care. Self-care programs help Christian nurses become healthy and provide holistic care to pati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diverse self-care programs for nurses and actively support self-care practices.

**Key words:** Christian nurses, self-care, holistic nursing, focus group interview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30일 최종수정일, 5월 31일 게재 확정.

\*\* 동신대학교(Dongshin University) 간호학과 교수,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34-26, 301C kimhy@dsu.ac.kr

\*\*\*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Korea Nurses Christian Fellowship) 사무총장,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246-20 102-101, kncf@naver.com

## I. 서론

기독교간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써 최적의 건강(shalom)을 목표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가운데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역이다(이원희 외, 2002: 7). 기독교간호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자를 돕고 환자의 치유에 참여하는 돌봄의 실천자이다. 기독교간호사는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할 뿐 아니라 성경과 찬송, 기도 및 영적 자원을 사용하여 돌봄(윤매옥, 2004: 83)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기독교간호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쁨과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백성희, 2003: 47).

간호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되는 만큼 위기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고도의 긴장과 주의집중을 필요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환경은 삼교대근무로 불규칙하여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켜 소진을 유발하기 쉽다. 간호사는 자신을 이용하여 환자와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과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특징이 소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김세라 외, 2017: 17). 간호사의 소진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은 개인적으로 우울, 죽음불안이며 조직적으로 폭력반응, 이직의도, 언어폭력, 직무적으로 사회심리적스트레스,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공감피로 등이 있다(김신향·양윤서, 2015: 393). 간호사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적 측면에서는 공감만족과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개인적 측면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돌봄의 전략이 필요하다(김신향·양윤서, 2015: 391).

자기돌봄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시작하고 수행하는 돌봄의 활동을 말한다(Shields & Stout-Shaffer, 2020: 248). 자기돌봄은 돌봄의 전문직 즉, 타인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진을 막고 전문가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유성경 외, 2002: 36-37). 간호사의 자기돌봄은 생활양식의 돌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공감적 행동, 치유의 도구 사용, 치료적 경청, 의사소통 및 코칭 기술, 근거기반 통합적 증재 및 치유 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Shields & Stout-Shaffer, 2020: 250).

자기돌봄의 하위요소 중에서도 ‘영적 성장’은 가장 영향력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Rigdon & Winters, 2022: 90). 영적 돌봄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를 깨달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기독교간호사의 삶의 의미는 대상자에게 영적 간호를 수행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윤매옥, 2011: 159), 간호사 자신을 위한 영적 돌봄이 잘 이루어진다면 환자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능력도 증진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의도적인 자기인식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존재성을 개발하고 자기성찰과 헌신을 통해 더 차원 높은 목적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자기돌봄이 필요하다 (Shields & Stout-Shaffer, 2020: 265).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은 단순히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대상자를 잘 돌보기 위한 전문가의 자기 관리적 실천이다.

자기돌봄의 연구는 돌봄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돌봄의 전문직 중에서도 상담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2021년까지 약 33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하늬 외 2022: 52). 예술치료사 대상(홍혜정, 2015: 777 ; 김다영·황은영, 2018: 55 ; 김예은·김갑숙, 2020: 34 ; 주향기·소혜진, 2020: 43)과 교사 대상(최선우·변상해, 2020: 755 ; 박미희·김미숙, 2021: 613 ; 임정원·차미숙, 2022: 252 ; 현광미·신현숙, 2023: 25)의 연구도 다수 보고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대상(박향경·권자영, 2019: 11)과 목회자 대상의 연구(박의인, 2021: 12)도 보고되었다. 간호사의 경우 정신과폐쇄병동 간호사 대상(신해진, 2020: 30)과 난임센터 간호제공자 대상(김희정·김태은, 2019: 127)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어 업무의 소진 정도에 비해 자기돌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자기돌봄의 연구들은 대부분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들과 각 전문직군의 자기돌봄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며, 자기돌봄을 위한 활동들은 미술치료(김희정·김태은, 2019: 127), 상담심리프로그램(현광미·신현숙, 2023: 25) 등 소수만 고찰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내 의료현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특히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항상 감염원에 노출되었고 지역사회의 보건소의 간호사도 광범위한 업무와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자신의 감염이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것을 우려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대인관계를 제한하는 일상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소진과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자기돌봄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지지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어로 지친 간호사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인적 자기돌봄을 위한 돌봄의 순례길과 북리뷰 세미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간호사의 경험 분석을 통해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포커스그룹으로 면담한 후 내용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간호사이다.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한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온라인 포커스그룹 면담(Zoom)에 참여한 7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평균 연령 46.1±3.04세, 평균 경력은 21.9±3.27년이었다.

### 3. 자기돌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한 돌봄의 순례길과 북리뷰 세미나를 말한다. 돌봄의 순례길은 2021년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로 지친 간호사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 기간 중 하루를 정하여 개별적으로 혹은 4인 이내의 그룹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선교지와 간단한 선교역사 소개 및 소감문을 기록할 수 있는 기념 책자를 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지역에 있는 선교역사의 현장을 선택하여 방문한 후 협회에서 제작한 '각 지역 선교역사 기도문'을 공유해 기도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소감문을 기념 책자에 기록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돌봄의 순례길 전·후에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식사비를 지원하였고, 방문을 마친 후에는 협회가 주관하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에서 소감문을 발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돌봄의 순례길로 소개된 지역은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강원지역은 원주제일교회(1905년 강원도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 경북·대구지역은 계명대동산의료원의 의료선교박물관,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지역은 세브란스병원(알렌기념관, 언더우드 가(家)), 이대서울병원(보구녀관), 이화여대 이화역사관, 새문안 교회 역사관(1887년 한국 장로교 최초 교회), 양화진, 인천기독병원(로제타 홀), 인천내리교회(1891년 아펜젤러선교사가 세운 감리교 최초의 교회), 광주·전남지역은 기독교병원, 양림동 선교동산, 서서평 선교사 기념관,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 충칭지역은 아

펜젤러 순직기념관 등이었다.

북리뷰 세미나는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 간호와 신앙을 통합하는 간호, 성경중심의 간호, 영적 성장을 위해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에는 규장출판사의 ‘카이로스 1, 2(고성준, 2020)’을 선정하였고,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 1회씩 총 8회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요약발표 및 적용을 토의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21일에 1회의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포커스그룹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참여자에 한해 추후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내용은 모두 녹화하였다. 포커스그룹의 질문내용은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등 이었다.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자료의 활용 및 폐기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전사한 후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 직접 의미를 도출해 가는 것으로 현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단편적일 때 권장되는 방법이다(Elo & Kyngäs, 2008: 109-111).

준비단계에서는 분석의 접근, 분석 단위, 자료이해의 폭 등 분석방향을 결정하였다. 조직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구, 문장의 패턴과 주제를 찾아 개방 코딩한 후 코딩한 자료를 유사한 개념들끼리 분류하였다. 분류한 자료를 의미단위로 나누고 공통점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미단위를 주제별로 추상화하였다. 보고단계에서는 도출된 핵심주제의 하위영역별로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3개의 주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 ‘깨달음과 치유’, ‘새로운 도약을 위

한 결심' 이었다. 8개의 범주는 '순례지 여정에서의 벅찬 감동', '자연 속에서 감사를 누림', '동료들과 함께함이 즐거움', '삶을 되돌아보며 사명을 생각함', '영적 진리를 깨달음', '치유되는 시간이 됨',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음',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함' 이었다.

Table 1. Participant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elf-care Program

주제	범주	의미범주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	순례지 여정에서의 벅찬 감동	COVID-19로 지치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순례지를 간 것이 감동스러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상황에서 순례지를 갈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
	자연 속에서 감사를 누림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자연 속에서 주님을 느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감사함
	동료들과 함께함이 즐거움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시간을 가짐 동료와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나누는 것이 좋음
깨달음과 치유	삶을 되돌아보며 사명을 생각함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함
		생업보다는 사명으로 살도록 도전이 됨
	영적 진리를 깨달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지함
		영적 진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움
치유되는 시간이 됨	삶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치유됨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심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음	힘들어도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김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함	기도를 통한 영적 돌봄, 감사노트를 통한 정서적 돌봄, 운동을 통한 신체적 돌봄을 결심함
		독서나 일기를 통한 정서적 돌봄, 운동과 건강 식이를 통한 신체적 돌봄을 결심함

### 1. 생명력 넘치는 시간

첫 번째 주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으로 3개의 범주인 '순례지 여정에서의 벅찬 감동',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감사', '동료들과 함께함이 즐거움'을 통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해 2020년 초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온 상황이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COVID-19의 감염은 환자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킴으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2021년 9월과 10월은 환자 발생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한 시점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4인 이내의 동료들끼리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1) 순례지 여정에서의 벽찬 감동

참여자들은 일터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순례지를 방문하였다.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밀려오는 감동을 경험하였다. 선교사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는 자신의 기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밖을 아예 안 나갔어요. 출근할 때도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했고 병원에서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늘 일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일만 하고 원내에서 계속 있다가 바깥쪽을 나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늘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연대 언더우드 가(家)쪽으로 쪽 갔어요. 제가 금요일 늦은 때에 갔었거든요. 그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6시 지나서 갔는데. 이어폰을 끼고 기도문도 들고 하라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커서 들으면서 쪽쪽 계속 걸었어요. 언더우드 가(家)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자체가 대개 감사했어요.”(참여자 1)

“오래전에 저희를 위해 오셨던 선배들, 선교사님들의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저 스스로를 위해 마련된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기리고 이라는 게 아니라 바쁜 일상 중에서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기도문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2)

“저는 이번에 자기돌봄 하면서 순례길을 갔다 왔었는데 언더우드 생가와 광혜원을 갔다 왔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4명이 정말 오랜만에 같이 갔어요.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이라 가능했는데… 사실 지금은 못가잖아요. 잠깐 약간 느슨해져 있을 때 어쨌든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저희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 저희가 근무시간 조금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같이 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몽클한 느낌을 받았어요.”(참여자 4)

## (2) 자연 속에서 감사를 누림

대부분의 순례지가 자연과 함께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감사를 누리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울긋불긋한 가을 정취가 아름다워서 자연을 거니는 것이 감사가 되는 시간을 누렸다.

“선생님과 함께 가서 자연 속에서 주님을 봤어요. 제가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병원, 집 요렇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걸으면서 낙엽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감사가 많이 되었어요.”(참여자 3)

“저희는 아담스채플에 갔어요. 좋아하는 동료와 함께 병원이라는 이 일상을 벗어나서 자연을 거닐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청명하고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가을이었어요. 어느새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갈대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너무 너무 가을의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6)

## (3) 동료들과 함께함이 즐거움

홀로 참여한 사람들은 자연에 감탄하며 즐거움을 누린 반면에 팀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포즈를 잡고 서로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들은 나이를 거슬러 젊어지는 것 같아 생명력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돌봄의 순례길 나눔을 통해 서로 즐거움과 감동을 공유하며 감사하게 되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저희들끼리 시간을 냈고 날씨도 너무 화창했어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가지고 선생님이 저희의 사진을 막 찍어주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살도 찌고 해서 좀 외모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기고 지금 내가 늙어가면서 너무 볼품없어진다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서 자신의 사진을 잘 안 찍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4명의 간호사들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광혜원을 배경으로 저희가 포즈를 취하고 어린애들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햇살은 너무 좋고 청명한 날씨 가운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저희는 시간을 맞춰서 점심시간에 일찍 만나서 학관에서 점심을 같이 나누고 또 선생님이 친히 사온 커피와 약간의 다과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광혜원을 방문했어요. 정말 날씨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어린애들처럼 사진도 찍으면서 아주 편하게 친교하고 좋은 정보들을 나누었어요.”(참여자 5)

## 2. 깨달음과 치유

두 번째 주제는 ‘깨달음과 치유’로 3개의 범주인 ‘삶을 되돌아보며 사명을 생각함’, ‘영적 진리를 깨달음’, ‘치유되는 시간이 됨’을 통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선교사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책을 읽으면서 또는 동료들과 나누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게 되었고 치유되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 (1) 삶을 되돌아보며 사명을 생각함

참여자들이 선교사들의 삶을 살펴 본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낯선 나라에서 각자의 일, 목사로써,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교사로서 헌신적인 삶의 흔적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입사할 때의 결심을 반추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죠. 근데 저는 기독교간호사라는 것은 병원에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평소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순례의 길을 통해서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어떤 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했던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본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순례길 하면서는 저는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대개 좋았거든요. 제가 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평소에는 사실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일로서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뜻,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2)

“저희끼리 언더우드 생애에 대한 동영상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었는데 이것 보면서 뭔가 저희가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저희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하나님의 병원이고 내 병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퇴색되고 좀 무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시기인데 새로운 도전을 받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참여자 4)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선교를 위해서 장래가 보장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순교하시고 열정으로 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업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생업이 아닌 사명으로 살려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참여자 6)

## (2) 영적 진리를 깨달음

참여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계기가 되었다. 현대인들이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요약설명이 도움이 되었다. 또 서로의 관점을 토의하는 가운데 더 깊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에서 읽기는 읽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 그림자 말구 실제 있는 영적 세계를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개 많이 와 닿았고 구체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나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좌절도 많이 하고 많이 낙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재를 바꾸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참여자 2)

“사실 복리뷰 하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제가 그냥 읽은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나누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들이 나눔을 통해서 와 닿고 뭔가 적용의 단계까지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돌봄을 잘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4)

“카이로스 책을 읽으면서 시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과연 저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육적인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함을 깨닫게 되었어요.”(참여자 7)

### (3) 치유되는 시간이 됨

참여자들은 칭찬과 격려를 받음으로 서로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힘든 시기의 과정을 서로 이야기하였을 때 이해받았고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들었다. 이것이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증진시켜 치유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또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눔이 참 중요하구나! 알게 된 거 같아요. 000선생님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기를 찾게 되고 저희 마음이 또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참여자 1)

“저는 사실 수험생 엄마 역할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저의 아이가 재수생이어서 그 중압감이 되게 컸어요. 아이가 한 번 실패를 했었고 다시금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힘들고 우울하기도 했다가 하는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힐링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다, 후회 없이 잘 이겨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참여자 4)

“광혜원을 들렀을 때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서 너무 좋았던 하루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힐링을 받고 출근을 해서도 열심히 일했던 하루를 보냈었어요. 그 후로도 저희가 재수생 3명, 수험생 현역 고3 1명의 엄마였기 때문에 저희 단독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서 저희가 위로하면서 치유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참여자 7)

### 3.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심

세 번째 주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심’으로 2개의 범주인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음’,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함’을 통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자 뜻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하였다. 기도를 결심하는 영적 자기돌봄, 책을 읽고 일기를 쓰려는 정서적 자기돌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신체적 자기돌봄을 위한 결심들이 나타났다.

### (1)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음

참여자들은 힘들어도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새로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제가 다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차마 일이 힘들어도 여기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예전에는 뭔가 일을 끝마치지 못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좋은 계기가 돼서 다른 곳을 경험해보고 다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어느 곳이나 다 힘들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경험하면서 다른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2)

### (2)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함

참여자들은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인적 측면에서 자기돌봄을 결심하였다. 영적 자기돌봄을 위해 경건의 시간과 기도하기를 결심하였다. 심리적, 정서적 자기돌봄을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면서 내면의 성장과 성찰을 결심하였다. 신체적 자기돌봄은 꾸준한 운동의 결심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기도하면서 새로운 다른 일을 찾아보고, 책도 읽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일하다 보면 밥을 못 먹거든요. 그 때 못 먹더라도 그 외의 시간에 건강하게 밥을 챙겨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쉬는 날에는 운동도 한번씩 하고 있어요. 동네를 30분 산책할 때 예전에는 음악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산책을 하니 너무 좋았어요. 출퇴근시간에도 가능하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려고 하는데 걸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를 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참여자 2)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고요. 가장 약한 부분이 기도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되어서 감사가 되었어요. 신앙서적과 자기개발서를 틈틈이 읽고 있고 또 평소에 찬양 듣는 거, 설교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짬짬이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최근에 동기부여 받아서 감사노트를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예전에 대개 마른 편이었는데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찌서 운동으로 헬스, 매일 걷는 것, 윗몸일으키기를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참여자 3)

##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사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Butler 등(2019: 107)의 자기돌봄의 6개 영역인 영적, 직무적,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며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영적 자기돌봄을 포함해야 한다. 영적 자기돌봄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행위이며, 본질적이고 성스러운 가치들과 믿음체계를 실천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상복, 2006: 27). Butler 등(2019: 117)은 영적 자기돌봄이 더 넓은 세계의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방법, 삶의 목적, 희망 및 의미를 찾는 방법이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며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였다. 바쁜 일상 중에서 시간을 정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자기돌봄의 경험이 순례지와 자연을 통한 영적 회복을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잠시 성찰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다(시편 121). 기독교간호사로서 영적 자기돌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며 삶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직무적 자기돌봄을 포함해야 한다. 직무적 자기돌봄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소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Butler et al., 2019: 110). 직업은 재정적인 안정을 충족시켜 주며 개인의 성취와 삶의 목적을 실현시켜 준다. 기독교인들에게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자리이므로 직업을 통해 흥미와 보람을 느끼도록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간호사인 참여자들은 선교사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하나님의 병원이며 내 병원이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며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성찰함으로 직무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였다.

셋째,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신체적 자기돌봄을 포함해야 한다. 신체적 자기돌봄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실천되어지는 돌봄의 영역이며,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리적 욕구에 근거한다(Butler et al., 2019: 109).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없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쉬는 것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출애굽기 31:11-31), 그릿 시냇가에 숨긴 엘리야에게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심으로(열왕기상 17:1-7) 돌보셨다. 신체적 자기돌봄은 일차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나 다른 욕구에 의해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영역이다. 신체적 자기돌봄에 주의하지 않으면 삶의 다른 영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돌봄의 순례길을 통해 바쁜 일상으로부터 쉬는 법을 얻는 신체적 회복을 경험하였으며,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계획을 통해 신체적 자기돌봄을 결심하였다.

넷째,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관계적 자기돌봄을 포함해야 한다. 관계적 자기돌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Butler et al., 2019: 1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다(에베소서 2:11-22).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마태복음 5:44),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마태복음 7:12).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는데 이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현 시대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점차 충족되기 어려운 욕구가 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업무를 통해 만난 관계이기는 하나, 관계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업무복장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동료들과 만나게 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되어 업무 중 생긴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적 돌봄의 시간이 되었다. 간호사는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나 자신의 욕구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대인관계적 특성을 나타낸다(염은이, 2017: 361). 기독교간호사들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정서적 자기돌봄을 포함해야 한다. 정서적 자기돌봄은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과 행복을 창출하거나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한다(Butler et al., 2019: 114). 성경은 우리의 정서(감정)는 죄 된 본성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로마서 6 ; 에베소서 5:15-18 ; 베드로전서 5:6-11). 우리의 정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며,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주신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도록 독려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많은 시편들이 적나라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구하고 있다. 간호업무환경 중 병동내 폭력이 높게 조사되고 있으며(김종경 외, 2014: 74), 폭



력과 대인관계 갈등, 정서적 탈진(연영란, 2014: 4984)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와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 탈진을 많이 경험하며 정서적 탈진을 겪는 개인은 극도의 피로함과 심리적 쇠약, 상실감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길가예, 2019: 36). 기독교간호사들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정서를 동역자들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로마서 12 ; 갈라디아서 6:1-10 ; 고린도후서 1:3-5 ; 히브리서 3:13). 동역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키고 위로와 격려를 주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기독교간호사 공동체는 정서적 탈진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정서적 돌봄을 서로 나누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심리적 자기돌봄을 포함해야 한다. 심리적 자기돌봄은 마음과 경험의 삶에 관한 광범위한 실천이 포함된다(Butler et al., 2019: 116). 하나님은 인간에게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에스겔 36:26). 성경에서 마음은 모든 감정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므로 새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내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자 뜻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하였다. 기도를 결심하는 영적 자기돌봄, 책을 읽고 일기를 쓰려는 심리적 자기돌봄,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신체적 자기돌봄을 위한 결심들이 나타났다. 자기돌봄을 위한 결심은 참여자들이 심리적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간호사의 동기부여는 긍정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요인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부여는 주어진 업무를 변화시켜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활동을 하게 하며, 스스로가 삶에 대한 관점, 업무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게 한다. 또한 전인적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다.

Butler 등 (2019: 108-109)은 자기돌봄의 순서로 신체적 자기돌봄을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 시작하며, 다음으로 직무적 자기돌봄을 제시한다. 이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정서적 안전 및 행복감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이며, 관계적, 정서적, 심리적 자기돌봄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주관적이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을 영적 자기돌봄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돌봄의 각 영역은 서로 관련되며 특히 영적 자기돌봄의 실천은 모든 영역의 실천 및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모델을 위해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 영적 차원을 보완한 이상복(2006: 3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전인치유의 핵심자원이 기독교 영성인 것(이상복, 2006: 32-34)과 같이 자기돌봄의 핵심은 영적 자기돌봄이다. 영적 자기돌봄을 통해 직무적 자기돌봄은 증진될 수 있으며, 영적 자기돌봄을 통해 관계적 자기돌봄과 정서적 자기

돌봄이 증진될 수 있다. 즉 영적 자기돌봄을 통해 간호직무에 대한 의미와 기독교간호사로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주어진 업무를 사명으로 생각하게 된다. 영적 자기돌봄은 전반적인 자기돌봄의 실천에 대한 동기력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방문한 순례길은 세브란스병원의 광혜원, 연세대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대구 계명대 아담스채플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개화기에 위험하고 열악한 조선 땅에 와서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한 선교사의 삶의 자리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구한말·일제강점기에 사역한 간호선교사의 수는 79명으로 이들은 주로 병원을 거점으로 환자간호와 간호교육을 수행하였고 지역 사회 보건교육, 질병예방 등의 건강 증진 활동과 여성 인권에 대한 계몽운동,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을 하였다(한미영·손수경, 2014: 245). 간호선교사들은 간호사로 일하는 동시에 복음전도자로서 일하며 복음과 의료혜택을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한미영·손수경, 2014: 245). 한국간호는 간호선교사들의 근대간호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시작되었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간호선교 역사를 반추하여 기독교간호사의 사명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기독교간호사를 위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간호업무에 지친 기독교간호사가 간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직업적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의 열매는 바로 자신들임을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간호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돌봄의 전문가인 기독교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돌보며 겪는 소진과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돌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돌봄의 순례길에 참여한 일부 기독교간호사들의 자기돌봄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모든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탐색함으로써 추후 다양한 전략의 자기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간호사의 경험분석을 통해 자기돌봄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탐색한 연구이다.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자기돌봄의 여섯 가지 영역(Butler et al., 2019)을 성경적 관점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기독교간호사의 돌봄의 순례길로 선교역사 현장의 탐방은 자기돌봄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사명을 역사를 통해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적 자기돌봄

을 토대로 직무적 자기돌봄, 신체적 자기돌봄, 관계적 자기돌봄, 정서적 자기돌봄, 심리적 자기돌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인적 건강으로 귀결된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기독교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돌봄의 순례길 프로그램이 기독교간호사들의 전인적 자기돌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자기돌봄이 필요한 전문직종을 위해 차별화된 자기돌봄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전인적 자기돌봄이 동료들을 향한 서로돌봄으로 확장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길가에 (2019).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다영·황은영 (2018). 음악치료사의 소진이 치료적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돌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2), 53-78.
- 김세라·전미경·황진희·최애란·김인숙·편미경·문경은·김문희·신나라·이순행 (2017). 다차원적 요인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23(1), 9-19.
- 김신향·양윤서 (2015). 국내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3(8), 387-400.
- 김예은·김갑숙 (2015).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예술심리치료연구**, 16(2), 29-54.
- 김종경·김명자·김세영·유미·이경아 (2014). 종합병원의 간호업무환경이 간호사의 직무배태성,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20(1), 69-81.
- 김하늬·고은숙·손은령·문정옥 (2022). 상담자의 자기돌봄(self-care) 연구 동향과 관련 변인 탐색. **교육상담연구**, 3(1), 49-63.
- 김희정·김태은 (2019). 난임센터 간호제공자의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돌봄 체험. **질적연구**, 20(2), 125-136.
- 류혜옥·김영경·김명련 (2002).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3(1), 109-122.
- 박미희·김미숙 (2021). 영·유아교사의 자기돌봄에 대한 인식과 실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611-624.
- 박의인 (2021). **목회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기돌봄 목회상담방법론 제안: 재구조화에 기초한 내관 방법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박향경·권자영 (2019).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기돌봄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3), 5-34.
- 백성희 (2003). **기독교간호사의 성숙한 신앙과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 신해진 (2020).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의 자기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연영란 (2014).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간호조직문화 및 이직의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8), 4981-4986.
- 염은이 (2017). 간호사의 대인관계문제, 감정노동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 논문지, 18(6). 356-365.
- 유성경·유정이·이윤주·김성경 역 (2002).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서울: 학지사.
- 윤매옥 (2004). **말기암환자를 위한 영적 간호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윤매옥 (2011). 말기환자를 돌보는 기독교간호사의 삶의 의미와 영적간호수행. **신앙과 학문**, 16(2), 147-171.
- 이상복 (2006).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독교 전인치유 모델에 관한 탐색. **성경과 상담**, 6, 24-48.
- 이원희·이혜숙·임현아·정진옥·이동구 역 (2002). **신앙인의 눈으로 본 건강과 돌봄**. Shelly, J. A. & Miller, A. B. (1992). *Called to care: A Christian Theology of Nursing*. 서울: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출판부.
- 임정원·차미숙 (2022). 보육교사의 자기돌봄과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유아교육·보건복지연구**, 26(3), 245-267.
- 주향기·소혜진 (2020). 음악치료사의 자기 돌봄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2), 43-64.
- 최선우·변상해 (2020) 초등교사의 자기돌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4), 749-764.
- 한미영·손수경 (2014). 한말 · 일제강점기 내한 간호선교사의 사역 연구. **신앙과 학문**, 19(3), 213-250.
- 홍혜정 (2015). 미술치료사의 미술작업을 통한 자기 돌봄 체험연구. **미술치료연구**, 22(3), 777-798.
- 현광미·신현숙 (2023), 자기돌봄서클프로세스가 교사의 자기돌봄과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40(2), 25-52.
- Butler, L. D., Mercer, K. A., McClain-Meeder, K., Horne, D. M. & Dudley, M. (2019). Six domains of self-care: Attending to the whole person.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9(1), 107-124.
-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Rigdon, K. L. & Winters, K. (2022). Relationships among self-car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compassion fatigue of nurses in community hospitals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 Caring*, 26(2), 83-91.
- Shields, D. & Stout-Shaffer, S. (2020). *Self-Development: The foundation of holistic self-care*. In Helming, M., Shields, D., Avino, K. & Rosa, W. (Eds.), *Dossey and Keegan's Holist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8th ed.) (2020). Burlington, MA: Jones and Bartlett Learning.

# 기독교간호사의 자기돌봄 프로그램 참여 경험

## Experience of Christian Nurses Participating in Self-care Program

김희영 (동신대학교)

이혜숙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간호사의 경험 분석을 통해 자기돌봄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간호사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내용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3개의 주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 '깨달음과 치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심' 이었다. 8개의 범주는 '순례지 여정에서의 벅찬 감동', '자연 속에서 감사를 누림', '동료들과 함께함이 즐거움', '삶을 되돌아보며 사명을 생각함', '영적 진리를 깨달음', '치유되는 시간이 됨',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음',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함' 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기돌봄의 영적, 직무적, 신체적, 관계적, 정서적, 심리적 영역에서 회복과 증진을 경험하며 돌봄의 전문가로서 전인적 자기돌봄을 결심할 수 있었다.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기독교간호사가 건강하게 변화되어 환자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돌봄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간호사, 자기돌봄, 전인적 돌봄, 포커스그룹 인터뷰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독교 학교 국내연구 동향 분석: 교육 공공성 요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Christian Schools in Korea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the Elements of Educational Publicness**

임고운 (Kwoon Im)\*\*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rends in researches on Christian school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ublicness, considering it a crucial value in education. To achieve this, 145 academic papers on Christian schools, indexed in the KCI until 2023, were colle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seven elements of educational publicness related to Christian schools and four research periods were established as criteria for analysis. Using basic trend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649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collected papers' titles, keywords, and abstracts, followed by network visualization and centrality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es on Christian schools show an overall increasing trend, influenced by changes in national education policies regarding private school. Secondly, researches on Christian schools address general elements of educational publicness and those specific to Christian educational publicness, with the latter appearing more frequently. Thirdly, the keywords in Christian school researches cover a limited scope and exhibit an overall dispersed network structure. Fourthly, elements like 'equal opportunity' and 'justice and peace' focus more on exploring past roles and values than current ones. Fifthly, elements like 'social integration', 'communication', and 'public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30일 최종수정, 5월 31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23S1A5B5A16078853), 2024년  
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내용임.

\*\* 국립한밭대학교(Hanbat National University) 인문교양학부 강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kwoon02@naver.com

faith' are primarily addressed responsively concerning private school policies. Lastly, the element of educational publicness that garnered the most interest in Christian school researches is 'diversification', mainly explored within the context of alternative schoo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Christian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ublicness.

**Key words:** educational publicness, research trends, Christian schools, language network analysis

##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격차 심화와 이주민의 증가, 전염병, 기후 위기 등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성(publicness)’의 가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경쟁 심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내세우는 상대화된 진리 개념으로 파편화된 개인들 사이에서 비로소 ‘공동선(common good)’에 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신차균, 2006: 89-90 ; 이진호, 2022: 211 ; Biesta & Säfström, 2023: 1). 이러한 관심은 국내외 여러 미래 교육정책에서 공공성과 관련한 ‘사회통합’, ‘지속가능성’, ‘포용’ 등의 가치들이 주요하게 강조되는 모습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양정실 외, 2018: 13-19 ; 이영희 외, 2018: 133 ; 조운정 외, 2023: 124).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 공공성의 의미는 국가에 의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공적 비용에 의해, 공통교육과정을, 공익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교육 기회와 비용, 관리·감독 측면에서 그 주체와 대상이 ‘공(公)’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이종태, 2006: 9; 이진호, 2022: 205). 오히려 불확실성의 위협으로 가득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미래를 살아야 할 아이들에게 교육이 길러주어야 할 힘은 무엇이며 지향하도록 할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소통하고 합의하며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의 궁극적 역할이자 이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정계숙 외, 2021: 79). 즉, 오늘날 교육 공공성은 교육을 통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구가 아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주적 가치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무시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신차균, 2006: 89 ; Biesta, et. al., 2022: 1217).

그런데 이처럼 교육 공공성을 교육의 본질적 가치로 바라보는 개념은 이미 국내외 여러 학자를 통해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부분을 함께 맡고 있는 사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율성과 공공성을 배타적 개념으로 보는 논리(김영철 외, 2015: 24 ; 신차균, 2006: 68) 안에서 그 법적·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자율성을 운영의 토대로 하는 사학은 마치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이다(이종원, 2023: 118 ; 함승수, 2023: 100 ; 황동연, 2019: 245). 이는 국내 종교계 사학 중 가장 비중이 큰 학교<sup>1</sup>가 기독교 학교들이라는 점(국민일보, 2022. 5. 12일자 기사)에서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종교계 학교 현황’(2018)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전체의 11.4%가 되는 종교계 사립 학교 중 79.3%가 기독교 사립학교이며, 대학 중에서는 71.8%, 전문대는 88.5%가 기독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국민일보, 2022.5.12일자 기사).

그러나 공공성의 가치는 기독교 학문 분야에서도 지속해서 주목해온 부분이다. Volf(2014: 142-143)는 ‘광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그것이 놓인 공적 영역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번영’과 ‘공공선’이라는 주제는 ‘살롬’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궁극적 비전임을 주장하였다. 예언자적 전통을 토대로 한 기독교 신앙과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의 삶을 형성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공공성의 개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Mouw & Griffioen, 2021: 103 ; Volf, 2014: 111). 인간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선한 삶을 이 세상에 실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일이며, 특히 Mouw와 Griffioen(2021: 212)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관용과 겸손의 정신 등을 통해 공적 의식과 공적 자아 형성에 적극적으로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가치와 관계한다. 그중에서도 기독교 대학이 살롬의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 가능성을 갖는데, 교육기관으로서 기독교 대학은 구조적 다원성과 방향적 다원성의 교차로에서 공공선 실현을 위한 공적 광장(Mouw & Griffioen, 2021: 242)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Wolterstorff(2014: 79)는 살롬이 지금-여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였다. 이는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좀 더 나은 향상을 ‘위하여’ 일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일반적인 ‘교육 공공성’의 책임을 공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살롬 즉, 공동의 번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라는 ‘기독교적 공공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기관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왔다(박상진, 2013: 408).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학교는 초·중등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한 학교로서, 공교육 체제 내에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뿐 아니라 특성화 학교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 그리고 비인가 상태로 제도 밖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도 포괄한다(김영철 외, 2015). 이들 기독교 학교는 중첩되는 두 가지 ‘공공성’을 존재론적 특성으로 갖는데, 그것은 자신보다는 타자와 세계, 즉 공동체에 관한 관심과 가치 추구, 책임에 주목하게 하는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가 이 공유된 교육 공공성의 가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은 연구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교육 공공성을 위한 기독교 학교의 적극적인 연구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공공성 관점에서 기독교 학교의 연구 동향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자율성에 대응하는 논리로서의 공공성만이 아닌 교육의 본질 및 기독교의 살롬 비전과 공명하는 가치로 교육 공공성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학교 연구자들의 연구적 관심을 교육 공공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반적인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탐색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연구는 논문의 내용과 주제를 대표하는 키워

드들의 배열과 관계를 시각화하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법적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분석 범주별 논문 수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기초동향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구조적 동향까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신현석·이주영, 2020: 131).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 탐색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 동향은 연구 시기별, 교육 공공성 요소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며, 이들의 네트워크 구조는 연구 시기별, 교육 공공성 요소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 공공성

공공성(公共性)은 사전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표준국어대사전), 혹은 ‘공적인 특성이나 상태, 대중에 의해 소유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dictionary.com). 나병현(2002: 551)은 이 사전적 의미를 기초로 공공성의 의미를 크게 3가지, 곧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인 것,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의 것(common), 누구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는 것(open)으로 정리하였다. 국가가 모든 공적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특성으로서 서술적 의미와 만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공공성도 국가가 교육의 제공자가 되고, 공적 비용이 투입되며, 공중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공통교육과정이라는 공통의 내용을 가르치며, 공익과 공동선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주로 설명되어왔다(나병현, 2002: 558 ; 성병창, 2007: 244). 이렇게 이해된 교육 공공성은 한편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자율형 사립고, 대학 입시제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등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교육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혹은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라는 평등주의적 가치를 내포한 반대 담론을 형성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고(이윤미, 2001: 31 ; 임은희, 2016: 2),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를 법제화하는 명분으로 다뤄지기도 했다(박상진, 2012: 321).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의 의미를 ‘국가에 관계된 것’으로만 보는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유발된 역사적 우연(신차균, 2006: 70)일 뿐이며, 오늘날 경쟁을 통해 학습 성과(test scores)를 측정하며 일종의 ‘수행(perform)’을 강조하는 교육 안팎의

풍토는 그것의 주체가 국가라 할지라도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부식(erosion)’시키는 기반이 될 뿐이라는 점(Biesta, et. al, 2022: 1217)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제공 주체보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육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함양과 이웃을 향한 봉사를 목적으로 삼는 데 공공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강영택, 2013: 10 ; 이종태, 2006: 19).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공(public)’ 개념을 벗어난 ‘공(common)’으로서의 교육 공공성 담론은 크게 두 가지의 구체적 의미로 구성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담론은 Habermas와 Arendt의 정치철학적 관점을 통해 재해석된 공공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학교를 ‘공적 영역’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Arendt에 따르면, 학교는 공동세계를 가운데 두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연결된 관계의 그물망(the web of relationship)을 형성하여 ‘소통’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박은주, 2021: 167).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 각자의 차이에 따른 다양성을 가지고 소통에 참여하는 것, 즉 Arendt가 규정한 “공적으로 행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학교 교육(이종태, 2006: 22)은 공적 감각을 형성하고, 각자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힌 사유를 해방하며, 특정 입장에 매몰되기보다 공동의 이해를 찾아가는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공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타자의 존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강영택, 2013: 1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공공성과 대립된 것처럼 보였던 사실 교육기관도 공공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고길섭, 2001 ; 강영택 2013: 7에서 재인용).

그러나 보다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공공성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담론도 있다. 교육을 외부에서 요청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공동선의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나병현, 2002: 563 ; 이진호, 2022: 212). Masschelein과 Simons(2020: 56, 98)는 사회로부터 해방된 시간과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그 자체로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는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을 ‘스콜라스틱 교육’이라고 명명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규정하는 모든 사회적인 제약, 예컨대 지능과 적성, 출신 배경, 과거와 미래 등으로부터 잠시 ‘유예’시켜 각자의 ‘할 수 있음(being able)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해가도록 돕는 곳이라고 본다. 학교는 ‘세계’를 대변하는 지식을 특정 이념이나 실용적 가치 등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해방하여 학생들이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돕고, 이를 연습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각자의 차이 안에서 발전해갈 수 있는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에 권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세계에 집중시키는 교육적 책임을 갖게 된다. 이는 학교를 공적 영역으로 보는 Arendt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학교 그 자체가 학생들이 공



존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공적 시공간’이 된다는 데 학교의 공적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진호, 2022: 216). 즉, 오늘날 학교를 각종 정치화, 대중화, 전문화, 기술화 등으로 길들이려는 시도 속에서 교사 역할의 공적 가치와 학생들의 공적 이익을 보호함(Masschelein & Simons, 2020: 225)으로써 성장의 과정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관여하고 선행학습으로 지식 탐구의 호기심이 사라지며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교실의 모습은 교육 공공성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교육 공공성은 유네스코 2050을 중심으로 글로벌 책무로까지 그 가치와 의미가 확장되어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단순히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고 그 실행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재(common goods)’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정윤경, 2023: 8). 이와 같은 공동재 개념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자원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수준에서 교육 공공성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처럼 교육 공공성을 국가가 개입된 관점을 벗어나 공적 영역, 교육의 본질, 그리고 공동재 차원으로 초점을 두어 이해하려는 관점은 오늘날 공·사 구분의 경계가 흐려지고 오히려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공동의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는 데 유익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것은 교육이 국가 관리 여부나 교육 대상 선정 및 비용 배분에서의 평등성 확보를 넘어 그 목표와 내용 측면에서 학생의 성장을 평등하게 지원하며, 입시경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소통을 통해 타자에 대한 존재 인식과 더 나은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며,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공의(公義) 혹은 공익(公益)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역시 자율성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공적 이익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교육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추구되고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2. 기독교적 교육 공공성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에서 공공성이라는 주제는 공교육 체제 내에 있는 사립학교라는 제도적 범주를 중심으로 자율성 문제와 긴장 관계를 갖는 논의 대상으로 주로 다뤄져 왔다. 1974년부터 시작된 평준화 제도, 2005년과 2007년에 개정 및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2020년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학생 선발권 및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학을 법인화하면서 교원 임용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운영 등에 국가의 과잉 규제와 감독을 가능하게 한 것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해야 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켰다는 측면



에서 그러하다(조은식, 2023: 199 ; 함승수, 2023: 88).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사학은 건학이념에 기초한 특수성을 기반으로 전인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민족의식 고취를 통한 사회 참여 등으로 교육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에 일조해 왔는데(김영철 외, 2015: 44), 오늘날 국가가 다루는 공공성 개념에서 이와 같은 측면이 가치 있게 고려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그것이 공교육의 부분을 함께 맡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 활동이 사회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학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스스로 개혁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다양화에 일조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왔다(박상진, 2012: 323 ; 조은식, 2023: 199). 공립학교의 ‘공(公)’ 개념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박상진, 2012: 322)도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사립학교 교육이 다양성 제공 측면에서 공공성에 일조할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박상진(2013: 417)은 사학과 별도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설립 자체가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교육 공공성의 의미를 탐색한 바 있다. 그것은 입시 위주나 유학 준비가 아닌 정의와 평화, 생태계 보전, 타종교/문화 이해 등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곧 공동선을 추구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식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 다른 학교에도 자신을 개방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나아가 학교의 이념이나 교육내용, 교육 경영, 교육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사회 변혁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교육 공공성은 대안학교에서도 교육 목표, 대상, 지위, 비용 등의 다섯 영역에서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기독교적 교육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립학교와 대안학교의 구분을 넘어 다원주의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기독교 학교의 공적 책임 수행이라는 맥락에서 공공성을 다루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 학교가 1) 사회계층의 다양한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2) 공교육에 대한 올바른 책무성을 국가에 대해 각성시키며, 3) 건학이념을 종교교과목 외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도 구현함으로써 자율성과 혁신을 추구하고, 4) 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5) 다원주의의 공익성에 일조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장신근, 2014: 281-282).

강영택(2013: 12)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성 교육, 공동체 교육, 정의와 평화 교육이다. 우선, 영성 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통전성(wholeness)과 환대(hospitality)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 공적 신앙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수용과 존중, 다양성에 대한 환대,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감각을 갖게 해야 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는 객관주의 인식론의 지배를 받는 교육 현장에서 진리의 인격성에 기초한 앎과 영적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공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Palmer, 2000: 60). 모든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가치관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인격과 영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공동체 교육은 개인의 개체성 존중과 함께 구성된 상호 간 유기적 관계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타자와의 인격적이고 화목한 관계, 경쟁을 통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넘어서는 진정한 관계 맺음을 배우게 하는 데 역할을 말한다. 이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과 바울의 지체 비유가 함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근거로 한다. 나눔과 연대, 생명 존중의 학생문화를 형성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김영철 외, 2015: 118). 마지막으로, 정의와 평화 교육은 인간의 죄로 인한 불의와 폭력 등으로 하나님의 상처가 발생하는 곳(Wolterstorff, 2014: 74)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성과 실천성을 계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인지적 세계관과 윤리적 인격 형성을 돕는 역할을 말한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 측면에서 예언자적 전통, 곧 사회 변혁에 대한 관심을 내재한 ‘세계 형성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신학적 입장에 따른다(장신근, 2014: 284-286 ; Wolterstorff, 2007: 21).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가 남북통일 등과 같은 정치영역,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관련한 경제영역,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문화영역,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한 생태영역 등의 공적 속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신근, 2014: 302). 그밖에 타 종교 혹은 비종교와의 대화와 학제 간 대화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공적 삶 속에서 상호존중 기반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도 기독교 학교가 실천해야 할 공공성이다(김도일, 2022: 171). 기독교는 창조 세계의 구속 곧,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자연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샬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교의 공공성은 ‘샬롬’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에 근거함으로써 일반적인 교육 공공성 개념보다 교육의 공동체 기여 문제에 더 깊은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갖는 특징을 보이며, 여기에 공립 학교의 공공성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기독교 학교는 예언자적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공공성 실현의 사명이 있으며, 이에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소통, 평등, 연대, 협력 등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교육 공공성 개념의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전인 ‘샬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번영’이야말로 진정한 공의(公義)이자 공익(公益)으로 보고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 학교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들을 그 의미와 성격을 중심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기독교 학교와 관련한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

요소	설명	대표 연구자
공동체	경쟁이 만연한 사회문화 속에서 인격적이고 화목한 관계로 연대와 협력의 진정한 관계 맺음을 가르치는 것	강영택(2013) Palmer(2000) 등
공적 신앙	기독교 영성인 통전성과 환대를 기반으로 공적 자아와 공적 감각 형성에 관심을 두는 것	Mouw&Griffioen (2021) 등
기회 균등	모든 학생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할 수 있음의 경험과 진리의 인격성에 기초한 앎을 추구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는 것	Masschelein & Simons(2020) 등
다양화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실현을 통해 공교육 개혁을 위한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	박상진(2012) 등
사회 통합	최소한의 교육의 질에 대해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혁을 도모하는 것	김영철 외(2015) 나병현(2002) 등
소통	모든 학교 구성원이 소통에 참여하며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	김도일(2022) Volf(2014) 등
정의와 평화	기독교의 비전인 살롬을 추구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의를 추구하는 경향성과 실천성을 계발하는 것	Wolterstorff (2014) 등

이중 ‘사회통합’과 ‘기회균등’, ‘소통’, ‘공동체’는 연구자별로 일반적인 교육 공공성의 요소로 공통되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 중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기독교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정의한 것이며, ‘공적 신앙’과 ‘다양화’, ‘정의와 평화’는 기독교 신앙의 공적 특성에 따른 기독교적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로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육 공공성 요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독교 학교의 연구 동향을 탐색함으로써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기독교 학교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육 공공성 실천을 위한 추후 기독교 학교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넷마이너(NetMiner 4.5.1)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Biblio Data Collector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Biblio Data Collector는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KCI에 등재된 논문을 논문 제목, 키워드, 초록, 발행일자 등의 기준을 통해 검색하여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00개 이상의 다수 논문을 수집할 수 있고, 이 연구의 분석 도구인 넷마이너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위한 자체 데이터 변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였다. 우선 연구 목적에 맞는 논문 수집을 위하여 ‘기독교학교’를 지칭하는 국문 제목과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독교학교’, ‘기독교대안학교’, ‘종교계대안학교’, ‘기독교사립학교’, ‘종교계 사립학교’ 등의 키워드로 제목, 주제어, 초록을 대상으로 검색을 반복하여 189편의 논문이 1차로 수집되었다.

이후 수집된 논문 중 중복되는 것과 주제와 무관한 것을 제외하여 총 133편으로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교회교육, 마을학교에 대한 내용이거나 특정 역사적 인물의 생애나 특정 지역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에 주 강조점이 있는 논문들, 국문 제목은 있으나 다국어 초록 또는 주제어만 있는 경우, 혹은 아예 국문 초록과 주제어가 없는 논문은 제외 대상이 되었다. 더불어 같은 주제어로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된 등재 학술지 논문 목록을 비교한 결과 연구 목적에 부합함에도 1차 수집 목록에서 누락된 논문 12편을 Biblio Data Collector에서 2차로 추가 검색하여 1차 목록과 통합하였다. 이로써 총 145편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수집 시작 시기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2023년까지 발간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집된 논문들이 모두 2000년 이후의 것으로 추출되었다.

## 2. 분석 방법

### 가. 기초동향 빈도분석

기독교 학교 관련 국내연구의 기초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는 이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여 연구 시기와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로 설정하였다. 연구 시기는 문서 수집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독교 학교 관련 첫 논문이 발견된 2005년을 시작점으로 삼았는데, 이는 2004년 대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강의석 사건을 계기로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공공성 논의가 주요하게 떠오른 시점이었다. 그후 2009 교육과정 개정, 2015 교육과정 개정, 2020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2022년 시행된 대안학교 등록제 등 기독교 학교의 공공성 논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을 고려하여 전체연도 시기를 5년 단위로 분류하여 총 4개의 시기로 살펴보았다. 시기별 연구물의

수와 키워드 빈도수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사회통합, 기회균등, 소통, 공적 신앙, 다양화, 공동체, 정의와 평화 요소를 하위 준거로 하였다. 설정한 준거에 따라 수집된 분석대상 논문 145편의 제목, 저자, 연도, 학술지명, 주제어, 초록(국문)을 추출하여 연구 시기별,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Microsoft Excel과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기독교 학교 연구 기초동향 분석 준거

분석 준거	하위준거
연구시기	2005~2009년(1기), 2010~2014년(2기), 2015~2019년(3기), 2020~2023년(4기)
내용요소	사회통합, 기회균등, 소통, 공적 신앙, 다양화, 공동체, 정의와 평화

자료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기독교 학교 관련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 7개의 명칭과 하위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논문 분류에 대하여 기독교 학교 연구 분야에 이해도가 있는 교육학 박사 1인에게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내용 요소 중 1차로 도출한 ‘공적관리’라는 표현이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하나 기독교 학교의 공적 역할 수행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2차 검토에서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에 부합하는 역할 설명인 ‘사회통합’으로 변경하고 하위 설명도 수정·보완하였다. ‘공적 신앙’ 요소도 1차에서 ‘영성’으로 표현했던 것이 하위 내용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행연구를 토대로 2차 검토에서 새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밖에 요소별 논문 분류에서도 기독교 대학의 채플이 문화적 감각을 고려한 양식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주장한 136편 논문을 ‘다양화’에서 ‘소통’으로 변경하는 등 총 10편에 대한 분류를 수정하였다.

### 나. 언어 네트워크 분석

기독교 학교 관련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개념 간의 관계성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고 네트워크 중심성 산출을 통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잠재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박치성·정지원, 2013: 79). 개념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점에서 기존 질적 내용분석의 양과 질을 넘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확대된’ 내용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효숙, 2019: 153).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언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

는 단어를 ‘노드(node)’로, 그리고 그 노드 간 관계를 ‘링크(link)’로 연결하여 노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 문장 혹은 한 문서에 함께 출현하는 단어들을 그 출현 여부와 빈도에 따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그 굵기를 달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를 파악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의미 연결망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집한 학술논문들의 주제어 외에 제목과 초록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특정 주제 영역의 문헌들로부터 추출된 단어들과 그 단어 간 동시출현행렬(co-occurrence matrix) 빈도와 유형을 이용해 전체 텍스트와 시기별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 간 관계 구조를 시각화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최종 선정된 논문에서 넷마이너가 추출한 단어(words) 목록을 대상으로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는 연구자가 추출 단어 목록에서 유의어, 지시어, 제외어를 지정하여 불필요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거하고 필요한 단어만 선별해내는 작업으로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1차 과정으로서 넷마이너가 추출한 단어 목록을 살펴며 유의어, 제외어, 지시어 사전을 만들었다. 유의어 작업은 단어의 뜻은 같으나 사용 형태가 다른 경우 하나의 단어로 인식시키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표어를 지정하여 동일한 형태를 부여한다. 예컨대 ‘기독교 사립학교’를 ‘사립학교’, ‘기독교계 사립학교’, ‘기독교 종립학교’, ‘기독교 사학’ 등으로 같은 의미인데도 연구자마다 다른 표현으로 기술한 경우, ‘사립학교’라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도록 이를 대표어로 지정하여 통일시켰다. 수집한 논문들에서 ‘사립학교’는 모두 ‘기독교 사립학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단어는 빼는 것으로 단순화하였다. 한편 제외어 작업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된 단어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단어, 혹은 한 글자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예컨대 ‘그동안’, ‘대부분’, ‘반면’ 등과 같은 단어나 ‘분석’, ‘연구’, ‘인공물’ 등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 자체를 언급하는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영어 키워드들을 모두 제외하였고,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어 중 지나치게 일반적인 개념들인 ‘교육’, ‘학교 교육’, ‘한국’ 등과 같은 개념도 제외어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주제로서 자료수집 시 검색어였던 ‘기독교학교’도 그 단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이연승·박건령, 2022: 40)을 고려하여 제외어에 포함하였다. 이어 일종의 교정작업, 즉 추출된 주제어의 한글 번역, 띄어쓰기, 품사 변경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례로 ‘콘텐츠’는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으로 번역하였고,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교육’, ‘교육 성과’를 ‘교육성과’로 띄어쓰기를 교정하였으며, 복합어인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제된 단어가 1,316개이며, 그중 논문 등장 빈도수가 1개인 단어를 추가로 제외한 결과 최종 649개 단어가 되었다. 구체적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예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단어 정제의 예

사전	구분	전	후
유의어	외래어 교정	콘텐츠, 딜레마, 커뮤니케이션	내용, 갈등, 의사소통
	띄어쓰기 교정	기독교 교육, 교육 성과, 교사 교육	기독교교육, 교육성과, 교사교육
	대표어 지정	교수자, 교원, 교육자, 교직,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기독교사	교사
		공공, 공공성, 교육공공성, 기독교학교의 공공성, 교육공공성, 기독교학교의 사회적책임	공공성
		기독교학교, 교회설립 기독교학교, 루터교학교, 종교계 학교, 종립학교, 크리스천 학교	기독교학교
지정어	정의평화교육, 기독교세계관, 사립학교, 대안학교 등		
제외어	Chapel, 그동안, 대부분, 반면, 소위, 분석, 연구, 탐색, 인공물 등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비정형의 텍스트들을 기본으로 하여 단어 간 연관성이 높은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연구 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출 단어가 높은 상위 100개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들로 단어-단어 간 1-mode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체적인 단어 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앞서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비정형의 텍스트들을 통해 형성한 단어-문서 간 2-mode 네트워크를 단어 간 동시 등장 횟수가 값이 되도록 단어-단어 간 1-mode 네트워크로 변환하고, 그중에서도 단어 동시 출현 횟수가 2회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여 단어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Eigenvector중심성을 전체적 범위와 시기별 범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 범위에서 각 중심성 분석 결과별 상위 20개 키워드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시기별 각 중심성 분석을 통해 시기별 상위 10개 키워드 간 변화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의 시기별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에 추출된 145개의 문서 데이터에서 내용 요소별로 총 7개의 문서 데이터를 재추출하고, 그에 따라 형성된 단어-문서 간 2-mode 네트워크를 마찬가지로 단어 간 동시 등장 횟수가 값이 되도록 단어-단어 간 1-mode 네트워크로 변환한 후, 그중에서도 단어 동시 출현 횟수가 2회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하여 단어별 등장



논문 수와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등장논문 수와 연결중심성 값이 공통으로 높게 나온 상위 10 개를 내용 요소별 핵심어로 지정하여 핵심어 예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에서 교육 공공성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별 연구 동향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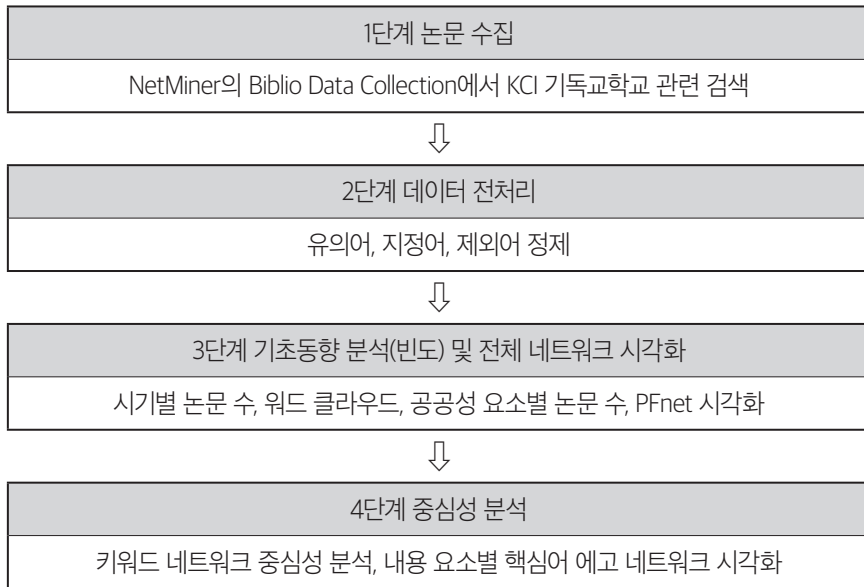


그림 1.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 IV. 연구 결과

### 1. 기초동향 빈도분석

#### 1) 발행 연도별 논문 게재 편수

분석대상으로 수집한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물 145편의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게재 분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연도별 게재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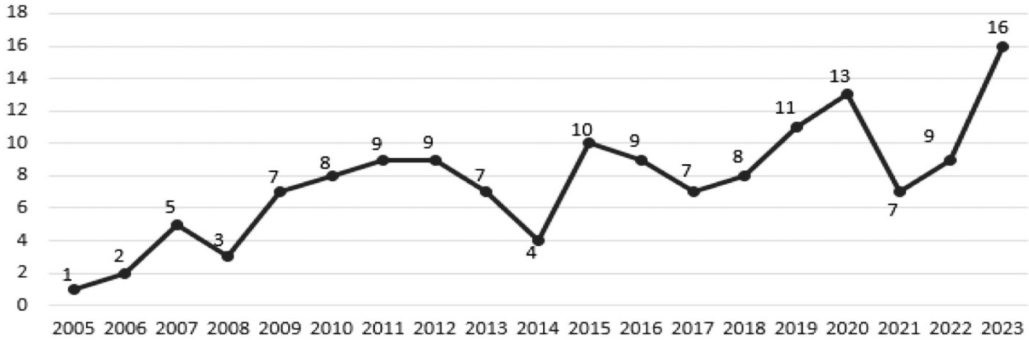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발행 연도별 게재 논문 수

2005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는 총 145편인데, 2005년에 게재된 1편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는 1기인 2005~2009년에 18편(12.4%), 2기인 2010~2014년에 37편(25.5%), 3기인 2015~2019년과 4기인 2020~2023년은 모두 각각 45편(31%)으로, 이중 한 해에 가장 많은 편수가 게재된 해는 가장 최근인 2023년의 16편(11.03%)이다. 2014년과 2021년에 잠시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나 4기에 2024년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망해본다면 그 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2기인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기독교 학교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연구 수가 지속되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키워드 빈도수

수집한 145개 논문과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649개 단어를 대상으로 NetMiner 4.5.1 버전을 활용하여 출현 빈도수 상위 30위 이내의 단어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타난 것은 ‘사립학교’(464)이며, ‘대안학교’(450), ‘교사’(276), ‘종교교과’(200), ‘학생’(182)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기독교 학교의 두 유형인 사립학교와 대안학교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초·중·고·대학까지 포함하는 사립학교에 비해 대안학교는 그 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짧은 역사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만큼이나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연구적 관심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구성원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고루 이뤄지고 있으나 그중 ‘교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으며,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 요소와 관련할 수 있는 ‘종교교과’, ‘항일운동’, ‘운영’, ‘건학이념’, ‘공교육’, ‘자율성’ 역시 상위 30개 이내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표 4. 출현 빈도수 상위 30위 이내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사립학교	464(11.1%)	16	의미	103(2.5%)
2	대안학교	450(10.8%)	17	학부모	98(2.4%)
3	교사	276(6.6%)	18	필요	97(2.3%)
4	종교교과	200(4.8%)	19	설립	97(2.3%)
5	학생	182(4.4%)	20	교육선교	97(2.3%)
6	기독교교육	154(3.7%)	21	건학이념	97(2.3%)
7	교육성과	143(3.4%)	22	과정	91(2.2%)
8	기독교적 가르침	134(3.2%)	23	공교육	89(2.1%)
9	신앙	131(3.1%)	24	특징	88(2.1%)
10	항일운동	130(3.1%)	25	자율성	87(2.1%)
11	교육과정	122(2.9%)	26	관계	85(2.0%)
12	영향	111(2.7%)	27	문제	84(2.0%)
13	종교	109(2.6%)	28	평가	81(1.9%)
14	운영	105(2.5%)	29	교사교육	79(1.9%)
15	교회	105(2.5%)	30	일제강점기	75(1.8%)
총			4164(100%)		

### 3)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논문 게재 빈도수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 요소들에 따라 이들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을 분류한 결과 요소별 논문 게재 빈도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요소별 분류는 각 논문의 초록과 교육 공공성 요소의 특징을 비교하며 읽는 정성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으로 ‘공공성’ 키워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다루는 내용이 교육 공공성 요소에 관련되는 경우를 빈도수에 반영하였다. 여러 가지 요소가 중복된 경우는 대표성을 갖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표 5.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논문 게재 빈도수

단위: 편(%)

	공동체	공적신앙	기회균등	다양화	사회통합	소통	정의와 평화	기타	총계
전체	9 (6.2)	15 (10.3)	6 (4.1)	25 (17.2)	18 (12.4)	11 (7.6)	10 (6.9)	51 (35.3)	145 (100)
1기 (2005~2009년)	1 (5.3)	1 (5.3)	1 (5.3)	6 (31.5)	4 (21.0)	1 (5.3)	1 (5.3)	4 (21.0)	19 (100)
2기 (2010~2014년)	5 (13.9)	2 (5.5)	1 (2.8)	8 (22.2)	5 (13.9)	0 (0.0)	1 (2.8)	14 (38.9)	36 (100)
3기 (2015~2019년)	0 (0.0)	8 (17.8)	2 (4.4)	6 (13.3)	2 (4.4)	8 (17.8)	3 (6.7)	16 (35.6)	45 (100)
4기 (2020~2023년)	3 (6.7)	4 (8.9)	2 (4.4)	5 (11.1)	7 (15.6)	2 (4.4)	5 (11.1)	17 (37.8)	45 (100)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빈도분석 결과, 총 145편의 논문 중 94편(64.8%)이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와 무관한 ‘기타’ 분류의 연구물을 제외하고는 ‘다양화’ 요소가 25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통합’(18편), ‘공적 신앙’(15편), ‘소통’(11편), ‘정의와 평화’(10편), ‘공동체’(9편), ‘기회균등’(6편)이 그 뒤를 이었다.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자들이 표면적으로 교육 공공성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들을 다양한 주제 안에서 제법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공교육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철학과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자율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의 필요성 주장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균등’ 요소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 간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를 담은 연구물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통합’ 요소는 2020년에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인 4기에 들어서 더 두드러지고 있고, ‘소통’이나 ‘공적 신앙’ 요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3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정의와 평화’ 요소는 그 수가 적긴 하지만 시기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공동체’와 ‘다양화’ 요소는 시기별 특징적 패턴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특징을 보인다. 이는 두 요소가 공교육 개혁을 모색하는 사립학교 혹은 대안학교로서 기독교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 특징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기본적 관심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2. 언어 네트워크 분석

### 1) 전체 네트워크 분석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 동향을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통해 좀 더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총 645개의 키워드를 전부 분석대상으로 하면 그 수가 너무 많아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조남욱·조규락, 2017: 6), 등장논문 수에 따른 상위 100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단어 간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중에서도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 거리를 보존하면서 네트워크를 축약하여 각 키워드 간 상호연관성이 높은 관계만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키워드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하는 PFnet(Path Finder Network Scal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구 출현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노드 간 연결 링크 굵기가 두꺼울수록 서로 연결된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보면 노드의 크기가 크고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 링크 수가 많으며 그 굵기도 두꺼운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립학교’, ‘교사’, ‘교육성과’ 등이 핵심 키워드 중에서도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 링크 수가 많고, 노드 크기도 크며, 다른 키워드들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중심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안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키워드들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학교의 두 유형인 ‘사립학교’와 ‘대안학교’는 기독교 학교 연구 안에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각각의 관심과 주제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 키워드가 그 관계를 일부 매개하나 직접적인 연관구조를 갖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사립학교는 직접 연결된 키워드들이 많은 데 비해 대안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안학교가 그 자체로 연구 대상이 되기보다 기독교적 가르침, 인성교육 등의 기독교적 교육이 실천되는 장(場)으로서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출현 빈도수 상위 30개 이내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많은 연결을 보이는 대상은 주로 ‘사립학교’와 ‘교사’로서, 이들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와 관련해서는 공교육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개정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교육정책’, ‘종교교과’의 키워드가 ‘사립학교’에, 그리고 좀 더 기독교적 특성에 부합하여 강조되는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로서 ‘다양화’, ‘인성교육’ 키워드는 ‘대안학교’에 각각 연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링크가 굵게 나타난 관계는 교육성과-질적연구, 심층-질적연구, 대안학교-교육성과, 교사교육-리더십, 개정교육과정-대응, 사립학교-건학이념, 사립학교-교육정책 순으로 링크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주로 같이 연구되는 키워드들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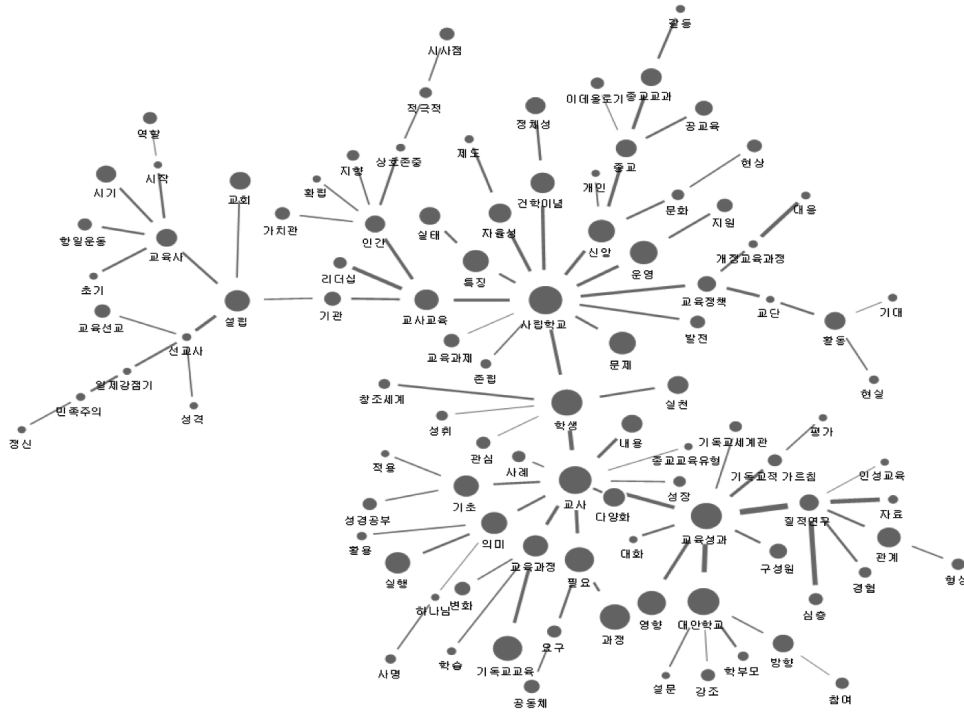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PFnet)

## 2)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서로 다른 키워드 간 연결 정도를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핵심 주제어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단어 간 ‘동시 등장 횟수’를 값으로 하는 단어-단어 간 1-mode 네트워크에서 그 동시 출현 횟수가 2회 이상인 데이터만 다시 추출하여 단어동시출현네트워크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Eigenvector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숫자가 높을수록 연결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Eigenvector 중심성은 다른 단어들과 직접 연결된 링크 수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과의 연결성이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그 값의 크기는 곧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안현수, 2023). 이러한 중심성 지표별로 파악한 핵심 키워드 상위 20개의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핵심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등장논문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Eigenvector	
사립학교	80	사립학교	1	사립학교	0.0006	사립학교	1	사립학교	0.2178
교사	70	교사	1	교사	0.0006	교사	1	교사	0.2070
대안학교	64	학생	1	학생	0.0006	학생	1	학생	0.1829
교육성과	59	대안학교	1	대안학교	0.0006	대안학교	1	대안학교	0.1781
학생	59	교육성과	1	교육성과	0.0006	교육성과	1	교육성과	0.1713
과정	52	과정	1	과정	0.0006	과정	1	필요	0.1633
기독교교육	51	영향	1	영향	0.0006	영향	1	과정	0.1605
필요	51	신앙	1	신앙	0.0006	신앙	1	영향	0.1526
영향	50	운영	1	운영	0.0006	운영	1	신앙	0.1520
운영	48	기독교교육	1	기독교교육	0.0006	기독교교육	1	운영	0.1453
문제	47	문제	1	문제	0.0006	문제	1	기독교교육	0.1443
신앙	47	의미	1	의미	0.0006	의미	1	문제	0.1380
의미	46	특징	1	특징	0.0006	특징	1	의미	0.1363
특징	46	기초	1	기초	0.0006	기초	1	교육과정	0.1323
교육과정	42	교사교육	1	교사교육	0.0006	교사교육	1	특징	0.1319
기초	42	실행	1	실행	0.0006	실행	1	기초	0.1276
설립	42	건학이념	1	건학이념	0.0006	건학이념	1	교사교육	0.1273
실행	42	종교	1	종교	0.0006	종교	1	실행	0.1246
건학이념	41	종교교과	1	종교교과	0.0006	종교교과	1	다양화	0.1232
교사교육	41	실천	1	실천	0.0006	실천	1	설립	0.1225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지수(4.89%)와 매개중심성 지수(0.013%), 근접중심성 지수(8.805%)는 그 값이 모두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키워드가 어느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비슷한 연결성을 가지고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상위 20개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igenvector 중심성 값은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의 핵심 주제어를 그 중요도에 따라 더 면밀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Eigenvector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기독교 학교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키워드



는 ‘사립학교’, ‘교사’, ‘학생’, ‘대한학교’, ‘교육성과’, ‘필요’, ‘과정’, ‘영향’, ‘신앙’, ‘운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개 등장논문 수가 높은 키워드들의 목록과 거의 유사하나 ‘기독교교육’은 등장 빈도수는 높은 데 비해 실제적인 영향력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필요’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10개 키워드는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도 모두 함께 높은 키워드들로서 이들이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 ‘교육과정’, ‘다양화’, ‘설립’은 다른 중심성에는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Eigenvector 중심성에만 높게 나타나 이들이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는 아니라도 다른 중요한 키워드들과 연결되어 영향력을 갖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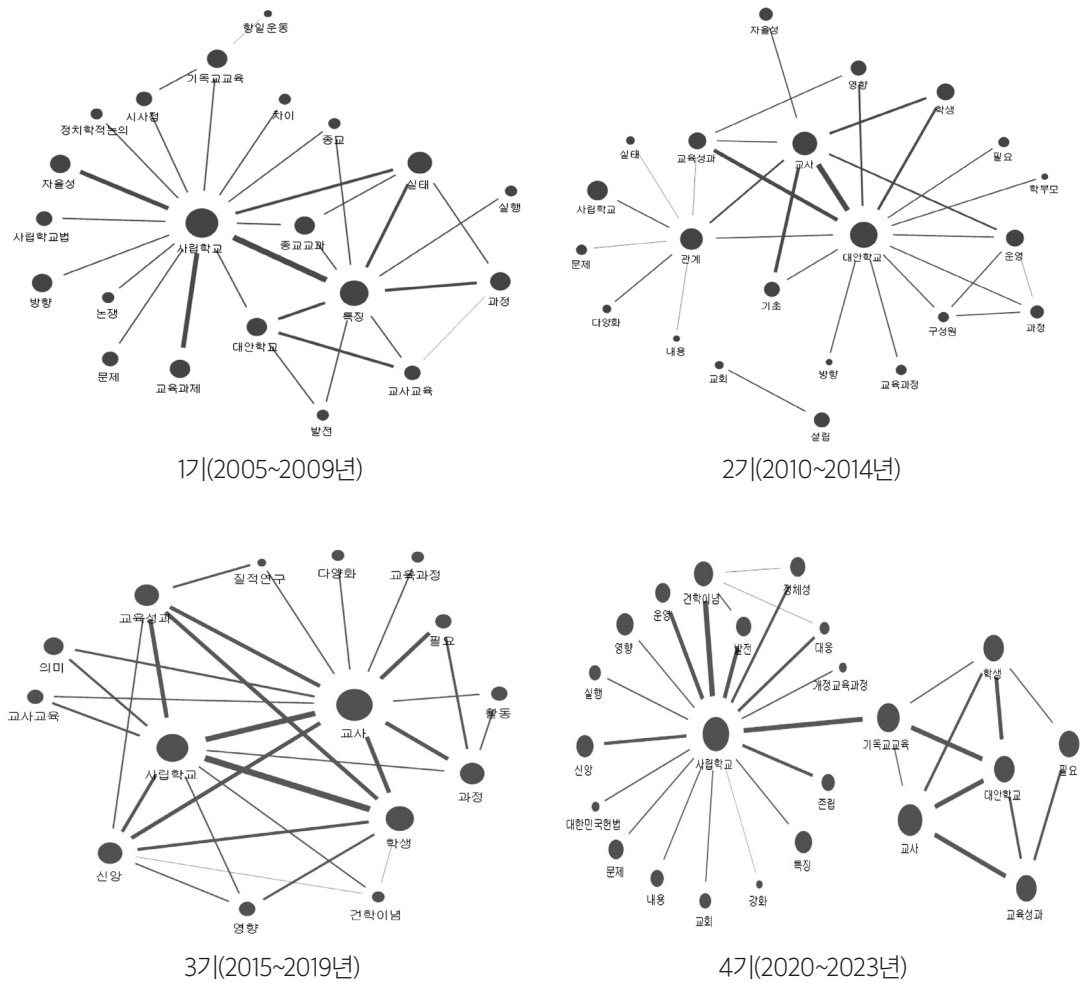


그림 5. 시기별 핵심어 예고 네트워크 시각화

### 3) 시기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기독교 학교 연구의 핵심 주제어들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인 145개 논문을 시기별로 추출하고, 전체 649개 키워드 중 시기별로 1회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단어동시출현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1기(2005~2009년)에만 총 289개의 키워드가 출현하고, 그 밖에 2기(2010~2014년), 3기(2015~2019년), 4기(2020~2023년)에는 649개의 모든 키워드가 다 출현하고 있었다. 시기별 키워드 간 네트워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어동시출현횟수가 2회 이상인 키워드들로 단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단어 간 연결 중심성과 등장논문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둘의 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여 이들과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시기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살펴보았다.

앞 페이지의 그림 5에서 키워드 간 연결 링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동시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노드의 크기는 등장논문 빈도수를 반영하는데, 그 구체적인 값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특히, 연결중심성은 다른 키워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시기별 기독교 학교 연구가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위 시각화된 시기별 네트워크의 의미를 구체적인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시기별 상위 10개 키워드 등장논문 수 및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1기 (2005~2009년)				2기(2010~2014년)			
키워드	등장논문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등장논문	키워드	중심성
사립학교	14	사립학교	.3437	대안학교	23	대안학교	.2746
특징	10	특징	.3090	교사	19	교사	.2654
실태	8	실태	.2812	관계	17	관계	.2608
과정	7	과정	.2604	사립학교	15	운영	.2206
대안학교	7	대안학교	.2152	교육성과	14	사립학교	.2098
기독교교육	7	기독교교육	.2118	운영	14	학생	.2021
종교교과	7	운영	.2083	학생	14	설립	.1929
방향	7	종교교과	.1944	기초	13	교육성과	.1851
자율성	7	교사교육	.1909	설립	13	영향	.1821
교육과제	7	방향	.1875	영향	13	과정	.1743

3기 (2015~2019년)				4기 (2020~2023년)			
키워드	등장논문	키워드	중심성	키워드	등장논문	키워드	중심성
교사	28	사립학교	.5386	사립학교	24	사립학교	.4747
사립학교	27	학생	.5188	교사	20	필요	.3858
학생	23	교사	.5148	기독교교육	19	기독교교육	.3818
과정	21	과정	.4792	교육성과	18	교사	.3717
교육성과	21	의미	.4732	대안학교	18	학생	.3555
신앙	21	활동	.4712	필요	18	건학이념	.3434
의미	20	신앙	.4693	학생	18	대안학교	.3333
교사교육	18	교육성과	.4613	건학이념	16	실천	.3292
영향	18	영향	.4297	실천	16	신앙	.3272
필요	18	교사교육	.4217	신앙	15	발전	.3272

1기(2005~2009년)에는 ‘사립학교’가 총 18편의 논문 중 14편에 등장하고 연결중심성도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여러 키워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립학교와 굵은 링크로 표시되며 동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사립학교-자율성, 사립학교-특징, 사립학교-교육과제, 사립학교-실태였으며, 그 외에도 사립학교법, 자율성, 논쟁, 종교교과가 관계를 맺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은 사립학교(.3437), 특징(.3090), 실태(.2812), 과정(.2604), 대안학교(.2152), 기독교교육(.2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과 ‘교육과제’, ‘운영’을 제외하고는 등장논문수와 연결중심성 값의 순위가 거의 비슷했다. 기독교 학교의 또 다른 유형인 ‘대안학교’도 상위 20개 키워드로 등장하지만, 사립학교보다는 그 빈도와 연결중심성 크기 면에서 작은 모습을 보였다. 1기는 2005년과 2007년에 대대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개방이사제 등 사학의 본질적 자율성을 과잉 제한한 데 대한 논쟁이 있었던 만큼(김영철 외, 2015: 55-56), 그 특성에 따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토대로 교육과제를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기(2010~2014년)에는 ‘대안학교’가 총 37편의 논문 중 23편에 등장하고 연결중심성도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1기와 달리 사립학교보다 대안학교에 더 강조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와 굵은 링크로 표시되면서 동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관계를 보이는 것은 대안학교-교사, 대안학교-교육성과, 대안학교-학생, 교사-기초인데, 연결된 키워드들을 통해 대안학교는 학교 운영,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 등과 같이 학교 내적인 특성을 탐구하는 것에 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은 대안학교

(.2746), 교사(.2654), 관계(.2608), 운영(.2206), 사립학교(.2098), 학생(.2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회-설립이 별도의 네트워크 그룹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설립에 관한 관심과 필요도 탐구되었다.

3기(2015~2019년)는 ‘교사’가 총 45개의 논문 중 28개의 논문, ‘사립학교’가 27개의 논문에 등장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교육적 특성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사립학교가 다시 연구적 관심이 높은 주제로 부상하는 변화를 보였다. 연결중심성은 사립학교(.5386)가 교사(.5148)보다 더 높아서 다른 키워드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교사-학생-교육성과는 연결 링크가 굵게 연결된 핵심 그룹이며, 그 외에도 교사-필요, 교사-과정, 사립학교-신앙, 사립학교-의미, 사립학교-건학이념이 비교적 굵은 링크로 연결되어있다. 연결된 관계를 보이는 키워드들의 분포는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서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교교과에 관해 종교학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논쟁의 중심이 되면서 기독교 학교 연구자들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연결중심성은 사립학교(.5386), 학생(.5188), 교사(.5148), 과정(.4792), 의미(.4732), 활동(.4712), 신앙(.4693) 등의 순서로 나타나며, ‘활동’과 ‘신앙’은 이전 시기에는 높게 나타나지 않은 키워드들이다.

마지막으로 4기(2020~2023년) 역시 ‘사립학교’가 총 45개의 논문 중 24개에 등장하고 연결중심성(.4747)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안학교’ 역시 총 18개의 논문에 등장하고 연결중심성(.3333)도 상위 10위 안에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두 키워드로 구분되어 각각이 별도의 네트워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기독교교육’ 키워드가 1기 이후로 다시 높은 등장논문 수(19개)와 연결중심성(.3818) 값으로 등장하면서 ‘사립학교’와 ‘대안학교’ 키워드를 매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시기는 2020년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 공공성 요소 중 사회통합 측면에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개입이 강화되는 법적·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사립학교-건학이념, 사립학교-운영, 사립학교-존립, 사립학교-발전, 사립학교-대응, 사립학교-정체성, 사립학교-기독교교육, 사립학교-신앙의 연결 링크가 굵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대한민국헌법’, ‘개정교육과정’ 등의 키워드도 사립학교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연결중심성은 사립학교(.4747), 필요(.3858), 기독교교육(.3818), 교사(.3717), 학생(.3434), 건학이념(.3434), 대안학교(.3333), 실천(.3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학이념’ 키워드가 이 시기에 새로 높게 등장한 것도 전술한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대안학교에서 연결 링크가 굵게 나타나는 관계는 대안학교-교사, 대안학교-학생, 대안학교-교육성과, 대안학교-기독교교육으로 2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적인 특성을 살피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관련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 7개를 중심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 논문으로 분류된 총 9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내용 요소별 논문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체 649개 키워드 중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로 1회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단어동시출현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단어동시출현횟수가 2회 이상인 키워드들로 단어 간 1-mode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사회통합’ 요소에서는 총 293개의 키워드가, ‘기회균등’ 요소에서는 총 199개의 키워드가, ‘소통’ 요소는 총 313개, ‘공적 신앙’ 요소는 총 318개, ‘다양화’ 요소는 총 358개, ‘공동체’ 요소는 총 164개, ‘정의와 평화’ 요소는 총 229개의 키워드가 출현하고 있었다. 요소별 단어 간 연결중심성과 등장논문 빈도수를 분석하고, 그 둘의 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이들과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6부터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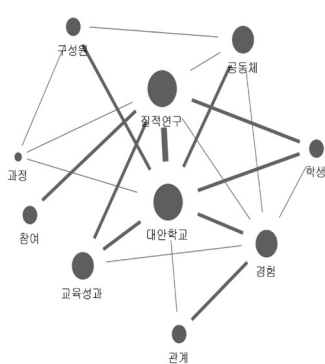


그림 6.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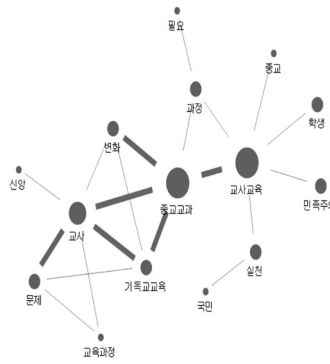


그림 7. 공적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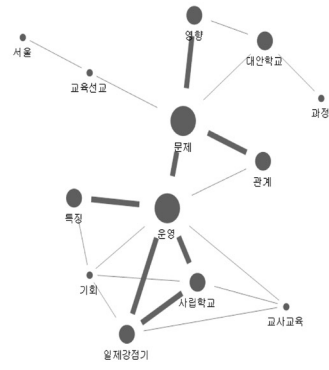


그림 8. 기회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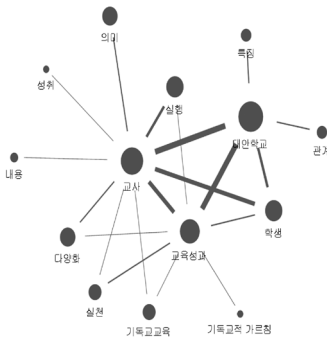


그림 9.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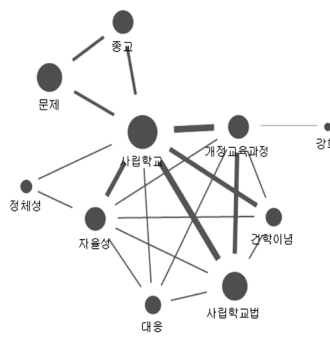


그림 10.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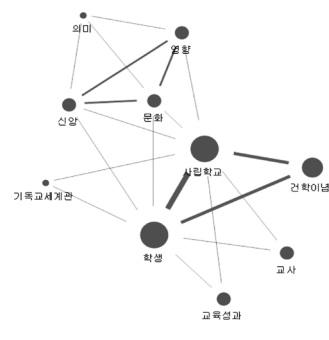


그림 11.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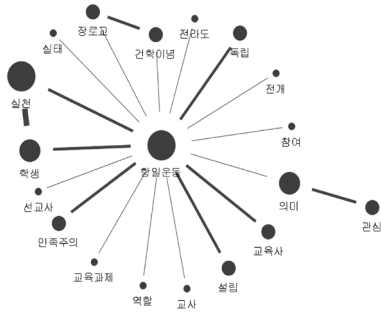


그림 12. 정의와 평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네트워크를 이루는 상위 각 1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기독교 학교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별 상위 10개 키워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공동체	공적 신앙	기회균등	다양성	사회통합	소통	정의와 평화
대안학교 (.3312)	교사교육 (.2586)	운영 (.2626)	교사 (.4593)	사립학교 (.3938)	사립학교 (.4679)	실천 (.2280)
질적연구 (.3067)	민족주의 (.2523)	사립학교 (.2373)	대안학교 (.4341)	문제 (.3801)	학생 (.4679)	의미 (.2105)
경험 (.2944)	종교교과 (.2492)	일제강점기 (.2373)	학생 (.4229)	개정 교육과정 (.3458)	문화 (.4391)	항일운동 (.2061)
교육성과 (.2699)	학생 (.2365)	문제 (.2323)	다양화 (.4201)	대응 (.3458)	신앙 (.4391)	학생 (.1973)
관계 (.2576)	과정 (.2239)	교사교육 (.1717)	교육성과 (.4145)	자율성 (.3458)	영향 (.4391)	관심 (.1578)
학생 (.2392)	교사 (.2239)	수용 (.1717)	실행 (.3977)	건학이념 (.3390)	건학이념 (.4134)	민족주의 (.1535)
공동체 (.2085)	기독교교육 (.2176)	시기 (.1717)	의미 (.3501)	종교 (.3356)	의미 (.4006)	신앙 (.1535)
구성원 (.2024)	문제 (.2082)	대안학교 (.1464)	사립학교 (.3445)	사립학교법 (.3287)	교육성과 (.3717)	설립 (.1447)
과정 (.1656)	실천 (.1987)	특징 (.1464)	과정 (.3277)	적극적 (.3082)	교사 (.3653)	독립 (.1359)
참여 (.1656)	교육과정 (.1892)	사업 (.1464)	필요 (.3249)	교육정책 (.2910)	필요 (.3365)	건학이념 (.1315)

‘공동체’ 요소에서는 대안학교(.3312), 질적연구(.3067), 경험(.2944), 교육성과(.2699), 관계(.2576) 등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대안학교-질적연구-교육성과-학생, 대안학교-경험-관계, 대안학교-공동체의 연결 링크가 두껍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키워드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중 ‘질적연구’와 ‘경험’, ‘심층’ 등의 키워드는 공동체 요소에 관한 대안학교의 공적 역할이 실제 학교 구성원들의 실증적 경험을 통해 탐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립학교는 이 부분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취약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신뢰’, ‘상호존중’의 키워드는 대안학교의 ‘공동체’ 요소 측면에 대한 공적 역할 수행 결과와 관계한다.

이어 ‘공적 신앙’ 요소에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교사교육(.2586), 민족주의(.2523), 종교교과(.2492), 학생(.2365), 과정(.223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종교교과-교사교육, 종교교과-변화, 종교교과-기독교교육-교사, 교사-문제의 연결 링크가 두껍게 나타났다. 공적 자아와 공적 감각 형성에 관심을 두는 기독교 학교의 ‘공적 신앙’ 요소에 관한 연구 관심이 종교 교과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교 교과의 역할이 단순한 신앙교육을 넘어 공적 영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할 책임이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민족주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공적 신앙으로서 학생들의 공적 감각으로서 민족주의 정신을 형성하게 했다는 측면을 조명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정’, ‘실천’, ‘변화’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공적 신앙’ 요소는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 단지 정신적, 감각적 측면을 넘어 구체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회균등’ 요소에서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키워드는 운영(.2626), 사립학교(.2373), 일제강점기(.2373), 문제(.2323), 교사교육(.1717)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운영-특징, 운영-사립학교-일제강점기, 운영-문제, 문제-영향, 문제-관계의 연결 링크가 두껍게 나타났다. ‘기회균등’ 요소와 관련한 기독교 학교의 공적 역할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사립학교로 설립된 기독교 학교가 그 운영에 있어서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그 특징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결 링크가 두껍지는 않지만 ‘대안학교’와 ‘과정’ 등이 ‘기회균등’ 요소를 구성하는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교육 기회가 보편화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탈북청소년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으로서 ‘기회균등’ 요소에 관한 대안학교의 공적 역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화’ 요소에서는 교사(.4593), 대안학교(.4341), 학생(.4229), 다양화(.4201), 교육성과(.4145) 등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고, 교사-대안학교-교육성과, 교사-학생의 연결 링크가 비교적 굵고 밀



접하게 나타났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으로 공교육 개혁 실현이라는 공적 역할의 측면은 ‘대안학교’에서 두드러지게 실행되고 있으며, ‘기독교적 가르침’과 그 ‘실천’의 측면에서 ‘교육성과’를 살피고 드러내는 데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 역시 연결중심성 상위 10개 키워드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시각화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건학이념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그 역할이 크게 조명되지 않거나 소극적인 상황임을 시사하며, 이는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김지수(2010: 98)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사회통합’ 요소에서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키워드는 사립학교(.3938), 문제(.3801), 개정교육과정(.3458), 대응(.3458), 자율성(.3458)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사립학교-사립학교법, 사립학교-개정교육과정, 사립학교, 자율성, 개정교육과정-사립학교법의 연결 링크가 두껍게 나타났다. ‘사회통합’ 요소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건학이념을 토대로 한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방법을 탐색하기보다는 이를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담론이 이 요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성’ 키워드가 ‘사회통합’ 요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공공성’을 ‘사회통합’ 요소 관련 주제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통’ 요소에서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갖는 키워드는 사립학교(.4679), 학생(.4679), 문화(.4391), 신앙(.4391), 영향(.439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사립학교-학생-건학이념, 문화-영향-신앙의 연결 링크가 비교적 두껍게 나타났다. 기독교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역할로서의 소통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이 관련 논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통’ 요소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 키워드와 더불어 ‘신앙’ 키워드가 같은 연결중심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에서 ‘소통’ 요소가 변화하는 문화를 토대로 추구되어야 하면서도 신앙 및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에서 그 방향과 중심을 잡는 것의 균형적 노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독교 학교에서 관심을 두는 소통의 대상이 사립학교와 연결된 학생이라는 점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고려하고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대안학교의 개방적 소통 등에는 아직 그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평화’ 요소에서는 실천(.2280), 의미(.2105), 항일운동(.2061), 학생(.1973), 관심(.1578) 등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키워드는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연결 링크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구성된 모습을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항일운동-실천-학생, 항일운동-민족주의, 항일운동-설립, 항일운동-독립, 항일운동-교육사의 연결 링크가 비교적 두껍게 나타났

다. 이는 기독교 학교에서 정의 추구의 경향성과 실천성을 계발하는 샬롬 추구로서의 공적 역할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에 치우쳐 있음을 드러낸다. 즉, 오늘날의 상황에서 과거의 민족의식을 넘어 새로 추구되어야 할 샬롬의 비전에 따른 역할에 대한 탐구는 매우 미미하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 공공성 관점에서 기독교 학교 연구 동향의 특징과 그의 미를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 관련 논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기별 기독교 학교, 그중에서도 사립학교와 관련한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기별 기독교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들 예컨대 2000년대 중반 개방형 이사제와 사학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쟁점이 된 종교학 교과 교육과정, 2020년대 교원 임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고교평준화 등이 시기별 연구주제 및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등장논문 빈도수 자체는 사립학교와 대안학교 간 차이가 비교적 근소함에도 정책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시기별 연구 네트워크가 더 긴밀하게 구성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율성, 사립학교법, 종교교과, 신앙, 건학이념 등 학교 운영에 외적으로 관여하는 키워드들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 교육성과, 학생, 교육과정 등 학교의 내적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대안학교와 대조를 이루었다.

둘째, 교육 공공성 요소별 기초동향 분석 결과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는 ‘기회균등’, ‘사회통합’과 같이 일반적인 교육 공공성 논의에서 강조되는 내용 요소를 다루는 것 외에 ‘소통’, ‘공적 신앙’, ‘다양화’, ‘공동체’, ‘정의와 평화’ 요소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과 관심이 두루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기존에 기독교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 공공성 개념을 공(公)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바라볼 때는 간과되어온 부분이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장되는 ‘다양화’, ‘공적 신앙’, ‘공동체’, ‘정의와 평화’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사회통합’이나 ‘기회균등’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공공성은 나름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정의되는 특성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 시기별, 교육 공공성 요소별 키워드 분석 결과 기독교 학교 관련 연구의 키워드들은 일반 교육 정책 및 학교들과 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부족하며 그 관심이 다소 분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개 키워드 간 각종 중심성 지표들의 값이 낮게 나타난 것은 기독교 학교 연구가 지난 약 20여 년간 하나의 응집된 중심구조보다는 다양한 주제로 흩어진 구조를 형성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과 같은 키워드는 기독교 학교 연구자들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국가 교육 정책이라는 공론장에 공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질적연구’, ‘교사교육’, ‘공동체’, ‘학부모’ 등과 같이 일반적인 학교 교육 연구에서도 자주 관심을 기울이는 키워드들은 그 빈도수 면에서 적게 나타나거나 대안학교 맥락의 논의에 한정되어 있었다.

넷째, 교육 공공성 요소별 중심성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 공공성의 내용 중 ‘기회균등’, ‘정의와 평화’ 요소는 그 빈도수도 적고 현재보다 과거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에 더 많이 할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근대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공적 감각 형성을 도모하며 항일운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실천한 측면을 조명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학교의 ‘기회균등’ 역할로서 우리 사회의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한 활동을 조명하거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세계시민 의식 개발의 필요성,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평화 역량 확립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어오기는 했으나 소수에 그치고 있고, 특히 사회 참여로서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한 공적 역할에 대한 조명은 더 부족한 편이다.

다섯째, 교육 공공성 요소별 중심성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 ‘사회통합’, ‘소통’, ‘공적 신앙’ 요소는 오늘날 사립학교가 맞닥뜨린 법적·제도적 갈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향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들 요소에서 사립학교의 현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사립학교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공공성이 ‘사회통합’, ‘소통’, ‘공적 신앙’과 관계된 역할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적 신앙’ 요소에서 종교교과가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종교교과가 신앙교육을 넘어 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을 포괄한 공적 영역의 기능을 하는 방안으로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통’ 요소에서 사립학교-학생-문화 키워드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교육 공공성 요소별 중심성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요소는 ‘다양화’이며 이는 대안학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

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공동체를 통한 관계 경험 등이 대안학교에 집중되어 조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안학교 연구에서 많이 다뤄진 ‘공동체’ 요소는 주로 ‘질적연구’를 통해 그 구체적인 특성이 탐구되었다. 그러나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성 역할이나 공동체 기여 역할은 사립학교에서도 요구되는 점(김지수, 2010: 98)을 고려할 때 실제로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종교 교과 교육 운영 외에 두드러지게 주목하여 나타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교육 공공성과 관련한 기독교 학교 연구 방향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학교 연구는 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구 키워드의 확장뿐 아니라 연구 방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이후 국내외 교육계는 OECD 교육 2030 및 UNESCO 교육의 미래에서 제시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과 관련된 사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데 비해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는 이들에 관한 키워드가 일부에서만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공공성 키워드가 이러한 맥락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는 대안학교와 주로 연결되어 나타난 ‘질적연구’가 유일한데 약 28편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기독교 구성원들의 인식 또는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일부 외에 대부분 신학, 선교학, 역사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 연구들이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학교 연구가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발전시키는 큰 구조를 형성해왔다면, 앞으로는 사립학교와 대안학교를 연계하고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도 더 다양하게 확장하여 공적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 연구 결과를 더 내실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사립학교의 ‘다양화’ 및 ‘공동체’ 요소와 관련한 역할이 더 가치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종교교과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 간 상호존중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공적 신앙 형성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그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는 것은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종교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다는 그 자체 외에 다른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김지수, 2010: 98)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학교의 혁신적 교육과정도 개발 및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 요소 역시 주로 대안학교에서만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에서도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실천되어야 하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법적·제도적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수호하려는 노력의 대응 논리를 넘어서 오히려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공교

육 개혁에 일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대안학교도 교육 공공성이라는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박상진, 2013: 417)하에 이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공동체 경험 그 자체가 ‘공적 신앙’과 ‘기회균등’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교육 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대안학교를 통해 나타난 구성원들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공공선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공적 언어로 그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 학교가 자율성을 통해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측면(박상진, 2013: 429-430)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라 기독교 대안학교 역시 ‘공공의 장’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종철·김지혜, 2024: 109-110)을 고려할 때 ‘대안성’을 강조한 공적 소통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기독교 학교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각종 사회적 현상들 안에서 ‘정의와 평화’ 요소를 주제로 다루는 데 대한 관심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기독교 학교 연구자들이 오늘날 교사와 학생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빈곤, 인종차별, 장애, 동성애 등 사회적 정의와 관련한 문제를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인식, 갈등, 긴장 등을 다양하게 탐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방향이 될 것이다(Bachrach, 2015: 19 ; Baker, 1999: 3 ; Bankston, 2015: 121 ; Cox, 2017: 74). 이런 맥락에서 국내 기독교 학교를 둘러싼 다원적 가치들의 도전을 살피고, 이들에 대해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이 샬롬의 비전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라는 교육 공공성 요소를 교육과정 안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조명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영택 (2013). 기독교학교의 사명과 공공성. **신앙과 학문**, 18(4), 7-31.
- 김도일 (2022). 기독교의 공공성과 마을목회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종교교육학연구**, 70, 167-183.
- 김명운 역 (2014). **광장에 선 기독교**. Volf, M. (2011). *A Public Faith*. 서울 : IVP.
- 김영철·이수광·조용순·이하나·김태훈 (2015).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학교 정체성 제고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지수 (2010). 자율형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 **교육비평**, 27, 94-118.
- 김효숙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독교교육논총」 연구 동향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8, 147-176.
- 나병현 (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29(2), 549-571.
- 박상진 (2012). 공교육제도 내에서 기독교학교의 방향. **장신논단**, 44(4), 317-344.
- 박상진 (2013). 기독교대안학교의 공공성 연구. **교회와 신학**, 78, 406-435.
- 박은주 (2021). **한나 아렌트, 교육의 위기를 말한다**. 고양: (주)빈빈책방.
- 박치성·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성병창 (2007).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과 정립 원리. **초등교육연구**, 20(3), 229-24.
- 신국원 역 (2021). **다원주의들과 지평들**. Mouw, R. J. & Griffioen, S. (1993). *Pluralisms and Horizons*. 서울 : IVP.
- 신영순·이민경·이현민 역 (2014). **shalom을 위한 교육**.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서울: SFC.
- 신차균 (2006). 학교교육의 공공성, 공교육, 그리고 학생의 이익 고려. **교육논집**, 26(2), 67-93.
- 신현석·이주영 (2020). 교육공공성 연구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 **교육정치학연구**, 27(3), 129-163.
- 안현수 (2023).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평가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92, 121-155.
- 양정실·서영석·강경숙·정광훈·김경애 (2018). **미래 유·초·중등교육의 방향 설정 연구**. 이슈페이퍼. 한국교육개발원.
- 윤선인 역 (2020). **스콜라стик 교육, 학교를 변론하다**. Masschelein, J. & Simons, M. (2012). *In Defense of the School. A Public Issue*. 서울: 도서출판 살림터.
- 이연승·박건령 (2022). 빈도분석 및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장애유아통합교육 해외연구 동향분석:



- 2001~2022년 논문을 기준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4(4), 28-57.
- 이영희·윤지현·홍섭근·임재일·백병부 (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127-153.
- 이윤미 (2001). 공교육의 역사성과 교육의 공공성 문제. **교육비평**, 6, 12-31.
- 이종태 (2006).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 33(3), 3-29.
- 이종태 역 (200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Parker, J. P.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서울: IVP.
- 이종철·김지혜 (2024).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신앙과 학문**, 29(1), 89-113.
- 이진호 (2022).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본 학교교육의 의미: 공공성의 방점을 '공'(公, public)에서 '공'(共, common)으로. **교육철학연구**, 44(4), 203-224.
- 임은희 (2016). **공공성 관점에서 본 고등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장신근 (2014).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 공공신학적 관점과의 대화. **선교와 신학**, 33, 273-313.
- 정계숙·손환희·윤갑정 (2021). COVID-19로 경험한 학교와 교육공동체: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77-94.
- 정윤경 (2023). 전환시대, 미래교육의 방향 탐색: OECD2030과 유네스코2050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1(4), 1-22.
- 조남옥·조규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연구」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탐색. **상담학연구**, 18(2), 1-19.
- 조윤정·배정현·권순정·박대식·윤선인·임고운 (2023).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과제**. 기본연구 2023-2. 경기도교육연구원.
- 조은식 (2023). 사립학교법 논쟁점과 기독교사학의 대처 방안 연구. **장신논단**, 55(1), 181-208.
-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Wolterstor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서울: IVP.
- Biesta, G., Heugh, K., Cervinkova, H., Rasiński, L., Osborne, S., Forde, D., Wrench, A., Carter, J., Säfström, C. A., Soong, H., O'Keeffe, S., Paige, K., Rigney, L., O'Toole, L., Hattam, R., Peters, M. A. & Tesar, M. (2022). Philosophy of education in a new key: Publicness, social justice, and education; a South-North convers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54(8), 1216-1233.
- Biesta, G. & Säfström, C. A. (Ed.) (2023). *The New Publicness of Education: Democratic*



- Possibilities After the Critique of Neo-Liberalism*. NY: Routledge.
- Bachrach, T. (2015). Open the door of Christian education to all students: A call for Christian school reform. *Justice, Spirituality & Education Journal*, 2015(2015), 3.
- Baker, N. D. (1999). *Negotiating Christianity and culture: Evangelical Christian teachers' perceptions of race, critical knowledge, and social justice in urban Christian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Bankston, C. (2015). Addressing poverty issues in Christian schools: Teachers' perspectives.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24(2), 101-124.
- Cox, M. R. (2017). Racism and Shalom. in Lee, H. & Kaak, P. (Ed.) (2017). *The Pedagogy of Shalom*. Singapore: Springer.
- 국민일보 2022. 5. 12일자. “개정 사립학교법 이것이 문제! 대처 방향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9749> (검색일 2024. 2. 29)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4. 02. 16)
- Dictionay.com. <https://www.dictionay.com/browse/publicness> (검색일 2024. 02. 16)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독교 학교 국내연구 동향 분석: 교육 공공성 요소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Christian Schools in Korea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the Elements of Educational Publicness

임고운 (국립한밭대학교)

### 논문초록

이 연구는 교육 공공성을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국내 기독교 학교 연구 동향을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교육 공공성 실천을 위한 기독교 학교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3년도까지 발표된 기독교 학교 관련 KCI 등재 학술논문 145편을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기독교 학교와 관련한 교육 공공성 내용 요소 7개와 4개의 연구 시기를 준거로 설정하여 기초동향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논문의 제목, 주제어, 초록을 중심으로 총 649개의 데이터 전처리를 거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네트워크 시각화 및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학교 연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립학교와 관련한 시기별 국가 교육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학교 연구는 일반적인 교육 공공성뿐 아니라 기독교적 교육 공공성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두루 다루고 있으며, 후자의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학교 연구의 키워드들은 다루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그 네트워크가 분산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 '기회균등' 및 '정의와 평화' 요소는 적게 다루어지면서 현재보다 과거의 역할과 가치를 탐색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다섯째, 기독교 학교 연구에서 '사회통합'과 '소통', '공적 신앙' 요소는 주로 사립학교와 관련한 정책의 대응적 접근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여섯째, 기독교 학교 연구가 가장 관심을 둔 교육 공공성 요소는 '다양화'이며 이는 주로 대안학교 연구에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교육 공공성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교육 공공성, 기독교 학교, 연구 동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



#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 개발\*

## A Development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Church Educational Programs for Cultivating Daily Spirituality

김보경 (Bokyeong Kim)\*\*

### ABSTRACT

As the spread of online worship has accumulated experiences of public worship in daily life, interest in living out daily spirituality by practicing the Word in daily life has increased among believe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spirituality and the uniqueness of church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practitioners of spiritual education by suggesting church program design principles that can foster daily spirituality.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church education programs for cultivating daily spirituality should emphasize the continuity of education based on formative educational principles. Rather than lectures by external experts, participants should be encouraged to read printed texts and commit to practicing together as a community. Additionally, utilizing role models or cases within the church can continuously challenge individuals within the community. Moreover, elements such as prayer, praise, and meditation should be placed not only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rogram but also at appropriate intervals to allow participants to intuitively experience the presence and voice of God. Daily spirituality should reflect not only individual introspection but also practical aspects of daily life, including one's family, workplace, church, and social community. Applying these five principles, programs for forming daily habits for Christian parents and solving daily problem for Christian young adults were developed, and insights gained through their operation are presented.

**Key words:** daily spirituality, church education, program design principles, practice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31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2023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교육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설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산성교회 대전 & 세종의 김효성 목사님과 김도현 목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bokim@jj.ac.kr

## 1. 서론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의 성장으로 설교, 간증, 메시지가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말의 홍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흘러 다니게 하는 액체 사회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Davis, 2022). 그러나 영성은 내가 받을 딴고 있는 지금 이곳 일상에서 훈련되어야 하며, 들은 말씀이 일상의 물리적 행위로 번역될 때 영성은 비로소 함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주로 강조할 뿐 성도의 일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도를 개인의 구원과 내면세계로만 지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뉴노멀이 되자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적 삶의 터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반복적 일상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일상 영성에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2020)는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 가장 많은 이들(24.3%)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 전환’에 응답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성경 속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개인의 일상에 주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 내는 연역적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text)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성도의 일상의 다양한 맥락(context)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말씀(text)으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형상 자체인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이다.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영성을 관계를 맺는 능력의 측면에서 설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다(Holmes, 1982 ; Thompson, 1995 ; Lartey, 1997). 이들은 영성을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존재하며 창조와 혁신을 통해 자신을 세계에 노출시키며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보았다. 여기서 전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의 관계 맺기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 거하며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특히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라는 형식적 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반면에 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자신을 세계에 표현하고 재창조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과 이웃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며 좀 더 능동적 관계를 맺는 영성이다. 자신의 삶

의 다양한 영역들, 특별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공간인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선한 행위로 관계를 맺는다.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 안에서 형식적 예배에서 배운 관계 맺기를 연습하게 된다(Warren, 2016). 그리고 이러한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일상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운전하고, 일하고, 대화하는 모든 세밀한 일들이 주일에 드리는 형식적 예배를 삶으로 연장시키는 연습이 될 수 있다.

이는 특별하고 신비적인 방식이 아닌 매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로 나타나는 영성 생활이다. 최창국(2019)은 인간은 모두 영적 잠재성을 지니며 영적 경험이 종교적 개념뿐만 아니라 보편적 일상에서도 체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영적 체험의 장으로서 일상의 차원을 간과할 때 영적 게토주의(spiritual ghettoism)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영적 게토주의란 영적 성장을 종교적 차원이나 신비한 경험에만 국한 시킬 뿐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부정한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는 오히려 물질만능주의, 기능주의, 이기주의, 허무주의 등에 빠질 수 있다(최창국, 2019: 223). 영적 게토주의가 심해지면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주변인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고립되기도 한다. 인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영성은 건전한 영성으로 보기 힘들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의 일상 영성 교육은 학교나 사회에서 제공되는 여타 교육과 달라야 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통합성이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정체성 통합, 영성과 인성의 통합, 교회의 안과 밖의 통합이 중요하다. 교육적으로는 영역 간 통합을 통한 전인성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며(Bloom et al., 1956), 그동안 학교나 사회교육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학습 즉,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Anderson & Krathwohl, 2001)를 중심으로 실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이 인지적 영역 학습의 대부분을 해내고 있으며 그 성능에서도 인간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심동적 영역의 학습 즉, 지각, 태세, 반응, 기계화, 복합 반응, 적응, 독창성(Simpson, 1972)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상당 부분 기계가 해내고 있다. 반면에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학습은 아직까지 기계학습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을 영역별 또는 수행의 수준별로 구분하여 설계하며 이를 하나씩 기술로 대체해 나가고 있지만, 인간의 발달과 학습은 영역과 수행을 통합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른 섬세한 통합이 강조될 때 비로소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 특별히 성도의 일상이라는 맥락에서 영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통합성을 강조한 교육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식을 전달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죄와 타락의 관점에서 이해해 내고, 성경에 근거한 해결안을 실행해 나가

는 실천적이고 활동적인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근육을 움직여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성도는 자신의 영, 혼, 육이 긴밀하게 작동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되는 다수의 교육들이 대체로 참여 성도의 수동적인 듣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메시지와 간증 사례들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이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러지는 공적 예배의 특성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김난예, 2015 ; 김보경, 2019). 그러나 교육의 목표가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지속일 때 이러한 강의나 강연 중심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도나 학습자의 일상적 삶을 다루고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원리를 제시하여 영성 교육 실행가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영성 형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일상 영성 형성의 특징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한다. 대체로 의식주와 관련하여 인간 생존을 위한 단순한 일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단순하고 단편적인 일들이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고 연결되어 개인의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먹고, 잠자고, 대화하고 운전하는 일들은 습관으로 형성되어 의식적 노력이 적게 드는 단순하고 쉬운 일들이지만 이런 일상적 행위들이 누적되면서 개인이 누군가와 구별 지어지는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Nye와 Hay(1996)에 의하면 영성이란 ‘도덕적 민감성’과 ‘신과의 신비적 일치’ 사이의 스펙트럼 중 어느 한 곳에 놓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정신, 2002: 55에서 재인용). 교육에서 양극단의 영성을 다루어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간 어느 즈음에서 일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포착하여 일상 영성



형성을 도울 수는 있다. 그러므로 일상 영성 형성이란 반복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존재 양식을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게, 영적으로는 절대자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영성을 종교 안에서 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기에 영성 탐구가 신적 관점에서 교리를 세우고,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탐구하는 연역적 접근을 주로 해왔으며, 그로 인해 영성의 일상성과 역동성에는 무관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일상이 예배의 공간이 되면서 이제는 인간의 삶에서 일상 영성을 탐구하는 귀납적 탐구 방법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유해룡, 2011: 20-22).

기독교의 일상 영성이란 마틴 루터의 ‘만민제사장(das allgemeine Priesterum)’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일상 영성은 경건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을 거쳐 현재 20세기 평신도 운동까지 이르며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일상 영성 형성에 대해서는 폴 스티븐스(Paul Stevens)의 생활 영성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에서 진정한 신학은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며 평신도의 삶 전체는 이 실천의 장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생활 영성의 영역을 노동의 영성, 가정생활의 영성, 이성 관계의 영성, 형제 관계의 영성, 홀로 있음의 영성, 이웃 관계의 영성, 안식일의 영성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신도가 각 영역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선하고 가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Stevens, 1996).

Loyola(1991)는 영성을 훈련하는 영적 실천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가장 먼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찰하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방식을 포기하는 결단하기로 제안하였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일의 삶에서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새벽기도, QT, 말씀 암송, 영성 일기, 미디어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등이 그것이다(오슬기, 2021). 그러나 영성 일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력들은 교회 밖의 삶에서도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하고 자주 기도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 보인다. Loyola(1991)가 제시한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언행과 잘못된 삶의 방식 등에 대한 성찰은 한국교회 영성 훈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높으며 성도 각자가 알아서 훈련해야 하는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일상 영성 형성은 일상의 반복성과 영성의 통합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반복적·지속적, 규범적·실천적, 개별적·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일상 영성 형성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우리의 일상 중 상당 부분은 반복적이다.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고, 퇴근하고 휴식한 후, 다시 잠에 든다. 이러한 반복적인 루틴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

인이 8시간 수면을 하고, 세 끼 식사에 2시간을 사용한다면, 잠과 식사에만 인생의 약 40%를 사용하게 된다. 반복된 일상도 평생에 걸쳐 지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정체성, 'identity'라는 말은 실재를 의미하는 라틴어 'essentitas'와 반복을 의미하는 'identidem'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란 '반복된 실재'를 의미하게 된다. 일상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일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들이라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일상 영성 형성을 위한 노력이 다른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상 영성 형성은 규범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이다. 영성에서 규범이란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며 실천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Stevens(2001: 302)는 모든 이론에는 암시적으로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도 암시적으로 이론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혹은 사회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신학적 성찰을 하는 것이 신학적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과 실천을 통해 일상을 다시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귀납적 접근의 상호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성이 부족하면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도덕적으로 나약하고 절제력이 부족하여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아크라시아(akrasia)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일상에서 개인의 성장과 자기개발 목표에만 집중하여 기독교의 가치와 규범을 개인적 욕망을 위해 사용하며 실천할 수도 있다(김보경, 2019). 그러므로 일상 영성은 말씀과 삶, 텍스트와 콘텍스트, 율법과 행위, 도덕적 신념과 자기 성장 사이를 연역과 귀납의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오갈 때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Nye와 Hay(1996)가 말한 도덕적 민감성과 신과의 신비적 일치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 고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황에 맞게 영성의 스펙트럼을 유연하게 오가며 영적인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

셋째, 일상 영성 형성은 개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기독교적 영성의 함양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므로 매우 개인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일상적 행위를 실천하는 동기와 실천하는 장은 대체로 공동체와 관련이 깊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 또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모방(mimesis)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본 받으라'는 말로 자주 등장한다(고전 4:16, 11:1; 엡 5:1; 빌 3:17). 최근 청소년의 40%가 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가정, 학교, 사회 등 청소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모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개인의 의지만으로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일상 영성의 형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좀 더 수월하게 형성될 수 있다.

## 2. 습관 형성, 정체성, 일상 영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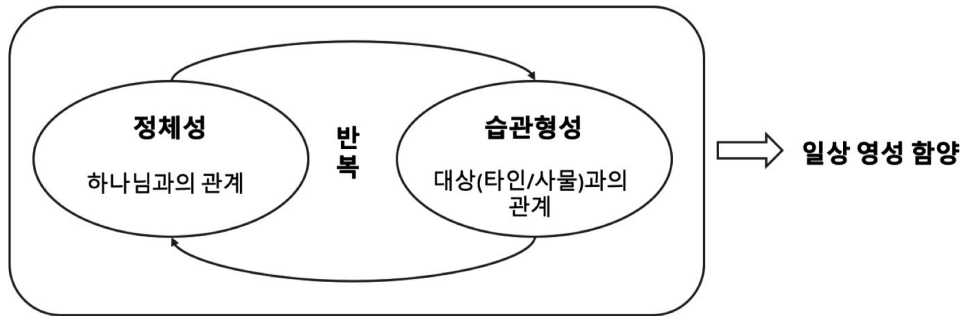
습관을 형성하는 일은 상당한 자기조절능력을 필요로 한다. 학습연구 영역에서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SRL)이론의 주요 구인들과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습관 형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구인 중 목표지향성, 초동기가 있다. 목표지향성의 경우 자신의 유능감 과시와 타인과의 경쟁에 초점을 두는 수행목표지향과 과제 자체의 숙달과 이해의 증진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학습목표지향으로 구분되는데, 수행목표지향 학습자보다는 학습 목표지향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체중감량, 성적향상, 금연, 금주, 기도, 성경 읽기 등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목표는 결과 중심의 수행목표지향성을 유도한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식단과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는 과정, 공부를 통해 이해가 증진되는 과정,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 삶이 거룩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자기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습관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초동기(meta-motivation)는 자신의 동기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와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습관 형성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때 초동기는 동기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에너지를 주입하고 행동하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박성호, 2004). 그러나 초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수행이 낮았다. 이들은 자신의 동기 상태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행에 제한된 자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동기화될 때 자기 보호적인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패-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Covington, 1984).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정체성의 변화를 급진적으로 겪으면서 나타나는 감동과 감흥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우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하는 도덕적, 의지적 실천에는 상대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못 받게 되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의 학습목표지향성이나 초동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습관 형성을 돕는 방법으로 정체성 전략이 있다. 정체성은 자신을 스스로 누구인지 규정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보인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순간적이며 급진적으로 보인다. 반면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 년간 가르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장면이 있다(행 11:26). 이는 정체성 형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

다. 전자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방식이며 후자는 자신과 이웃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이해와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삶에서 실천과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즉 영성이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처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실천이 있을 때 정체성이라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측면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체성의 개념이 ‘반복된 실재’라고 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신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부여된 자신의 정체성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습관 형성은 영성 교육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 실천의 누적은 일상 습관으로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정체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체성 가지는 습관 형성의 효율적인 도구이다(Clear, 2019). 정호범(2014)은 행동 실천과 습관 형성을 위한 교수방법 중 하나로 동일시를 통한 내면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또한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일로 볼 수 있다. 정체성이 형성되면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의 특징은 무의식중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일을 하는 데에 정신적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일상 영성도 삶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게 된다.



[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Habit Formation, and Daily Spirituality

### 3. 교회 교육의 특수성

교회 교육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과는 교육의 목적, 사고방식, 성찰과 실천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교회 교육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양육과 성화를 지향한다. 과거 학교 교육에서 지식 전달식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문제해결학습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능력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교육은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최은순, 2016: 66). 인간은 기계처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으로는 살아가기

엔 어려움이 많다. 일상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 실천적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실천적 지식이란 관조나 사유의 대상인 절대적이고 보편적 지식과 달리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영혼 및 이성의 작용을 다루고 있다(한수민·임병노, 2016: 868).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한다면, 로봇이 인간의 운동기능을 수행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수행하게 되면서 육과 혼 영역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는 육과 혼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 육과 혼 그 자체는 아니다. 또한 영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며, 영, 혼, 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나 기능적으로는 하나로 작용(functional holism)한다(송인규, 2002). 영, 혼, 육이 함께 작용할 때 인간의 영성이 함양되고 성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 전체성은 기술로 구현해 낼 수 없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에서는 인간의 영, 혼, 육의 전체성을 다루어야 하며, 이것은 일시적인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과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교회 교육은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의 성화를 돕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 교육은 직관과 직관적 사고에 수용적이다. 직관이란 외부로부터 온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안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다. 직관은 인간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영역에서는 논리 또는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김보경, 2018: 40). 직관의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여 교육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다루기 어려웠지만,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직관의 속성들인 도전, 정서, 비이성, 감각, 찰나 등은 최근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의 속성과 유사하다(김보경, 2018 ; 박준형·송진웅, 2017 ; Bastick, 1982 ; Bruner, 1960)는 점은 교육에서 직관적 사고에 대해 수용하기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오슬기, 2021: 7), 일반 교육과 달리 교회 교육에서는 직관을 도입하여 성도가 일상의 삶에 대해 통찰하고 창조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직관은 무의식 또는 전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직관은 초월 심리학적 의미로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인 계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배시은 외, 2015: 186). 교회 교육에서는 외부 지식을 가르치고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 안에 이미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것을 직관을 통해 끌어내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셋째, 교회 교육은 말씀에 근거한 자아 성찰과 실천을 강조한다. 교회 교육은 교육의 목적, 대상, 특성에 따라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 교육은 성경이라는 하나의 주 교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는 글로 표현된 말씀이 있고, 모든 교육은 말씀에서 나와 확산된 후 다시 그



곳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자신을 조율해 보는 지적인 자아 성찰과 회개를 통해 일상을 말씀에 근거해 재해석하고 다르게 경험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신학에 대한 실천적 접근으로 19세기 술라이어마허에 의해 교회 현장과 실천(praxis)의 중요성이 잠시 인식되었으나 이내 관심이 사라졌고, 21세기에 들어서야 삶의 현장에 무관심했던 보수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실천지향적 신학 교육과정과 신학교육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순성, 2016: 10).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존재 양식이 성도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대안적 개념의 형성이나 운동이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교육 실천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 교육의 추상성과 피상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영성에 기초한 도덕적 인격 형성과 성화를 돕기 어려운 실정이다(김보경, 2019: 171).

이외에도 교회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다양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의 이질성이 높으며, 자발적 참여가 대부분이나 객관적 평가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참여도나 이수율도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이 교회 교육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교회 교육에서 세 가지 특징은 일반 교육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상당한 강점으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 III. 프로그램 설계 원리

일상 영성 형성의 특성과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형성적 교육관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즉,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이벤트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교육은 형성적(formative)인 것으로, 지속적 자기 성화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은 일회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하여 완성하지만, 일상 영성 함양과 성화의 과정은 완성이 없다. 어느 때라도 잘못된 형성이 생겼다면 교육에 다시 참여하여 잘못 습득된 일상의 습관을 버리도록 대항 형성적(counterformative) 실천을 연습할 수 있는(Smith, 2016)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영성 회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영성의 회복은 인간의 파편화, 내면의 목마름, 인간

성 상실과 인간소외 등 교육의 많은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김정신, 2002: 54 ; 유재봉, 2013: 98).

형성적 교육은 실천을 담보로 할 때 가능하다. 실천적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달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교정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한 일상의 무형식적 학습의 형태를 띠므로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암묵적 방식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문성숙, 2012: 35). 그러므로 일상 영성 함양에 관한 교육은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실천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영성 함양 프로그램은 성도 스스로 일상의 영성을 함양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신의 타락한 모습이 인식될 때,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발견될 때, 영성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매주 드리는 예배와 같이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천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

## 2. 참여자의 텍스트 음독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교육하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유명세나 호소력이 있어 매력적인 강사를 초빙한다. 아마도 강의하는 구술 언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내부에서 나오는 구두 발성의 역동적인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전숙경, 2017) 가급적 그 분야의 전문성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매력적인 권위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시지는 메신저에 따라 파급되는 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보다 메신저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외부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구술 언어 중심의 강의는 강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메신저의 힘도 종료되기 때문에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구술 언어와 달리 문자와 글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교육이 종료되어도 인쇄된 글은 남아있다. 최근에는 매체를 활용해 듣는 성경도 상당히 보편화되었지만, 인쇄된 성경의 글자를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 읽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성경이나 도덕적 규범 등은 인쇄된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를 내어 읽고 다시 그 소리를 귀로 듣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의 지속성과 화자의 실천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 행위를 reading이 아닌 listening이라고 여긴다(Kent, 2010). 성경의 텍스트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한 글자, 한 단어를 깊이 읽게 읽으며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철회하는 조율된 경청(attuned listening)을 한다(Holzer & Kent, 2014).

일상 영성 형성의 규범은 권위가 있고 검증이 된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교회 교육의 주교재인 성경과 일상 영성에 대한 세계관 관련 서적의 텍스트, 일상에 필요한 교양서적, 시사적인 이슈들을 텍스트로 제공하고 이것을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강독, 낭독, 윤독을 포함시켜 청각적



자극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공동체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이를 삶에 실천하겠다는 일종의 공동체적 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교회 내 롤 모델 또는 사례의 활용

일상 영성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 실현되므로 눈으로 보여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 때문에 일상 영성을 함양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롤 모델을 보여주고 모방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는 롤 모델의 독특한 경험을 전해 듣고 그것을 성경이라는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여 이해해 보는 경험을 통해 도전을 받는다. 일상 영성은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외부보다는 가급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롤 모델과 그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상 영성의 육화(肉化)적 속성은 곧 그 일상을 행하는 사람, 그 인격으로 타인에게 경험된다. 그러므로 롤 모델의 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이웃 중 한 발짝 앞서 실천한 사례를 찾는 것이 좋다. 외부에서 초빙된 유명 강사의 사례는 순간적 감동과 도전은 얻을 수 있으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시각적 자극이나 신호를 얻거나 모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기도, 찬양, 묵상의 재배열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 내부의 성령이 지금, 여기에 주는 생생한 계시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글을 읽거나 타인의 언어적 자극을 수용할 때는 주로 외부의 정보를 수용하면서 논리적이고 의식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무의식적 선택, 직관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상 영성 함양은 눈을 감고 잠재의식으로부터 무엇인가가 꺼내어지는(intuition) 경험들이 삶의 곳곳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기도, 찬양, 묵상은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는 풀(pull)형 교육이며, 설교나 강연 듣기, 글 읽기는 푸쉬(push)형 교육이다(Jones,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회 교육에서 기도, 찬양, 묵상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교회 교육만의 독특한 구성 요소이자 힘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서 밖으로 꺼내는 활동들을 준비 찬양, 마무리 기도 등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의 도입부나 마지막 정리 단계에만 배치하여 교육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신호(signal) 또는 의식(ritual)으로만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 교회 교부들은 하루에 세 차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김경은, 2023). 그러나 현대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예배의 마무리 의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많은 예배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는 말이 빈

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가 보다 적합하다. 주기도문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주기도문은 예배나 일상에서 무시로 드러져야 할 기도이다.

자신과 하나님, 이웃, 사회와의 관계에서 해내어야 할 일들에 대한 순간적 직관과 통찰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영성이 한 단계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을 일상 영성 함양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만 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간에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음성을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할 때 들은 말씀이 일상으로 실행되는 힘이 더 강력해진다.

## 5. 개인적 습관 형성과 공동체적 실천

일상에서 이루어진 삶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의 형태를 띤다. 믿음과 경건의 삶은 개별성을 띠지만,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같이 실천하고 성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에서 공동체적 실천을 잘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의 개인 기복 신앙 위에 기독교가 전파된 까닭이다. 이에 대한 각성으로 기독교의 복과 사적 욕망의 실현을 위한 기복 신앙적 기독교가 다름을 알리고 교육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사적 종교,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 살로모 제믈러(Johann Salomo Semler)의 사적 종교의 개념에서는 기독교가 사적인 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이성덕, 2022에서 재인용).

최근 기독교세계관의 재구성 운동으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칼빈주의를 재해석하여 제시한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를 들 수 있다. 그는 성도에게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회구조를 서로 협력하여 바꿀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상원, 2017). 그러므로 일상 영성을 다루는 교회 교육에서는 개인의 내면세계 질서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실천면에서는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공동체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교회 교육에서 주어진 과제로는 개인기도, 중보기도, 성경 읽기, 말씀 암송, 성경 필사, 영성 일기 등 개인적 경건 생활에 필요한 과업으로 실천 과제라기보다는 개인 학습 과제의 성격이 크다.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적 경건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웃, 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실천이 이어져야 영성은 더욱 함양된다. 예컨대, 어려움을 당한 회사 동료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가

족이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미디어 금식하기, 교회 공동체가 매일 저녁 탄소중립 식단 실천하기, 지역에서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의 전시회 함께 방문하기 등을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실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개인 학습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실천 과제의 성격이 더 크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 실행되는데, 실천 후에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따른 것인지, 도덕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 옳은지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귀납적 성찰과 나눔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천적 지식은 개인적·공동체적 삶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윤리적 규범과 원리가 공유되는 대화공동체 속에서 형성해야 하기(최명선, 1998: 502) 때문이다.

#### IV. 프로그램 개발 사례

일상 영성 형성의 특성과 교회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설계 원리로 형성적 교육관, 참여자들의 텍스트 음독, 교회 내 롤 모델 및 사례 활용, 기도, 찬양 및 묵상의 재배치, 개인적 습관 형성과 공동체적 실천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실제 교회 교육에서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독교 부모 일상 습관 형성 프로그램(Hug+)과 기독교 청년 일상 문제 해결 프로그램(5R+)을 개발하였다. 이 두 프로그램은 D시의 S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타 영성 함양 프로그램과 달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주제들을 다루며, 각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도록 도와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Hug+의 경우 5회기를 진행하였고, 5R+은 3회기를 진행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부모의 일상 습관 형성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자녀를 둔 기독교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일상의 습관 행동들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부모 교육이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본 프로그램은 자녀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적 행위 즉, 언어, 가정예배, 미디어사용, 공부, 건강관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각 행위를 하는 기독교 부모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 실천하게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매 회기 20명 이내의 부모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습관 형성을 통해 일상 영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Table 1>과 같이 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각 주제를 실천하는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상의 행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일상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주제에는 담당 목회자가 10~15분 분량의 짧은 설교를 제공하여 각 습관의 성경적 의미를 성경말씀을 통해 규명하도록 하였다. 그 외 모든 순서에는 설교나 강의가 없으며 참여자들이 글을 읽고, 나눔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읽을 자료는 각 주제별로 필요한 텍스트를 발췌하여 구성하였는데 성경 말씀 → 기독교 세계관 관련 서적 → 교양서적/ 칼럼으로 계열화하여 말씀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연역적 순서로 큐레이션 하였다. 또한 각 텍스트는 참여자들이 낭독 또는 운동하도록 하였다. 읽고 난 후에는 질문을 제시하여 글(text)과 자신이 처한 맥락(context)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눔을 하도록 하였다.

<Table 1> Contents of a Daily Habit Formation Program for Christian Parents

주제	정체성	주요 텍스트	사례
오늘부터 가정예배	가정의 제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린도전서 3:16-17, 요 4:21-24</li> <li>오늘부터 가정예배(도널드 휘트니)</li> <li>삶을 변화시키는 가정예배를 위한 5가지 습관(정병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대가 드리는 가정예배 장로님 가정</li> </ul>
평화의 언어습관	화평케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엡 4:29, 31, 32</li> <li>오늘이라는 예배(티시 해리슨 워런)</li> <li>비폭력 대화(마셜 B. 로젠버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딸과 엄마의 대화</li> </ul>
다스림의 미디어 습관	다스리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 4:7</li> <li>영성의 깊은 샘(제럴드 시처)</li> <li>미디어는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나(전숙경)</li> <li>정리하는 뇌(대니얼 J. 리베틴)</li> <li>디지털 미니멀리즘(칼 뉴포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중독 자녀 사례</li> </ul>
창조질서를 발견하는 공부습관	창조질서의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 1: 26-28, 잠 1:7, 히 4:12</li> <li>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양승훈)</li> <li>네 질문이 뭐니?(하브루타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실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대학생 사례</li> </ul>
쓰시기 합당하게 건강습관	단련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모데후서 2:20-21</li> <li>내 몸 사용안내서(게리 토마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식단으로 체중 감량과 영적 민감성을 회복한 권사 사례</li> </ul>

각 습관을 실천하는 과제는 자신의 일상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스스로 도출하도록 하였고, 일상에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기록한 시각적 상징물을 제공하여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5기까지 운영되었으며, 매 기수마다 참여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정 주제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키었고, 운영방식도 참여자들의 특징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모두 부부인 경우에는 가정의 일상에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 주차에 가정예배를 배치하고 언어 습관, 미디어 습관, 건강 습관, 공부 습관 등의 주제는 가정예배와 연계하여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모든 주제에서 롤 모델과 사례(실패 사례 포함)를 제공하였는데, 롤 모델과 사례는 모두 교회 내 성도들 중에서 발굴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가정예배 주제의 롤 모델로는 3대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 내 은퇴 장로님을 초청하여 사례 발표를 들었다. 그 외에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 주말 부부의 가정예배를 사례를 영상 또는 글로 공유하였다. 한 주간 실천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간단한 글을 작성하도록 워크북에 양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실천의 과정을 참여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도록 하고 댓글을 통해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2>에는 앞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설계 원리가 본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제시하였다.

<Table 2> Applications of Design Principles of a Daily Habit Formation Program for Christian Parents

설계 원리	기독교 부모의 일상 습관 형성 프로그램(Hug+)
형성적 교육관에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이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기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상의 주제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 필요할 때마다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li> <li>▶ 이미 수료한 부모들이 일부 다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실제로 반복 참여하고 있음</li> <li>▶ 스텝들 또한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며 훈련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임함</li> </ul>
참여자의 텍스트 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북을 웹 버전과 인쇄 버전으로 제작하고 참여자들에게 웹 버전 워크북의 링크와 인쇄된 워크북을 배부함</li> <li>▶ 프로그램 중에는 워크북의 텍스트를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함</li> <li>▶ 특히 자발적 나눔과 발표가 저조한 참여자들에게 텍스트를 읽게 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li> </ul>
교회 내 롤 모델 또는 사례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습관(언어, 미디어, 건강)을 성경적으로 형성한 사례 제공</li> <li>▶ 가정예배 사례 네 가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li> <li>- 다양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예배</li> <li>- 주말부부의 가정예배</li> <li>- 3대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li> </ul> </li> </ul>

<p>기도, 찬양, 묵상의 재배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도와 찬양을 세 번 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 찬양/기도</li> <li>- 중간 찬양/기도(휴식 이후)</li> <li>- 결단 및 마무리 찬양/기도</li> </ul> </li> <li>▶ 성경과 교양서적의 텍스트를 읽고 질문으로 묵상한 후 자신의 일상 습관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꺼내도록 함</li> </ul>
<p>개인적 습관 형성과 공동체적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목장 단위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아 목장이 일상영성 함양을 위한 실천공동체임을 강조함</li> </ul>

워크북을 인쇄물로 제공하다가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이 용이한 디지털 워크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공유 노트 플랫폼(Notion 사용)으로 작성하여 [Figure 2]와 같이 제공하였다. 워크북에서 제공되는 각종 텍스트 자료나 사례들이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제공되고, 매번 더 적절한 내용으로 보완하고 있다.



[Figure 2] Workbook of a Daily Habit Formation Program for Christian Parents(Web version)

## 2. 기독 청년 일상문제 해결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MZ세대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5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주로 외부 또는 내부 강의를 초청하여 강의중심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청년들의 일상 문제에 대한 성격적 해결에 대한 실천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5R+로 리뉴얼하였다.

기독교 청년으로서 독립을 했거나 독립을 준비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과업들인 직장문제, 재정문제, 결혼문제, 북한 문제를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각 영역에서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개별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 실천하게 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일, 돈, 결혼, 북한 등의 주제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일상의 문제이자 사회 문제 들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고 있거나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 기독교 청년들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R+는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설계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매 회기 20명 이내의 청년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청년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이슈를 성찰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해내고 실행을 결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Table 3>과 같이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 Contents of a Daily Problem Solving Program for Christian Young Adults

주제	주요 텍스트	사례	실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경제규모와 행복지수 통계(IMF, UN)</li> <li>답이 되는 기독교(팀 켈러)</li> <li>마 16:16-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미쉬 공동체</li> <li>오야마 레이저 목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단어, 성경 구절, 이미지 찾기</li> </ul>
일과 직장, 법벌이일 뿐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 전후 직업 가치관의 변화 관련 통계(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li> <li>청년의 시간: 부르심을 살아가는 오늘(폴 손)</li> <li>소명(오스 기니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즙기 판매왕에서 치과의사가 된 권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공동체적 소명 진술서 작성하기</li> <li>직장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대처하기</li> </ul>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OLO족과 FIRE 족의 공통점</li> <li>성경적 재물관(KOCW 한동대자료)</li> <li>돈의 속성(김승호)</li> <li>유일한 평전(조성기)</li> <li>마 6: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리스천의 주식 투자</li> <li>유일한 박사의 유언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재무(예산) 시스템 구축</li> <li>지혜로운 부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 1가지 실천하기</li> </ul>



결혼, 뭐가 맞는 거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건수 감소, 감소 이유 통계(통계청)</li> <li>• 결혼을 말하다(팀 켈러)</li> <li>• 고전 7:27-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예비학교 담당 사역자</li> <li>(성경적 독신 생활을 하는 집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 또는 독신의 관점 세우기</li> </ul>
북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의 갈등지수 통계(OECD)</li> <li>• 통일은 치유다(전우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원으로 떠나는 평화 기행</li> </ul>

모든 주제에서 강의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상당 분량의 읽기 자료가 제공되는데, 각 주제와 관련된 시사적인 통계자료 → 교양서적 → 기독교 세계관 서적 → 성경 말씀으로 계열화하여 삶에서 말씀으로 귀결되는 귀납적 방식으로 큐레이션하여 낭독 또는 윤독하도록 하였다. 읽고 난 후에는 질문을 제시하여 글과 자신이 처한 맥락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눔을 하도록 하였다. 각 영역에서 마주친 일상의 문제들이 실제로 세속적 세계관과 세속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학습에 의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 스스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고 성경적 해결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과 실천을 돕기 위해서 실천과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후속 시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대신에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과 실천적 결단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진행자의 기도를 듣는 것보다 기도문을 읽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Table 4>에는 앞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설계 원리가 본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제시하였다.

<Table 4> Applications of Design Principles of a Daily Problem Solving Program for Christian Young Adults

설계 원리	기독교청년 일상문제 해결 프로그램(5R+)
형성적 교육관에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이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기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상의 주제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 필요할 때마다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li> <li>▶ 이미 수료한 청년들이 일부 다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실제로 반복 참여하고 있음</li> </ul>
참여자의 텍스트 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북을 웹 버전과 인쇄 버전으로 제작하고 참여자들에게 웹 버전 워크북의 링크와 인쇄된 워크북을 배부함</li> <li>▶ 진행자가 많은 부분 워크북의 텍스트를 낭독하고 일부 중요한 부분만 참여자에게 읽도록 함</li> <li>▶ 매 주차 마무리 기도를 대표기도 형식이 아닌 기도문을 다함께 읽는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실천의 결단을 다짐</li> </ul>

교회 내 롤 모델 또는 사례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주제별로 롤 모델 또는 사례를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즙기 판매장에서 치과 의사로 된 권사 사례</li> <li>- 유한양행 창립자 유일한 박사 사례</li> <li>- 대학 기독교 동아리 활동, 청년부 간사 사역,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권사의 사례</li> </ul> </li> <li>▶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포함시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함</li> </ul>
기도, 찬양, 묵상의 재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과 교양서적의 텍스트를 읽고 질문으로 묵상한 후 자신의 일상 습관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꺼내도록 함</li> </ul>
개인적 습관 형성과 공동체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주간 실천한 것들을 인증하여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여 실천 공동체성을 높이고자 함</li> </ul>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5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위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리뉴얼한 후 5R+로 명칭을 수정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현재 1기를 마쳤다. 다만,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각 주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Table 3>에서 ()로 제시한 사례는 발굴하였지만 1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적절하고, 해당 주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서 활용할 예정이다. MZ세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워크북을 인쇄물뿐만 아니라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는 노트 플랫폼(Notion 사용)으로 작성하여 [Figure 3]과 같이 제공하였다. 워크북에서 각종 데이터나 사례들이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



[Figure 3] Workbook of a Daily Problem Solving Program for Christian Young Adults(Web version)

고, 매년 새로운 통계자료와 더 적절한 사례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워크북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상 영성 함양 교육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 영성이 형성되는 특징과 교회 교육의 특수성,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개발한 후, 이를 적용하여 개발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였다.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방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교육은 성화의 장이라는 형성적 교육관의 공유는 교육을 준비하는 스텝들과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강사 초빙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 내용, 자료, 운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토론하고 고민하였고, 참여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는 실천을 위한 교육은 각 회기를 이수하고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물론 일부는 두 회기 이상 참여한 이들도 있었으나 이는 주변인들의 권면 때문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 참여자 모집에서 일상 영성 형성의 형성적 접근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차기에는 형성적 교육관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이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참여자의 텍스트 음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참여자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이외에 자신의 일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을 읽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읽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읽을 자료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고 읽고 오도록 안내하지만, 교육 중에 윤독이나 낭독으로 같이 읽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매우 신선하게 느끼며, 주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눔에서 소극적인 참여자들에게 읽는 과업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일상에 대한 읽기 또는 말하기를 하도록 설계한 것은 참여도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셋째, 공동체 내 롤 모델과 사례 제공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가급적 교회 안의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사례를 발굴하였고,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오랜 시간 검증된 롤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가 그 예이다. 특히 일상의 실천을 영상이나 슬라이드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롤 모델을 모방하고 실천을 독려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장로 또는 권사 등의 사례 발표를 들은 후 서로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기도, 찬양, 묵상 등을 프로그램 중간에 배열해보고자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각 주제별로 시작과 마무리에 배치하는 기존 방식을 따르고, 프로그램 중간에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거나 중간 휴식 이후 프로그램을 재개할 때 진행자가 다시 기도하는 정도였다. 교회 교육에서 강의를 없애고 글을 읽는 등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의 계열화까지 바꾸는 것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담되어 다음에 적용해 볼 것으로 남겨두었다. 다만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므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형식을 다르게 운영하였다. 기독교부의 일상 습관 형성 프로그램에서는 각 주제별로 실천 과제를 스스로 정한 후에 기도를 진행하여 각자 한 주간 그 실천을 실행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기독교 청년 일상 문제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별로 다른 실천이 아니라 동일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기에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과 실천적 결단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다섯째, 개인적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은 각 주제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가정예배나 평화기행 등의 주제는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주제는 개인적 실천과 공동체의 실천이 유연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일상 영성의 경우 개인과 공동체가 같은 소명을 가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기독교인은 공동체적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개인의 사명을 얹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디지털 회화적으로 비유하여 공동체라는 배경 레이어에 개인이라는 투명한 레이어를 얹어 개인이 소명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의 소명도 보여 지고 드러나지는 것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성도의 일상 영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을 교회 교육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신도 중에서 신학적 소견이 있는 이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교회와 일상의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 영성에 관한 교육에서는 이러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평신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신학 대학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코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김경은 (2023). 일상기도로서의 주기도문 활용: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시대를 생각하며. **신학과 실천**, 83, 113-138.
- 김난예 (2015). 질문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3, 169-198.
- 김보경 (2018). 직관적 사고의 교육적 의의와 교수설계에의 시사점. **교육공학연구**, 34(2), 383-414.
- 김보경 (2019).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신앙과 학문**, 24(3), 163-197.
- 김순성 (2016). 실천지향적 신학교육을 위한 방법론 및 실천적 제언. **복음과 실천신학**, 38, 9-37.
- 김정신 (2002). 영성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5(1), 53-78.
- 문성숙 (2012). **성인학습에서 무형식 기제로서의 실천공동체성 분석: 문화관광해설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박세혁 역 (2018). **습관이 영성이다**. Smith, K. A. (2016).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서울: 비아토르.
- 박영민 역(1996).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Stevens, P. (1993).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Christian Living Seven Days a Week*. 서울: IVP.
- 박준형·송진웅 (2017).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사고의 특징-발현의 맥락 및 논리적 사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3), 523-537.
- 배시은·안윤경·김용태 (2015). 직관의 이해에 대한 확장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접근으로. **복음과 상담**, 23(2), 163-194.
- 백지윤 역 (2019). **오늘이라는 예배: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Warren, T. H. (2016). *Liturgy of the Ordinary*. 서울: IVP.
- 송인규 (2002). 이분설과 영육관계(2). **신학정론**, 20(1), 90-114.
- 신유희 역 (2022). **전념: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Davis, P. (2021). *Dedicated: The Case for Commitment in an Age of Infinite Browsing*. 서울: 상상스퀘어.
- 오슬기 (2021). **일상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오승민 역 (2021). **How People Learn: 러닝 이노베이션**. Jones, N. S. (2019). *How People Learn: Designing Education and Training that Works to Improve Performance*. 서울: 플랜비디자인.
- 유재봉 (2013). 교육에서의 영성회복: 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을 위한 시론. **교육철학연구**, 35(1), 97-117.
- 유해룡 (2011). **영성의 발자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상원 (2017). 개혁주의 신학에서 본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신학지남*, 84(2), 9-35
- 이성덕 (2022). 요한 잘로모 제믈러(Johann Salomo Semler)의 ‘사적종교’(Privatreigion)의 개념과 그 역사적 의미. *한국교회사학회지*, 62, 69-96.
- 이한이 역 (2019). **아주 작은 습관의 힘**. Clear, J. (2018). *Atomic Habits*. 서울: 비즈니스북스.
- 전숙경 (2017). **미디어는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호범 (2014). 행동실천과 습관형성을 위한 교수전략.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3), 115-132.
- 최명선 (1998). 지식과 교과. *교육과정연구*, 16(1), 493-516.
- 최창국 (2019). 영적 계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영성의 해석. *복음과 실천신학*, 53, 221-255.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0).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
- 한수민·임병노 (2016). 실천적 지식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32(4), 867-896.
- 홍병룡 역 (2001).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Stevens, P. (2000). *Abolition of the Laity*. 서울: IVP.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stick, T. (1982). *Intuition: How we think and act*. New York: Guilford Press.
- Bruner, J.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MA: Havard University Press.
- Ganss, G. E. (1991). *Ignatius of Loyola: Spiritual Exercises and Selected Works*. New York: Paulist Press.
- Holmes, U. T. (1982). *Spirituality for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 Row.
- Holzer, E. & Kent, O. (2014). *A Philosophy of Havruta-Understanding and Teaching the Art of Text Study in Pairs*. Bos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 Kent, O. (2010).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6(3), 215-245.
- Lartey, E. Y. (2003). *In Living Colour: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Pastoral Care and Counselling*. 2nd ed. London: New Yor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Thompson, M. J. (1995). *Soul Feast: An Invitation to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 개발

## A Development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of Church Educational Programs for Cultivating Daily Spirituality

김보경 (전주대학교)

### 논문초록

온라인 예배의 확산으로 성도들이 일상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일상 영성에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영성의 특징과 교회 교육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상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를 개발하여 영성 교육 실행가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형성적 교육관에 근거해서 교육의 지속성을 강조해야 하며, 외부 전문 강사의 강의보다는 인쇄된 텍스트를 참여자들이 낭독하여 실천하겠다는 공동체적 선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회 내 롤 모델 또는 사례의 활용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하고 기도와 찬양, 묵상을 프로그램 처음과 마지막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간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계시와 음성을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 영성은 개인의 내면세계 질서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실천면에서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공동체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기독교 부모 일상 습관 형성 프로그램과 기독교 청년 일상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운영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상 영성, 교회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 실천





##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봉사경험과 지원요구 탐색\*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ors  
and Social Workers Working in Disability Ministries in Churches

김기흥 (Ki Heung Kim)\*\*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ocial workers serving in a church department for the disabled. Accordingl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research subjects in Busan, Daegu, and Gyeongnam reg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7categories and 14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 subjects. In addition, two categories and four subcategories emerged from the research subjects' support need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wo discussion points were presented. First, the research subjects appeared to have limitations in demonstrating their expertise due to the church's environmental restrictions. Second, the church must establish a firm awareness and commitment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in its ministry to the disabled. In other words, a deep discussion is needed about the legitimacy of the church's ministry to the disable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ministry to the disabled, and the methods of ministering to the disabled.

**Key words:** church, department for the disabled, special education teacher, social worker

\* 2024년 5월 7일 접수, 6월 1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inkim@bnue.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인은 모든 나라와 시대에 있었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통합이 일어난 지는 긴 인류사 중에 겨우 반세기를 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장애아 살해는 용인되었고, 당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장애아 유기에 동의하였다. 또한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조차도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는 치료불가로 여기고 이들에 대한 의료행위에 반대하였다. 장애인들은 특히 신이 보낸 불운으로 보고 구타를 당하며 도시 밖으로 쫓겨났고, 이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때로는 살해의 대안으로 노예로 팔리거나 연시(年市)에 구경거리로 전시되었다. 또 장애인이 구걸할 때 많은 동정심과 수입을 위해 주인은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Mattner 2000: 32-35).

중세에도 장애아에 대한 살해, 학대 및 매매 행위는 합법적이었지만, 이웃사랑이라는 중심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빈자에 대한 구호활동이 시작되었다. 사실 교회가 장애인, 병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사회적으로 법적 조치나 복지실천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가 하나님의 형벌이나 귀신들린 자 등으로 이해하는 태도도 여전히 팽배했다. 루터(Luther)조차도 기형아는 사탄에 의해 대체된 ‘영혼 없는 육체 조각’이라 여겨 출생 후 살해를 옹호할 정도였다. 대부분 장애인들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고, 곡예단과 함께 돌아다니며 스스로 ‘비정상인’으로 보고, 주변으로부터는 ‘불구자’로 취급받았다(김기흥, 2020: 173-175).

중세에 질병과 장애는 귀신 들리거나 죄의 결과 등 종교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한 반면, 계몽주의는 이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합리적, 과학적 객관성과 사실성을 강조했으며, 치료나 교육을 위한 병원과 각종 시설이 설립되었다(Lena, 2008: 41-42).

19세기 산업화 시대는 도시화가 시작되어 대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가족 내의 보살핌이 더욱 어려워 많은 장애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였다. 그 중 전쟁 부상자는 보호 속에서 노동 시장에도 재통합되었지만, 일반 장애인들은 사회적 문제로 보고 교육, 노동, 의료혜택 등으로부터 제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 살기도 했다.

또 20세기 초기에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의 원인과 발달 특성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또 경제 호황으로 인해 국가는 성과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펼쳤고, 장애인을 돌보는 교회기관도 치료와 직업재활 업무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애아들이 처음으로 공교육에 참여 했지만, 비장애

아동과는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이때 독일에서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자조협회'를 결성하고, 1917년 정부는 차별적 용어인 '불구자'를 '지체장애자'로 대체하는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Christian & Udo, 2014: 48- 55).

한편 나치시대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이념 아래 장애(인)를 약점으로 간주하여 제거대상이 되었다. 장애인들은 강제 수용소, 병원과 시설 등에서 실험용으로 이용되어 19세기 말보다 훨씬 더 비참하였다. 결국 노동, 학습 및 치료 불가능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되었다(김기홍, 2020: 182-18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 장애인은 제외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장애인 자조단체나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어서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장애아동이 포함된 아동권리협약과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 차별과 불이익을 방지하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성경에서는 총 160여회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이계윤, 1996: 55-56). 성경은 장애인의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거나, 치유나 구원 및 사회 통합적인 삶에서 배제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장애를 차별이나 죄의 결과 등의 부정적인 시각(레 21: 16-23; 창 19:1; 삿 16:21 등)도 일부 있지만, 동시에 보호나 소망의 대상 혹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레 19: 14; 신 27:18; 사 35:5-6 등)로 보기도 한다. 신약성경은 기독교의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사상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치유와 보호 및 사랑(요 9:3; 막 9:23 등)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치유사역이 총 56곳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보인다(김기홍, 2023: 56).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핵심 세 영역은 전도, 교육 및 치유였으며, 가난과 질병과 배척의 중심에 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신 주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천상화, 2010: 14).

우리나라의 근대식 특수교육과 교회 내 장애인 교육은 1894년 의사였던 홀(R. S. Hall)여사와 1930년경 승동교회에 맹인부를 설치한 북장로교 소속의 코엔(Coen) 등 주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영락교회(1946년)의 농아부, 하나님의 성회(1960년) 소속의 에바다 농아교회, 남산침례교회(1967년)의 맹인부, 최초의 지체장애인 교회인 신망애 교회(1981년), 1984년 한국밀알선교단과 서울 소망교회의 소망부, 1992년 사랑의 교회의 사랑부, 1993년 명성교회의 소망부 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다(남현주, 2015: 20-25 ; 최대열, 2015: 10-15).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운영은 전체 38,249개 교회 중에 겨우 73개 교회(약 0.2%) 정도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매우 낮은 관심도를 알 수 있다(한창희, 2016: 41-43).

교회 장애인 부서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였으며, 또 모든 연구는 봉사하는 교사들의 전공(특수교육/장애인복지 등)과 비전공 집단 간 비교나 구분 없는 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결과들을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여건 등 환경면에서 여전히 열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먼저 장애인을 담당하는 교사의 의식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지도방법의 부족이며, 이는 비전공 그룹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김요섭, 2007: 174-176). 또한 임창덕(2007: 84-85)과 윤경일(2017: 58-59)의 연구에서도 현실적으로 교사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이해, 지식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지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부서에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 중 장애(인)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전공중인 교사집단, 교육 및 연수에 많이 참여한 집단이 효능감과 아울러 학부모와의 협력적 활동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함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기홍(2017: 59)의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통합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사랑이나 헌신, 열정 등 인간적 자질은 매우 좋다하더라도 (특수)교육적 또는 사회 복지적 소양과 역량 등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회 장애인 부서의 운영과 발전은 이들 전문가적인 자질 외에도 담임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차원의 관심과 지원, 물리적 환경 등 여러 요소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교육계의 오랜 전통적 격언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볼 때 교사로 봉사하는 자들의 역량과 자질은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본질적 목적 실현에 필수적인 기초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육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재직하며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는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장애인 부서 운영에 관한 경험과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학령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사와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교회 장애인 부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재직 중이며 동시에 교회 장애인부서에서 교사로서의 활동을 통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현재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재직 중이며 동시에 교회 장애인부서에서 교사로서 장애인부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지원 요구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대구, 경남 지역의 현직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이며, 교회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6명의 교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먼저 직업별로는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3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2명, 남성 4명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고, 주일학교 교사경력은 평균 8년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장애인 부서에 학령기 아동은 매우 소수이며, 성인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부서의 전체 교사 중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약 9%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의 성(姓)의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세)	경력(년)		지역·소속교회(교단) 교회규모/장애인 수/교사 수(명)
			교회 장애인부서	현 재직기관 (직종)	
교사 K	남	48	5	3(사회복지사)	대구 D교회(기타) 1,000/15/9
교사 L	남	57	6	11(사회복지사)	경남 J교회(성결) 1,500/14/8
교사 H	여	28	10	5(특수교사)	부산 P교회(고신) 7,000/47/23
교사 P	남	43	12	15(사회복지사)	대구 S교회(합동) 1,500/55/45
교사 G	여	41	8	12(특수교사)	부산 B교회(통합) 1,500/50/50
교사 C	남	40	6	3(특수교사)	부산 S교회(합동) 400/30/16

## 2. 면담 도구

본 연구는 현직 학교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로 있으며 동시에 주일학교 장애인 부서 교사들에게 개별적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면담지는 먼저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임창덕(2007: 76-83), 인식이나 태도에 관하여 알아본 김요섭(2007: 174-177), 윤경일(2017: 58-65) 및 김기홍(2017: 56-60) 등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비면담 질문지 작성은 관련 전공 교수 1명을 통해 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고, 또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부서 교사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면담을 통해 불분명한 문장이나 용어 등을 수정·보완 작업 후 반 구조화된 면담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Table 2. Content of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partial example)

Example detailed question 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사항(성별, 연령, 재직기관, 경력 등)</li> <li>• 어떻게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까?</li> <li>• 장애인부서 교사로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니까?</li> <li>• 현직 특수교사/사회복지사로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할 때 다른 교사에 비해 좋은점이 있다고 봅니까?</li> <li>• 장애인부서는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장애인부서 교사로 힘든 점이나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li> <li>• 장애인부서 교사로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li> </ul>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4년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5주에 걸쳐 개별적인 심층면담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조사 대상을 서로 추천하는 방법인 눈덩이 표본 추출(Snowball Sampling)방식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동의하는 자, 둘째, 현재 장애인부서의 교사이자 현직 특수교사 혹은 사회복지사인 자, 셋째, 장애인부서 교사나 현직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 경력이 각각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또 개별적인 심층면담은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연구주제나 방법, 시간, 목적 등에



대해 알려졌다. 또 연구 참여자들에 관한 개인 신분과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준수할 것을 전하였다. 그리고 면담 일정과 장소는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개별 면담을 실시할 때 전체적인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녹음이 되었다. 그 후 녹음된 파일은 면담 후 바로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개별적인 심층면담 시간은 전체 341분이었으며, 이는 연구대상자 1인당 평균 약 57분이었다. 그리고 심층면담 결과 총 분량은 A4용지(글자크기 11, 글꼴 신명조, 줄 간격 160, 자간 -10 등)로 약 58쪽 분량이었다.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전사본에는 면담일자, 면담 시간, 면담 장소 등이 표시되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면담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될 경우에는 면담 참여자의 각 성(姓)별로 영문 이니셜이 병기되었다.

이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개별면담 전사 자료는 아래 과정들을 통해 분석과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이종승, 2009: 421-423). 우선 녹음된 개별적인 면담내용은 최대한 원본(예, 사투리 등)에 따라서 전사 작업(transcription)을 진행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전사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주제별로 약호화(coding)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전사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정독을 통해 유사한 단어와 문장은 특정주제를 붙여 범주화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약호화의 세심한 반복적 읽기, 분석이나 추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는 주제별 유목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구체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개별면담 시간을 제공하였다. 둘째, 연구내용에 있어서 연구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전화 및 이 메일 등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확인하는 연구 참여자의 검토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전공 교수 1인의 검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첫째, 면담 실시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면담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공지하였다. 셋째, 개별 면담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면담 내용이나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할 것임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현직 특수교사이거나 사회복지사이면서 교회 장애인부서에 봉사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서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장애인부서 교사활동을 통한 경험은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 범주, 또 연구대상자들의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지원요구에서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대 주제	범주	하위범주
□ 장애인 부서 교사로서의 경험	□ 자발적 동기	• 현재 직업적 특성과 유사하여 자연히 교회 봉사로 연결
	□ 기피 부서	• 이미 직장에서 업무로 지쳐있음 • 장애인 부서의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큰 부담감/책임감을 느낌
	□ 자긍심·보람	• 예배를 좋아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며 변화를 보임 •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 지지와 격려를 받음 •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들음
	□ 전문(차별)성	•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서 한계를 느낌 • 교사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
	□ 존재 의미 (정체성)	• 예배나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함 • 교회 장애인 부서의 관심과 역할은 확대해야 함
	□ 현실적 장벽	• 장애인부서는 교회적 관심/지원에서 늘 뒷전임 •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 요원한 통합예배: 한 지봉 두 가족	• 통합교육에 대한 교회적 편견/무관심이 큼 • 의도적(계획)이 아닌 의례적 참여허용 수준
□ 장애인 부서 교사로서의 지원요구	□ 교회적 차원	•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구조적 환경개선이 급함
	□ 부서적 차원	• 장애인 부서에 젊은 교사가 많이 왔으면... • 바텀업(Bottom up)식의 변화 요구

## 1. 장애인 부서 교사로서의 경험

### (1) 자발적 동기

#### ① 현재 직업적 특성과 유사하여 자연스럽게 교회 봉사로 연결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들은 장애인부서에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공이나 현직에서의 역할과 특성이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짐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저 또한 저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특수교사라면 교회에서도 이 분야를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직업이 교회의 봉사로 이어진 거죠(연구 참여자, H).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공이 사회복지학과이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에는 직업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공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나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 뭔가 내가 직장과 그리고 교회일이 뭔가 같이 이어지는 느낌,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서... (연구 참여자, P).

### (2) 기피(忌避) 부서

#### ① 이미 직장에서 업무로 지쳐 있음

연구대상자들에 따르면, 사실 교회 내에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로 현직이 있는 교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들이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 선뜻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미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아이들을 봤는데, 주일에도 또 해야 하나?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수교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좀 지치고 하니까... (연구 참여자, H).

이미 직장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돌보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은 일이니까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많이 받고, 또 일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직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연구 참여자, P).

② 장애인 부서의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큰 부담감/책임감을 느낌

아울러 교회 내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부서의 봉사를 꺼리는 것에는 전문가로서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회복지사하면 여기서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여기서 아무래도 책임감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면 더 해야지 두 배 이상 더해야지... 결과를 더 내야 될 수도 있고...(연구 참여자, L).

주변 사람들은 특수교사하시네요! 사회복지하시네요! 그럼 그곳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런 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한편으로는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저도...(연구 참여자, C).

(3) 자긍심·보람

① 예배를 좋아하고 질문에 대답을 하며 변화를 보임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는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신앙적 행동의 변화를 보이거나 예배 중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할 때 나름대로의 긍지와 기쁨을 경험함을 강조하였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든지, 그리고 와서 굉장히 많이 웃고, 또 재미있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때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참여도를 보면...(연구 참여자, K).

애들이 특별히 변하는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변하는 모습도 보이고, 애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가끔 정답을 맞추기도 해요. 또 애들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작은 변화,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이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죠(연구 참여자, L).

②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음

이어서 장애인 부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또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제가 부서에서 율동교사로 섬기는데, 약 20분정도 하거든요. 율동이 생각보다 길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사들도 한 분도 소극적이지 않고, 일어나서 따라해 주세요. 협조적인 모습을 볼 때 아,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구나! 라고 느껴질 때, 보람을… (연구 참여자, H).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일에 수고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수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해주시는 것에도 힘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보람을 많아… (연구 참여자, C).

### ③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음

그 밖에도 성도들이나 부모들의 감사 표현은 장애인 부서의 교사들에게는 계속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한번은 사랑부에서 했던 성경퀴즈, 그런 것을 금요일배 때 제가 설교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설교를 들은 한 성도님이 성탄 선물을 사랑부에 주고 싶다고 200만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무기명으로… (연구 참여자, K).

한 어머니는 저희 이번에 교사 세미나 갈 때도 찬조하시고, 그냥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텃밭에서 기르시는 작물들도 좀 나눠주시고, 가끔 떡을 하셔서 떡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시고(연구 참여자, H).

## (4) 전문(차별)성

### ①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서 한계를 느낌

장애인 부서에서 자신이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짧은 예배 및 공과 공부 시간, 장애인교육을 단순히 생각하는 분위기 등 환경적인 한계로 인해 전문가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차별성을 많이 구현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뿐… 도전행동 발생 시에 저희가 한 번 해보자 하고 시도는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한계가… 예를 들어 학교 수업환경에서는 제가 주도할 수 있잖아요?(연구 참여자, H).

분반공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분반공부 시간에 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라든지, 이제 활동시간이기 때문에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같이 색칠을 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연구 참여자, K).

공과 공부나 이런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 묻는 경우는 드물고, 저는 아직 우리 부서 내에서 특강이나 교사교육을 한 시간은 아직 없었어요(연구 참여자, C).

## ② 교사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

또 교회 장애인 부서의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공과 공부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일부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사들은 공과공부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각자의 (특수)교육적 역량과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는 특수교사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좀... 공과공부 때 다른 선생님들은 따라 해봐라! 색칠해봐라! 이 정도면, 저는 발화가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이 읽어 볼 테니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자! 발화가 자발화가 안 되지만은 따라 읽기가 가능하다면 한 번 따라 읽어보자! 하고 이 정도는 발휘하고... (연구 참여자, H).

그래도 저희는 교수법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신앙 지식들도 있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새로 오시거나 초신자 분들은 이야기를 풀 거리가없어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죠. 각자 알아서 공과공부를 하는 편이죠. 선생님 각자에 달려있다고 보죠(연구 참여자, G).

## (5) 존재의미(정체성)

### ① 예배나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함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존재 이유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신앙적 성장을 돕는 일이라고 보았다.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봅니다. 이번 6월에 5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학습을 받는 것도 우리 교인들이 장애인이 받는 것을 처음 봤어요(연구 참여자, K).

## ② 교회 장애인 부서의 관심과 역할은 확대해야 함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교회 장애인 사역이 1주일에 한 번의 짧은 주일예배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영적인 면을 비롯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혹은 직업적인 측면으로까지 관심과 역할을 확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교회가 주일날만 믿음을 가르치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생각하죠. 장애인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케어하고 책임지려면 그냥 세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담임목사님이… (연구 참여자, K).

예배도 예배지만, 외부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 외에도 외부 활동이라든지, 토요학교처럼, 여건이 된다면 회원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나들이도 가고, 음악치료라든지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3명 정도를 장애인 직업시설에 취업을 시켜줬거든요. 그나마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 (연구 참여자, P).

## (6) 현실적 장벽

### ① 장애인부서는 교회적 관심/지원에서 늘 뒷전임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설치·운영되지만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난 나머지 내면적으로는 종종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부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나 지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고, 너무 적은 관심에 사랑부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었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드물죠(연구 참여자, H).

주일학교에서 가장 먼저 챙겨할 부서는 장애인 부서인데… 제일 소외되고 제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장소나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은 유년부나 유치부 부서들이 많이… 그나마 이렇게 조그마한 자리라도 감사하죠. 장애인 부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거죠(연구 참여자, P).



②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부서의 교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해심, 포용 등 장점도 있지만, 장애 특성과 교육적 이해 등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것도 감사한 게, 그래도 연륜이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만의 기도와 스킬이... 경험, 연륜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또 아이들 많이 키워 봤잖아요? 결석을 잘 안 하시고... 그렇게 장점인데, 절반은 젊은 집사님, 아니면 장립집사님 아니면, 대개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일반 주일학교에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아쉽죠(연구 참여자, P).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이론부분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들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애들이 가없다고 다 해주시고, 교사로 10년을 일했는데, 아직 아이 특성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좀... (연구 참여자 L).

(7) 요원한 통합예배: 한 지봉 두 가족

① 통합교육에 대한 교화적 편견/무관심이 큼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도들 간의 통합 예배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편견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례를 받은 지가 5, 6년 된 친구들이 한 번도 성찬식에 참여를 못한 것, 또 교회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할 때, 이 친구들은 20살 이상이니까 성인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 정교인 인데, 투표권에 대해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를 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L).

통합예배... 일 년에 한 번씩 비장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몇 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사랑부 아이들은 할 수 없을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연구 참여자, H).

② 의도적이기보다는 의례적 참여 '허용' 수준

또한 교회의 절기나 행사 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예배를 함께 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회가 (통합)교육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거나기보다는 해당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끼워주는' 형태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주일학교 다른 부서도 모두가 통합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자가 1년에 5-6번은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섞이지 않고, 각각 나누어서 앉아서, 사랑부는 사랑부대로 앉아 있는 형태로... (연구 참여자, G).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못하나? 해서 건의를 해서 몇 년 전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부도 하겠다 해서 했거든요. '우리도 성경암송 할 수 있다!' '우리부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해서... (연구 참여자 H).

## 2.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지원 요구

### (1) 교회적 차원

#### ① 담임 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은 교회 장애인 부서의 양적·질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담임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신학대학에 장애인과 관계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해야... 그러면 목사님들도 장애인에 대해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애인부서가 활성화 될 텐데...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배에 설교 중에 사랑부에 대해 거의 언급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부서의 가장 중요한 키(key)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연구 참여자, L).

장애인부서에 현직 특수교사나 전문가들이 좀 더 봉사하도록 하는 데는 아무래도 담임목사님의 인식이나 노력과 관심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광고해야하는데 교회가, 사실 담임목사님이 관심이 없으면 교회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연구 참여자, H).

#### ②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구조적 환경 개선이 급함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 목회자의 인식에 이어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등 실천적인 면의 개선을 촉구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장애인하고 같이 타면 대개 싫어하고, 나중에 타라고... 노골적으로, 약간 좀 천대하는 느낌... 지적 장애인들을 좀 비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교회 안

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장애인교육이 제일 안 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연구 참여자, K).

교회에서 장애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교회에서 뭘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잘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장소나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P).

## (2) 부서적 차원

### ① 장애인 부서에 젊은 교사들이 많이 왔으면...

장애인부서의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은 젊은 연령층의 교사가 더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데로 나이 든 교사들의 풍부한 자녀 양육경험, 포용력과 젊은 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인식과 이해력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장애인부서가 젊어요. 젊으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사로 봉사자로 많이 와서 또래 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면... 또 아이들을 케어하다보면 교사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연구 참여자, L).

선생님들이 다 각자 알아서 공과공부는 각자에 달려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20년 이렇게 되셨으니까, 높으시고 중간에 또 들어오신 50대, 60대도 많으시고(연구 참여자, H).

### ② 버팀업(Bottom up)식의 변화 요구

장애인 부서의 현직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교회 내 장애인 사역의 개선을 위해 소위 하향식(top down)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전문성과 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필연성을 이해시키고 요구하는 선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이 부서에 대해 잘 모르는 면이 많고... 좀 더 뭔가 장애인 부서가 드러나고, 저희들이 더 해야 하고 저희들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목소리를 좀 내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밖으로 알리고, 더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연구 참여자, C).

여러 교회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주일로 이렇게 드러지고 하더라! 우리도 이 주에는 특송을 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4월 20일 근접한 주일에는 특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동자인 셈이죠(연구 참여자, H).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교회 장애인 부서의 교사로 봉사하는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경험은 자발적 동기, 기피부서, 자긍심·보람, 전문(차별)성, 존재의 미(정체성), 현실적 장벽, 요원한 통합예배(한 지붕 두 가족)이며,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지원요구는 교회적 차원과 부서의 차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주요 논의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인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부서에서의 교사를 현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사와 소명감으로 알고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환경적 제한성으로 인해 이들의 역량과 자질 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어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의 ‘부수적’인 특별한 부서로 보는 장애인부에 대한 인식은 다른 주일학교와는 달리 장애 특성상 소통 등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렵고, 힘든’ 것으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어 있다. 아울러 장애인 부서의 교육은 매우 단순하여 교사로서 특별한 교육적 소양이 요구되지 않는 부서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박명우, 2012: 39, 69-74 ; 김용구, 2014: 71). 이와 같은 장애인부서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먼저 교사지원기피 현상을 일으키고, 또한 ‘젊고 유능한’ 교사들보다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은 교사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계속하여 장애인 부서의 교육과 복지적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적, 양적 정체나 침체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담임 목회자 등 교회적인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주원인(김종복, 2005 ; 오영환, 2007: 50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106-109 ; 김성원·허계형, 2017: 148-149)으로도 작용함을 알고, 이에 대한 교회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장애인부서 설치율은 겨우 0.5% 미만(박명우, 2012: 36 ; 한창희, 2016: 41-43)으로 여전히 턱없이 낮은데, 이는 오늘날 교회가 장애인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으로 일

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일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철저한 성경적 성찰과 실천의지가 선제되어야 한다. 즉, ‘왜 교회는 장애인사역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장애인사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장애인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먼저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신구약 성경은 매우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평등의 대상(레19:9-10 ; 요13:34-35 등)으로 여길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지상사역은 전도, 교육 및 치유로서 수많은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 영적, 신체적, 사회적 회복을 통하여 전인적 치유사역을 행하셨다(김기홍, 2023: 59-64). 더군다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상이요 장차 천국 백성(마4:23 ; 눅14:12-24 등)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으로 언급하시고,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출4:10-11 ; 요9:1-3 등)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전지혜, 2014: 256-257). 이러한 성경적인 올바른 인간(장애인)관의 확고한 정립은 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장애인 사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요소이자 출발점인 것이다(윤경일, 2017: 9-15 ; 박응규, 2020: 76-78).

이어서 교회의 장애인 사역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세속적인 기관들과는 달리 장애인을 위한 교회의 주 사역은 영적 구원의 문제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결국 인류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영혼 구원 등의 영적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제, 치유, 직업적 재활, 사회적 통합, 인식 개선, 여가 활동 등 전(全)생애적인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계윤, 2007: 11-12, 19 ; 박명우, 2011: 73-74 ; 김용구, 2014: 71-76).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장애 치유사역 과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즉 이들이 신체적 질병과 장애만 아니라, 영적, 심리·정서적, 사회 통합적인 측면 등을 포함한 온전한 회복, 즉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는 이를 위하여 올바른 인식과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김기홍, 2023: 59-64).

또한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구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사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재 및 교구, 편의시설 및 공간,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이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이미 많은 선행연구(윤경일, 2017: 59-61 ; 이보영, 2018: 46-49 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특히 교사의 교육적, 복지적 영역에서 전문적 자질과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장애인 부서 내에서 교수-학습,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선교사역 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고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교회 장애인 사역의 필연성과 관련해서는 신학, 학령기 및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 등의 장애인 사역의 내용과 방법 정립에 있어서 초학문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박명우, 2011: 69-71). 또한 여기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장애인 사역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진 담임목회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경남 및 대구 지역의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각 3명씩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지역적, 연구 참여자의 수적인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향후 연구는 교회 장애인 부서가 설치된 다양한 지역과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수교육전공자로서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사역의 전문가 집단으로 보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는 신학, 특수교육학 및 사회복지학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초학문적 관점에서 연구자로서 참여하여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를 연구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FGI)를 통해 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운영 목적, 방법, 내용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김기흥 (2017).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신앙과 학문**, 22(4), 35-67.
- 김기흥 (2020).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집문당.
- 김기흥 (2023). 사복음서 속 예수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신앙과 학문**, 28(2), 51-71.
- 김성원·허계형 (2017). 장애통합 사역 지원 요소에 대한 예비 목회자들의 인식. **개혁논총**, 43, 127-155.
- 김요섭 (2007). 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6, 157-180.
- 김용구 (2014). **장애인의 교회교육 접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종복 (2005). **현대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대회 발표 자료.
- 남현주 (2015). **교회학교 장애인부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박명우 (2012). **한국 개신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응규 (2020). 한국교회의 장애인 사역과 사회참여. **장로교회와 신학**, 16, 53-78.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0), 97-126.
- 오영환 (2007). **장애인의 통합예배 참여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윤경일 (2017). **교회장애인부 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이계윤 (1996).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안양: 한국특수요육연구소 출판부.
- 이계윤 (2007). 한국교회 장애인사역의 현황과 중장기적 과제. **교회와 사회복지**, vol. 5, 7-29
- 이보영 (2018). **ADHD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의 지식과 대처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종승 (2009).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임창덕 (2007). **교회학교 장애인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교회 장애인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전지혜 (2014).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화와 한국 장애인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34, 239-267.
- 천상화 (2010).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통합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최대열 (2015). **성서, 장애 그리고 신학**. 서울: 나눔사.
- 한창희 (2016). **발달장애인 가족의 목회적 돌봄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Christian, M. & Udo, S. (2014): *Behinderung. Chronik eines Jahrhundert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Lena, K. (2008): *Die 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im mittelalterlichen Europa*. München: GRIN Verlag.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Stuttgart: Kohlhammer.

#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로서의 봉사경험과 지원요구 탐색

## Exploring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Current Special Educators and Social Workers Working in Disability Ministries in Churches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교회 장애인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현직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 대구 및 경남 지역의 연구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에서는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지원요구에서는 2개의 범주와 4개의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교회의 여러 환경적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는 장애인 사역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확고한 성경적인 인식과 실천의지를 정립하여야 한다. 즉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당위성, 장애인 사역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장애인 사역의 방법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기독교회, 장애인 부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A Qualitative Study of the Closing Experiences of Christian Childcare Center Directors

김성원 (Sung-Won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field by identifying the meaning the calling as an educator among Christian directors who have experienced the closure of a childcare center. To reach this goal, eight Christian directors who had closed their childcare centers within five years at the time of interview were interviewed and their meaning of pedagogy and closure were analyzed. Their operat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were to support young children's healthy minds and bodies, build their healthy character, and raise children to be dreamers in God. The directors also laid out principles for the teachers to behave like teachers and not complain about the center or the directors. The participants' unique programs included Christian education practices,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 simultaneous English, Bibl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iving fees for families experiencing financial hardship, and practice of warm care. These practices have resulted in parental approval, salvation of unbelievers, filling the shortage of children, and visits from alumni. Reasons cited for closure included financial difficulties in management, reports of child abuse, a context that was not childcare or Christian education in nature, failure to relocate the center due to redevelopment, rent increases, and difficulties in evaluation targeting the director of two childcare centers. After closing, the directors' career paths included wanting to run a daycare center for the elderly, moving to a horticultural therapist, becoming a salaried director, and downsizing from two childcare centers to one,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31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충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sungwon1331@gmail.com

while some experienced the limitations of age. Meanings of closure included experiencing God's care, discipline, and blessings, discovering a new calling, discipline to follow God's lead, and res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proposes social attention to the closure of childcare centers,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tests for the directors, and transferability to jobs related to their career as a childcare directors.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Christian institutions provide education about suffering and programs for overcoming different types of suffering.

**Key words:** Christian faith, childcare center director, childcare center closures, interview

## I. 서론

최근 줄이온 어린이집의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장 및 부모의 사연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2013년에 43,770개소이던 어린이집이 2022년 말에 30,923개소로 줄었다. 상황을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은 14,751개소에서 9,726개소로, 가정어린이집은 23,632개소에서 12,109개소로 대폭 줄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332개소에서 5,801개소로, 직장어린이집은 619개소에서 1,291개소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인데, 10년간 폐원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93.3%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가정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공립과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의 공공어린이집이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23. 2. 22).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관해서 저출산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나(경향신문, 2023. 11. 29 ; 머니투데이, 2023. 5. 8), 재정 문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등의 법령위반, 임대차계약 만료,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 다양한 부차적인 원인도 존재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5).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 운영자인 원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나 부모들 역시 새 어린이집을 구하는 역할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약화된 보육 인프라는 저출생 심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3. 11. 29 ; KBS 뉴스, 2023. 2. 24). 지자체는 어린이집 폐원 대안에 해당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유지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 9). 서울시에서는 2024년부터 '동행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제도는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실천이다(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3. 11. 29).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1990년도 1,919개소에서 시작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영유아보호법 제정 및 개정, 평가인증제 도입, 표준보육과정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질적 개선 또한 이루었다. 초기 보육은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 부재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전윤숙, 201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다양한 가정 유형이 나타나면서 보육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국가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노경숙 외, 2023 ; 전윤숙, 2016). 시대적 변화

와 함께 발전한 어린이집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민간 시설을 활용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체인 동시에 공익적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영유아보육, 보수교육,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급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의 다양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성격도 갖는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3).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로(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역할을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024: 62).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은 현장에서 국가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설립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 실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교사 관리,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숙 외, 2023). 어린이집 원장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미지는 ‘다재다능’한(37.8%), ‘사랑, 온화함’(17.8%), ‘인내, 희생’(14.4%), ‘조율, 화합의’(12.2%)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수이기는 하나 ‘비난 대상’(5.6%), ‘방향 설정’(4.4%), ‘지역 협력’(3.3%), ‘불특정 잡무’(3.3%) ‘월급 조달’(2.2%)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표현되었다(전윤숙, 2016).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재다능’한, ‘불특정 잡무’, ‘멀티플레이어의 역할’ 등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어린이집이 기능하도록 하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폐원 위기에 대한 두려움, 이직과 퇴직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협조적인 교사로 인한 갈등,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는 부모와의 갈등,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의 다툼, 수시로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미, 2023).

다양한 업무와 갈등을 경험하는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기독교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과 소명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동참하라는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에는 사역, 직업, 역할, 일, 재능 등이 포함된다(Stevens, 2018: 49-50). 이 중 직업에 대해 Berg는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환경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직업은 영적 전쟁의 배경이 된다. 셋째, 직업은 인간 번성을 위한 환경이다. 하나님은 소명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 자유, 안전, 번영을 제공하시는데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인간은 번성할 수 있다(2020: 8-9). Stevens는 소명의 발견뿐 아니라 지킴을 강조했던 청교도인 Perkins를 인용하며 그가 제안했던 소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

해야 한다. 둘째, 그릇된 이유를 가지고 소명에 접근한다면 돌이켜야 한다. 셋째, 사람과 일 두 가지 모두 성화 되기를 바라야 한다. 넷째, 자신의 특정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기 위해 일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다섯째,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열망함으로써 애정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도 계속 소명을 유지해야 한다(2018: 62-63). 요약하면, 기독교인의 직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이루는 방편으로 직업 수행 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직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의 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특별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립, 2022). 실직을 경험한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상태와 월평균 가구 소득, 실업 횟수, 취업 관련 자격증, 가족 지지로 나타났다(조성순·정소희, 2023). 20년 전의 IMF 경제 위기가 개인과 가구에 끼친 영향을 생애사적 접근으로 살핀 연구에서 경제위기 상황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신속한 적응을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불안정, 주변화 경험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었다. 20년 전에 경험한 경제위기는 개인과 가족에게 실패, 시도와 적응이 혼재된 불안정한 삶의 출발점이었고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외, 2019). 선행연구의 결과는 실직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실직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는 실패와 불안정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영유아교육 분야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어린이집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의 이야기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의 역할과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측면에서 살피는 차별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 ‘어린이집 폐원’과 ‘어린이집 폐쇄’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유재언(2015)의 연구물 한 편이 검색되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연구는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한 특수성과 연구대상(참여자)의 제한성을 갖기에 수월하지 않은 영역임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울러 저명한 신학자인 Volf는 일의 본질적 중요성과 새로운 정보 사회에서 일의 위기에 반응할 필요로 인해 ‘일의 신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의 신학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의 성격과 역할뿐 아니라 개인이 일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 118, 83). 선행연구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연구의 현실과 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Volf의 제안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



의 운영 및 폐원 경험 그리고 신앙에 기초한 직업적 소명에 관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기초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 및 의미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교육관 및 폐원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연구참여자 8명을 면담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세평적 사례 선정(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폐원 경험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독교인이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48세에서 65세였으며 폐원의 원인은 무리한 임대료 인상부터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어려움까지 다양했다. 연구참여자 및 폐원 어린이집에 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폐원 어린이집 정보

구분	연령	경력	직분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규모	지역	폐원 이유	폐원 시기
연구참여자 1	65세	14년	권사	가정	20명	인천	코로나 및 구도시화로 인한 원아모집의 어려움	2021
연구참여자 2	57세	26년	사모	민간	51명	김포	재개발로 인한 이전의 어려움	2022
연구참여자 3	56세	20년	집사	가정	20명	서울	아동학대 신고, 운영의 어려움	2022
연구참여자 4	55세	20년	사모	민간	74명	산본	기독교교육 실천과 운영의 어려움	2020
연구참여자 5	54세	22년	권사	민간	36명	의정부	인터넷 카페에 비방 글 게시	2017
연구참여자 6	53세	17년	집사	가정	20명	용인	국공립 신설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2022
연구참여자 7	51세	16년	집사	가정	13명	평택	2개소 운영자를 타켓으로 한 평가	2021
연구참여자 8	48세	22년	집사	가정	20명	서울	무리한 월세 인상	2019

## 2. 자료 수집

면담 시작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의도와 목적, 연구참여자의 역할 그리고 연구 진행 과정 등에 관한 안내를 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연구 제목, 목적, 방법, 연구 참여의 이익 및 불이익, 개인정보 및 면담 내용의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성을 기록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여 동의를 받았다. 면담 시간은 57분에서 2시간 14분까지로, 연구 참여자 4, 6, 8과는 2회 그리고 나머지 연구참여자와는 1회 만나 면담 내용을 녹음하면서 진행하였고, 전사한 자료는 A4 용지 95매 분량이였다. 전사 과정에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하여 확인받았다.

연구자는 경험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폐원 자체에 관한 질문 외에 개인적 배경 및 교육 철학과 운영 경험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소개, 어린이집 운영의 배경, 어린이집 운영 철학 또는 원리, 운영 시 특별한 경험, 폐원 경험(원인, 과정, 결과), 폐원 이후 경험(해석, 어려움 극복 방법, 직업 재기)과 진로에 관한 바람이나 기도제목 등이 그 내용이다.

## 3. 자료 분석

면담과 전사 과정을 마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분석의 방법으로, 이 방법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표시 및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 코딩,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으로 분류하는 범주화 그리고 구성된 범주를 코딩 전 원자료와 비교하는 범주 확인 및 수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유기웅 외, 2018: 327-328).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한 경험과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둘째, 반복적 읽기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셋째, 유사 경험 및 의미의 자료를 모아 범주화하고 범주명을 부여하였다. 넷째, 범주가 상충 또는 중복되는 경우 범주를 재배열하거나 결합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주 생성을 통해 어린이집 폐원 경험 및 원장으로서의 소명에 관한 의미를 주제별로 기술하였다. 초기 분석에서 61개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반복적 수정 과정을 통해 9개의 상위 범주와 36개의 하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연구에 참여한 원장들에게 범주와 기술된 내용을 회귀하여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동의를 요청함으로써 연구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4.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은 먼저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확보되었다. 연구자는 지난 10

년간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들이 재학하는 학과에서 전임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50명이 넘는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남다르게 신앙과 인성이 좋아 보이는 원장들도 교사 또는 부모와의 갈등, 민원, 운영난, 폐원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듣고 어린이집 폐원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말 여동생이 지난 12년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새로운 원장에게 위탁하고 어린이집 현장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최근 보육교사 또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전자 및 분석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발견된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질의하여 답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귀환하여 확인받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 III.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어린이집 폐원 경험에 관한 면담 내용의 분석 및 요약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고, 그 이하에서는 결과를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표 2. 연구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내용
교육관: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를 두다.	개원 동기: 기독교 소명과 자신의 자녀양육 소명에 근거하여 개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명; 기도 중에 받은 소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명으로 받음; 세계에 말씀과 사랑 전파; 원장과 교사는 사역자;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
	운영 철학 및 원리: 영유아를 존중하고 교사다움을 강조하고 기독교교육 원리를 실천하다.	정서적 안정감·사랑을 주는 어린이집; 기본적 욕구(수면, 식욕)가 잘 채워지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어린이집;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영유아로 자라는 어린이집; 교사다움의 실천
	어린이집 특성화: 대상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천; 부모교육 일상화; 초기 적응 프로그램; 영어·성경·유아교육 3박자의 실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의 원비나 특강비 면제; 출산한 어머니 케어; 졸업생에게 우산 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 무사고와 운영의 평안함; 지도점검 통과
	결과, 열매: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칭찬도 듣다.	부모들의 인정; 불교인들이 자녀를 보냄; 입소한 전체 영유아가 예수를 믿게 됨; 정원이 채워짐; 졸업생들의 방문

어린이집 폐원 경험: 어려움이 적잖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폐원 원인: 저출산율과 재개발 등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다.	운영의 어려움; 아동학대 신고; 보육이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잃은 현장; 1개소 이상 운영자에 대한 압박; 재개발
	폐원 과정의 어려움: 아픈뿐이나, 함께 올려주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교사나 학부모로 인한 상처; 슬픔을 공유 하는 영유아와 부모들
	폐원 이후 진로: 관심과 은사를 활용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1개소 이상에서 1개소만 운영; 이직 시 연령의 한계 경험
	폐원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복의 통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임;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 경험; 새로운 소명 발견;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태도; 씬

### 1. 교육관: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를 두다.

#### (1) 개원 동기: 기독교 소명과 자신의 자녀양육 소명에 근거하여 개원하다.

신앙인으로서 폐원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연구참여자 1, 4, 6, 7, 8)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소명을 받음이었다. 연구참여자 7과 8은 요한복음 21장 15-17절(내 양을 먹이라), 연구참여자 1은 잠언 22장 6절(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연구참여자 4는 이사야 59장 21절(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을 통해 영유아교육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다.

제가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 말씀 이것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사야 59장 21절,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예요. 말씀이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 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4)

그때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이 유아교육과였고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는 않아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8)

어린이집 원장들은(연구참여자 1, 2, 4, 6, 7, 8)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사랑”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도출됨과(연구참여자 5, 6, 7) “말씀 전파”(연구참여자 5), “기독교교육”(연구참여자 7)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

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을 품고 세계로, 세계에 말씀과 사랑 전파하는 것이 제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5)

하나님이 진짜 진짜 저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고 100명의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시고…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잘 키워서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더 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6)

저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것이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녹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빠진 원장이나 교사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대놓고 기독교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 녹아서 아이들에게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7)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이 어린이집을 개원한 계기는 내 자녀를 스스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연구참여자들은(1, 2, 6, 7) 자녀를 출산했거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였다.

‘내 자녀를 내가 직접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구참여자 3)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유치원 교사]를 하나?”면서 주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하라고 권하셨어요. 둘째 아이 낳을 때 되고 계속 권하시길래 2007년에 개원하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7)

그거(팬티가 허벅지 끝에 말리는 상황에 대해 개선 요청했는데 바뀌지 않는 모습) 보고 화가 나서 제가 하려던 일을 그만두고 보육교사 공부를 다시 해서 자격증을 뒀어요. 따자마자 저희 집에서 개원했어요. (연구참여자 6)

어린이집을 개원한 기타 이유로는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함(연구참여자 2, 3), 남편과 함께 웅변 글쓰기 학원을 운영하다가 어린이집 운영으로 직종을 변경한 경우와(연구참여자 5)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일에 집중하기 위해 개원한 경우가(연구참여자 3) 포함된다.

**(2) 운영 철학 및 원리: 영유아를 존중하고 교사다움을 강조하고 기독교교육 원리를 실천하다.**

연구참여자 원장들에게 어떠한 교육관과 원리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영아를 전담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과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징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주로 신체적, 정서적 평안함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하고 자기표현력이 있는 영아로 보육하기(연구참여자 3), 건강한 음식 먹이고 귀가 시에 깨끗하게 씻겨서 보내기(연구참여자 6), 잘 먹고 잘 자고 억지로 하는 것 없이 보육하기(연구참여자 7),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하루 보내기(연구참여자 1) 등이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원리는 어린아이들은 뛰어야 건강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함과(연구참여자 5) 바른 인성 형성(연구참여자 2, 8) 등이었다.

어린이집의 비전이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잠재력을 깨우는 것,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하루 일과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며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연구참여자 1)

제 교육관이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 사랑받을 줄 아는 어린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실천한 바로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 로션 냄새가 나고 건강한 음식 먹이자! 진짜 배부를 때까지 먹이자!' 였어요. (연구참여자 6)

저는 아이들은 365일 뛰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길과 손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도 열리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해의 바다도 펼쳐지고.. 저는 애들 울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연구참여자 5)

인성이 바른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몸은 더 건강해졌는데 마음과 생각이 아픈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존재 이유부터 달랐다. 원훈에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하여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연구참여자 4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가 원훈이었고 연구참여자 8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의 경우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꿈쟁이들의 동산’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였다. 원훈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2, 4).

저한테는 그냥 원훈이었던 것 같아요. 원훈이 사랑받는 어린이, 함께 하는 어린이, 꿈을 꾸는 어린이 이 그랬거든요. 이것 앞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라는 의미였는데, 사람들은 함께 하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과 잘 함께 어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밭에 가서 수확하는 것을 보며 “엄마, 이거 하나님이 길러주셨어”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아가 아이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찬양대도 하고 추수감사절에는 과일을 갖고 와서 독거 어르신들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서 말씀 암송 보여드리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2)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은 교사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안하기도 한다. 교사로서의 헌신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을 언급한 원장도 있었고(연구참여자 2), 영유아 중심 보육 실천(연구참여자 1, 5, 7), 교사다움 보이기(연구참여자 7),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연구참여자 5, 7) 등을 교사에게 요구하였다.

그때는 10시, 11시, 12시가 되어도 “하하 호호” 웃어가면서 교재 오리고 자르면서 교재 교구 워크숍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교사들은 멘탈도 약하고 또 그렇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안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교사들한테도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 어린이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원장님 욕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실수투성이 원장도 더 좋은 원장이 되지만 ‘우리 우리 원장님 왜 저러냐? 그럼 자기가 혼자 다 하지…’ 이렇게 속으로 욕하면 발전할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의 예루살렘은 \*\*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항상 \*\* 어린이집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연구참여자 5)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도 하지 말아라. 가장 좋은 교사는 아이의 어떤 모습



이라도 잘 봐주고 잘 넘기고 잘 흡수시키고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노엽게 해서 울리거나 막 상처 내지 않고 아이가 편안한 가운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교수자요”, “눈빛 하나 말 하나 몸짓 하나를 다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자신이 교육자요”라고 얘기하죠. (연구참여자 7)

### (3) 어린이집 특성화: 대상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다.

연구참여자 원장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섬김을 시도하고 있었다. 예배드리기·기독교교육 실천하기(연구참여자 2, 4, 8), 무시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연구참여자 5), 개인별 특성에 맞춘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부모 상담(연구참여자 1), 영어·성경·유아교육 3박자의 실천(연구참여자 4), 원비나 특강비 면제(연구참여자 8), 출산한 재원생 어머니에게 미역국 끓여 대접하기(연구참여자 7), 졸업생에게 우산 (빌려)주기(연구참여자 5)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폐원 이전에 근무하던 선교원에서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을 잘 실천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영어교육은 담임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성경교육과 유아교육을 잘 실천하는 것은 선교원이 설립된 이유이자 원장의 교육 철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애들을 돈 들여서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선교원에서 영어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아교육을 하면서 영어를 잘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여기서는 영어도 잘하고 유아교육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원임에도 80명까지 왔었어요. (연구참여자 4)

어머니가 자녀 데리러 왔을 때 “선생님 누구 준비시켜주세요” 하고 그 시간에 한 포인트만 잡아서 “제발 유튜브 좀 보여주지 말고 유모차 태우고 다니지 말고 아이 손잡고 아이가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땡땡아, 나뭇잎이 물들었어. 어머 너무 예쁘다!” 한마디라도 해주면 아이가 바라볼 텐데, 엄마는 유모차 끌고 가고 아이는 그냥 핸드폰만 보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육아 정보를 주려고…(연구참여자 5)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20명 인가인 경우 십일조처럼 2명에서 4명 정도 불우한 아이들의 원비를 받지 않고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요즘은 나라에서 다 보육료 지원하지만, 아직도 부모 부담인 특성화비나 특강비 같은 경우 못 내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원 자체에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했고 졸업 때 어떤 학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8)

“만약에 학교를 가거나 오거나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너흰 우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너희들은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뛰어오면 돼. 항상 원장님이 있을 거고 우산 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와요. 그래서 우산도 들려 보내고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땡땡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어느 날은 음료수를 들고 와서 “이거는 원장님 것, 이거는 우리 선생님 음료수”라며 주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5)

그때는 정말 열성이 있어서 엄마가 애 낳으면 미역국 한 솥 끓여서 갖다주고 엄마가 좀 편찮거나 이러면 아파트 단지니까 가서 제가 업고 오기도 하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7)

#### (4)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들은 때때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였다.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버티도록 도우심(연구참여자 5, 6), 오랜 기간 무사고와 평안한 운영(연구참여자 6, 8), 가정에서 민간으로 확장 인가를 마지막 시점에 받게 됨(연구참여자 8) 그 예다. (한 명의 원장이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공지되었던 지도점검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침(연구참여자 7) 등 다양한 스토리가 공유되었다.

운영위원 어머니들이 “원장님,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 어린이집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믿지 않는 엄마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말기고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저희 \*\* 어린이집 이름 뜻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에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매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시던 예배가 있는 곳이고…너무 감사하게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히 큰 문제 없었고 지금까지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진짜 좋은 학부모님도 만나고 했지만… (연구참여자 8)

갑자기 일주일 앞에 두고 점검 공지가 떴어요. 일주일 진짜 힘들었죠. 내일이 점검일이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힘써 대장부가 돼라'였어요. 막 준비하다 지치기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는 점검 잘 받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7)

**(5) 결과, 열매: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칭찬도 듣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의 교육관과 실천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부모들이 인정함(연구참여자 2, 5, 6, 7), 선교원에 입소한 전체 영유아가 예수를 믿게 됨(연구참여자 4), 정원이 채워짐(연구참여자 5), 졸업생들의 방문(연구참여자 5, 8) 등이었다.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내내 한 번도 부모님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저한테 “운영이 뭐 이래요?” 이런 불평 하나도 없이 폐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끌어안고 울면서 “원장님 어떻게 해요?”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아이들 예쁜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요. (연구참여자 6)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린이집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매일 아이들이 오는 교회다’ 이런 마음이었고 ‘영은 몸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살아온 연수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아이들한테도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영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저희 원에는 들어오면은 100% 다 예수를 믿는 상황이 됐어요. (연구참여자 4)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이 다 그대로 많이 계시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연구참여자 8)

**2. 어린이집 폐원 경험: 어려움이 적잖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1) 폐원 원인: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어린이집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영의 어려움이었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어린이집 개원의 이유이기도 했고(연구참여자 2, 3) 폐원의 원인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 3, 5, 6, 8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폐원 이유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로는 구도시화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연구참여자 1), 수년 내에 주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설(연구참여자 6), 무리한 임대료 인상(연구참여자 8) 등이었다.

폐원 원인 중 하나는 저출산의 영향이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어린이집 운영했던 곳이 구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들은 다 신도시로 가니 구도시에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원장 급여를 책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1)

36명 정원에 아이들은 15명 밖에 없고 0세부터 5세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반마다 한 분씩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민간이라서 4세 5세가 합반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믿고 보내는 이 5세 6명을 다른 데 가라 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노가다를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교사 월급 주고 저는 거기서 반을 맡고 차량을 하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원 전체 신경 쓰면서 운영을 했거든요. (연구참여자 5)

폐원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무리한 임대료예요. 처음 계약할 때 350만 원으로 시작했던 임대료가 2년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니 5년 차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원장들이 경험한 어린이집 폐원의 또 다른 원인은 아동학대 의혹의 제기였다(연구참여자 1, 3). 원장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마음이 다친 데다가 어린이집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할 용기를 상실하게 되었다.

CCTV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대동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착각했다며 죄송하다 하고 가셨어요. 가셨는데...[아동학대 증거를] 엄마도 못 찾고 아동보호 전문센터에도 못 찾고 시청에서도 못 찾았는데, 시청은 오자마자 우리가 범인인 것처럼 다루고 경찰서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을 왔어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데는 일 년이나 걸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아이가 낮잠 자기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교사는 그 아이를 강제로 재우고 안 자려고 수를 쓴다고 하면서 “왜 원장님은 낮잠 안 자는 우리 반 아이들을 터치하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교사가 지자체에서 저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게 했고, 사실상 그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1)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인 원장들은 보육 또는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잃은 보육 현장을 보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미와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본질이 희석되어 정기적 또는 불시의 지도점검이라든지 평가제라든지 급식지원센터의 급간식 관리라든지 CCTV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매뉴얼이 쏟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시간의 비중이 커서 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영아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울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밤늦도록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은 보육 현장은 싫다. 나는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

주임 선생님을 [교회 부설 선교원 원장으로] 보내고 나니까 저희 시스템이 흔들리더라고요. 떠나고 난 이후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는 없었니까요... 저희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될 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색깔의 (불신자) 선생님들과 여기 이 자리에서 10년을 이 영적 색깔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냥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폐원을 못 했던 이유는 원장 명함이란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고 싶은 그 색깔(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된 수업)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정할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4)

기타 폐원 이유에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음과(연구참여자 2) 어린이집 2개소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 지도점검(연구참여자 7) 등이 해당된다.

국민주택 아파트 단지로 부지가 선정되고 보상관계가 오가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땅값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게 보상을 받았고(물론 우리 땅은 아니지만) [이사 갈]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원장이 두 개 운영하는] 어린이집 없애기 지도점검 이런 게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작년에 점검 두 번 한다고 하고...한 대표가 두 개를 운영하면 모든 것에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마음먹고 폐원 결정을 했죠. (연구참여자 7)

(2) 폐원 과정의 어려움: 아픔뿐이나, 함께 울어주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폐원의 아픔을 호소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8의 경우, 건물주와 3개월간 법정 분쟁을 경험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하여 1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고 3-5년 재원했던 학부모들이 입학금과 (입던) 체육복비 반환을 요청하는 일도 경험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 중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다. 폐원 과정을 질문했을 때 연구참여자 2의 “아픔뿐이었다”라는 답변은 모든 연구참여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인다.

폐원의 경험은 그냥 아픔뿐이었어요. 폐원의 가장 큰 문제가 전원 조치고 그리고 교재교구는 뭐 어차피 사적인 재산이니깐 그냥 다 처분하다시피 그냥 다 뽕뽕이 가져가고... 폐원 과정 엄청나죠. 저 맨날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서 울다가 집에 가고 울다가 집에 가고 그랬는데 기한도 있고 해서... (연구참여자 2)

3개월 동안의 법정 분쟁 기간 중 처음 1개월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폐원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믿었던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또 다른 모습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치유함을 마음으로 받아서 천천히 회복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회복하니깐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관찮아지고 잠도 좀 자고, 처음에는 진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저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죠. 나중에 관리동 안 하면 나이 들어서 50대 후반이나 60세쯤 됐을 때 거기서 영아들 키우고 싶었어요...영아는 6~7명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엄마들 위해서 그 어린이집은 항상 남겨두기를 바랐는데 거기를 없애게 된 것은... 제가 십몇 년간 정성을 들이고 유지를 하고 거기에 애정을 엄청 쏟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항상 두 개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결국은 타켓이 돼서...(연구참여자 7)

폐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뿐 아니라 영유아나 부모들에게도 아픔이었다(연구참여자 2, 5, 6). 어린이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영유아로부터 폐원 시 눈물을 흘리거나 폐원 후에도 연락을 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섭섭해하던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이야기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부모님들도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 시점에는 “잠깐 휴원하고 곧 땅을 마련해서 어린이집 지을 거예요”라고 했더니 “빨리 지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 어린이집이 너무 생각이 나요”, “이때 즈음에 뭘 했고 이때 즈음에 뭘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경우도 있고… (연구참여자 2)

폐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끌어안고 울면서 “원장님 어떻게 해요?”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연구참여자 6)

### (3) 폐원 이후 진로: 관심과 은사를 활용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다.

기독교인 원장의 어린이집 폐원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노인을 섬기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에 관심을 갖는 연구참여자 1과 2, 원예치료사로 이직한 연구참여자 4, 가정어린이집 원장에서 새로운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월급 원장으로서 100명의 영유아를 지도하게 된 연구참여자 6 등이 그 예이다. 특이사항은 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진 원장들은(연구참여자 1, 2) 60세를 전후한 연령적 특성과 유쾌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간보호센터 개설의 동기를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지원하기(연구참여자 1) 그리고 말씀 전하기(연구참여자 2)라고 밝혀 시니어를 복음 안에서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개개인의 요구가 반영되는 행복한 곳, 가고 싶은 곳 그런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어요. [시니어 사역에 대한] 마음을 담아 제가 이름도 구성해 봤어요. 하나는 Grace Garden, 은혜의 정원 또 하나는 The Life for You,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많이 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요즘은 고령화 시대니까 주간보호센터를 해야 될까?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나?’ 목사님(남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황혼길 가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하려고 찾아다녔어요. (연구참여자 2)



폐원을 경험한 원장 중에는 영아반 교사로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취업하였다가 1개월 만에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된 연구참여자도 있다.

[2월말 폐원 후 3월 초 2세 반 교사로 취업하고] 3월 마지막 주 즈음에 목사님이 면담 좀 하자고 하셔서 갔더니 “사실은 원장님 재목으로 저희가 면접을 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러면서 “저희 원을 맡아주면 어떨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연구참여자 6)

원예치료사가 된 연구참여자 4는 석사학위논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된 생활주제...’라는 제목으로 작성했던 기독교 세계관과 자연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목회자 사모로서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살려 성공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폐원 후 남편과 함께 식물로 가득 찬 카페 교회를 운영하면서 유아교육기관, 장애인 교육기관, 시니어 복지기관, 원예치료사 훈련 프로그램 등에 출강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제가 원래 또 식물을 좋아했고 누가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2월에 폐원하고 3월에 자격증 과정에 ‘이게 뭐지?’ 싶어서 들어갔어요. 좋았던 점은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만 봐도 여기에 하나님의 순리가 있구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의 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연구참여자 4)

그런데 폐원을 경험한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는(연구참여자 1, 3) 연령의 한계로 인한 이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

연령의 한계로 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극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 원장밖에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 찾고 있어요. 이직을 위한 시도로 컴퓨터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직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연구참여자 3)

**(4) 폐원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복의 통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다.**

연구참여자 원장들은(연구참여자 2, 5, 6, 7) 어린이집의 운영과 폐원 과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자신의 훈련, 그리고 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고 고백한다.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36명 정원에 15명 밖에 없는데 교사는 5명이고 원장은 겸직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 너 그거를 왜 붙잡고 있냐? 그거를 놔야지! 빨리 폐원시켜!!”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나를 믿고 보내는 한 명의 아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거는 뭐 폐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을 운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거죠. 72명 정원의 관리동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연구참여자 5)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당시에 넉넉하지 않은 삶 속에서 직장이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1996년도에 어린이집을 시작했는데 2022년도까지 오면서 제가 어린이집을 세 번을 옮겼어요. 첫 번째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진짜 이제 어린이집은 끝났나 보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일부 연구참여자들은(1, 4, 7) 어린이집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태도로 삶을 이어감을 언급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한 연구참여자들의 고백에서 주어가 ‘하나님’임이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셨고 지금은 정리하게 하셨고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셨는데, 또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자리에 나의 남은 평생을 잘 인도받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때를 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시겠죠. (연구참여자 4)

하여튼 이제 큐티하고 공예배 말씀 듣고 또 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7)

기타 의견으로는 ‘쉽’이 나왔다. 연구참여자 1은 “제가 ‘하나님, 나 정말 지금 쉬고 싶어요. 나에게 진짜 쉬이 필요해요’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폐원을] 확신하게 됐어요”라고 고백하였다.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폐원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폐원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연구 문제 별로 제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교육관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개원한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하여 소명을 받음, 복음 전도, 자신의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양육하고 싶은 마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움 등을 언급하였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선택 동기가 동경하는 인물의 이미지, 앞장서서 이끄는 리더십, 자신감으로 나타났다(오교선·이병환, 2020). 인생학교의 설립자 Krznaric(2013, 82-116)은 직업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경제적 필요 채우기, 사회적 지위 획득, 더 나은 세상 구축에 기여하기, 열정 따르기, 재능 활용하기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오교선과 이병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 Krznaric의 견해와 일부 상이한데, 연구참여자들이 밝힌 개원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윤 추구하고 자신의 자녀 양육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더 많은 연구참여자에 의해 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어린이집 운영 철학과 원리는 영아 전담인 경우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양육하는 것, 영유아가 함께 재원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성의 강조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꿈을 키우는 내용의 기독교 원훈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중 몸과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견해는 원장들이 제시한 권리 존중에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놀이와 휴식, 의사 표현에 대한 존중이 포함됨과(권경숙·황인애, 2016) 국가 보육정책의 과제로 영유아의 권리 보장, 영유아가 행복하도록 돕는 기본 욕구 충족, 사랑받고 수용되는 경험 등을 포함하는 기본교육 강화가 제안됨으로부터 지지받는다(노경숙 외, 2023). 연구자들은 본 결과가 영유아들이 어린 시기에 입소하여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보내면서 개별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안하였다(노경숙 외, 2023).

연구참여자들이 실시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기독교교육 실천, 부모교육 및 상담,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의 동시 실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어린이집 원비나 특강비 면제, 출산한 가정에 미역국을 끓여 전달하거나 비 오는 날 졸업생에게 우산을 보내는 등의 돌봄을 실천하는 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의 결과로 원장들은 부모들의 인정, 불신 가족의 구원, 미충원되었던 정원의 충원, 졸업생들의 방문을 경험하였다. 원장의 직무 경험을 탐색한 연구에서 원장은 직무를 통해 지속적 성장, 희로애락, 정체성과 능동적 직무수행, 지속적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오교선·이병환, 2020). 본 연구참여자들은 성장, 희로애락, 능동적 직무수행을 넘어서는 수고로움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섬김이 칭찬과 영혼 구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은 일터 증인의 자질에 탁월한 업무능력, 순전한 인격, 사랑과 섬김, 표적과 기사가 포함되며, 하나님은 이러한 자질을 가진 기독교인을 통해 일하신다고 주장한 Hillman에 의해 지지된다(2007: 61-73).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폐원의 원인에는 운영난, 아동학대 신고, 보육·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장, 재개발로 인한 이전 실패, 임대료 인상이나 어린이집 2개소 운영자를 타켓으로 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폐원 후 원장들의 진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월급 원장으로 취업, 어린이집 2개소 운영에서 한 곳 운영으로 역할 축소였으며, 재취업 도전 시 연령의 한계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어린이집의 폐원 원인은 원아 감소, 재정 문제, 법령위반, 임대차계약 만료,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이었는데(2020: 5), 본 연구에서는 법령위반과 국공립 전환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원인이 모두 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 운영의 어려움은 가장 빈번하게 도출된 폐원의 원인이었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이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재정의 부족을 넘어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의 열악함으로 이어져 유능한 보육교사 미확보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신나리 외, 2022). 아동학대 역시 어린이집 폐원의 주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아동학대 신고 경험을 언급한 모든 연구참여자의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그 피해가 상당함을 언급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해 수행된 연구가 여러 편 있다(문수영·허혜경, 2022 ; 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 임해진·조성웅, 202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문수영·허혜경, 2022 ; 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영유아에게 미치는 피해와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라는 피해를 지적한다(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경험한 원장들은 보육 현장을 고려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부재(체계적이지 않은 조사, 장시간 소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불안을 조성하는 매체, 벼랑 끝에 선 기관과 보육교직원) 그리고 판정 이후의

어려움(원장의 심리적 소진, 교사로부터의 상실감 극복 및 관계 회복, 학부모와의 갈등 개선 노력)을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운영난까지 연결됨을 언급하였다(임해진·조성웅, 2022). 본 연구참여자들이 선행연구의 피해 내용에 대해 대부분 언급하였던 점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운영난까지 이어진다는 본 견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 중 폐원 이후 노인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원장들의 이직 방향으로 노인복지를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신은미(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아쉬움을 노인 돌봄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통해 원장들에게는 사랑과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폐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훈련·복을 경험, 새로운 소명 발견, 인도하심 대로 따르는 훈련, 쉼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갈등과 극복 과정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운영과 폐원 사이의 두려움’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범주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른 직종에 대한 관심, 운영과 폐원에 대해 공유할 사람의 부재, 정보 수집을 위해 연합회 임원이 됨, 해고에 대한 불안, 운영에 대한 정보 출처의 필요성, 원아모집 홍보에 대한 고민,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 새로운 직종으로 가는 망설임 등이다(신은미, 2023).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기도 하고 일부 불일치하기도 하는데, 일치하는 부분은 폐원을 앞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고민과 타 직종에 대한 관심 등이고 상이한 점은 선행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폐원을 공유할 사람, 연합회 임원을 맡음, 정보를 얻을 곳의 필요성 등 사람과 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등의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해야 하고 고난 중에도 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리고 직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경험, 실패, 성공, 승계, 위임, 좌절, 경쟁 등은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초대한다는 Stevens(2018: 62-63, 35)의 견해로부터 지지 받는다.

본 연구자는 폐원 경험이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원장을 통해 나타난 교육과 폐원의 의미는 ‘진정성’과 ‘하나님 경외’였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은 대기업의 사명 선언문을 조사하여 ‘진정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발견하였고, 진정성은 그리스도인이 일터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서 추구할 목표라고 본 Coffey의 주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2011: 137). 연구의 대상은 상이하나 신앙의 힘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는데, 보육교사의 희망, 영성, 격려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보육교사의 희망과 격려 간의 관계에서 영성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은 영성을 거쳐 격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결과는(이종연·김복미, 2016)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소명의식, 윤리실천 수준,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과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존재와 친사회적 지향-존재가 영유아에 대한 윤리실천 수준 및 내·외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이라는 결과를 통해(유은실, 2018) 소명의식은 교사의 현장 교수와 교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인 결과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력이 15년 이상, 연령은 48세 이상으로 경력과 연령이 높은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폐원을 경험한 원장을 만나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젊은 연구참여자가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좀 더 넓은 지역에서 표집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원장들의 보육 현장 스토리를 후속 연구에서 다뤄주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기,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제2의 직업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그리고 폐원 경험이 있는 원장들의 경험과 연계된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본 연구참여자들이 희망했던 노인복지 관련 직업으로의 이직을 위한 제도의 실행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유관기관에서 직업 및 고난에 대한 교육과 유형별 고난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이내에 어린이집 폐원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관 및 폐원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운영 철학 및 원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영유아로 보육하기, 건강한 인성 형성하기 및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영유아로 양육하는 기독교 원혼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은 교사다움을 유지하고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한 불평을 금하는 교사를 향한 원칙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는데 기독교 교육 실천, 부모교육 및 상담,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의 동시 실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원비나 특강비 면제 등이며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부모들의 인정을 받음, 불신자의 구원, 부족한 정원의 충원, 졸업생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폐원의 원인은 운영난, 아동학대 신고, 보육·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장, 재개발



로 인한 이전 실패, 임대료 인상, 그리고 어린이집 2개소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의 진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월급 원장으로 취업, 폐원 전 2개소 운영에서 1개소 운영으로 축소 등이었고, 재취업 과정에서 연령의 한계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폐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 새로운 소명의 발견,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훈련, 쉼의 기회 등으로 나타났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생명과 살롬을 사람, 사회, 모든 창조물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Stevens(2018: 54)의 제안과 직업의 목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이 번창하도록 그분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Coffey(2011: 13)의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초저출생율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최전방에서 대응하다 또는 아동학대 의심이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 또는 재개발이나 무리한 임대료 인상 등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폐원을 경험하긴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영유아 보육을 통해 세상에 살롬을 외치고 실천하는 자들이었다고 보인다. 각박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소명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본고를 마친다.



## 참 고 문 헌

- 국민권익위원회 (2020).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세종특별자치시: 국민권익위원회.
- 권경숙·황인애 (2016).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담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399-421.
- 노경숙·장정윤·심성경 (2023). 현행 국가 보육정책 하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경험에 대한 면담 연구. **육아지원연구**, 18(4), 33-61.
- 노혜진·이현옥·김성욱 (2019). 생애사를 통해 본 경제위기 20년. **사회보장연구**, 35(4), 1-33.
- 문수영·허혜경 (2022). 어린이집원장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훈육의 재개념화’ 실천에 관한 실험연구. **유아교육연구**, 42(6), 209-229.
- 박일귀 역 (2018). **나이들의 신학: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Stevens, P. R. (2016). *Aging Matters*. 서울: 도서출판 CUP.
- 백지윤 역 (2022). **일과 성령**, Volf, M. (1991). *Work in the Spirit*. 서울: IVP.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신나리·김경화·윤현정·노필순·송지은 (2022).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의 예측요인 탐색: 원장보고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4), 17-36.
- 신은미 (2023).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갈등과 극복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오교선·이병환 (2020).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교육연구**, 28(1), 323-342.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STORY.
- 유은실 (2018). **어린이집 교원의 소명의식이 윤리실천 수준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유재언 (2015).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과 수급조절 방안. **보건사회연구**, 5(4), 462-490.
- 이세라피나·임여정 (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4(2), 79-109.
- 이종연·김복미 (2016). 보육교사의 희망과 영성 및 격려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6(1), 231-252.
- 임해진·조성웅 (2022).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경험 탐구.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3(1), 123-140.

- 전윤숙 (2016).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원장의 이미지의 기관유형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6(1), 213-230.
- 정지현 역 (2013). **인생학교, 일: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 Krznaric, R. (2012). *How to Find Fulfilling Work*. 파주: 쌤앤파커스.
- 조계광 역 (2007). **일터 사역: 믿음으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일**, Hillman, O. (2005). *The 9 To 5 Window*. 서울: 생명의말씀사.
- 조성순·정소희 (2023). 실직을 경험한 중년남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8), 339-357.
- 홍정림 (2022).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4), 110-126.
- 홍병룡 역 (2011).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당신이 하는 일과 신앙의 관계**. Coffey, I. (2012). *Working It Out*. 서울: 새물결플러스.
- Berg, M. (2020). *Vocation: The Setting for Human Flourishing*. Irvine, CA: New Reformation Publishing.
- 경향신문 (2023. 2. 22). “줄 잇는 어린이집 폐원 위기… 10년 새 절반만 남았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221636001#c2b>. (검색일 2024. 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18조. <https://www.law.go.kr/LSW/lInfoP.do?lsId=000191&ancYnChk=0#0000>. (검색일 2024. 3.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1. 9).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584>. (검색일 2024. 3. 21.)
- 머니투데이 (2023. 5. 8). “어린이집 1만곳 폐업… 커지는 저출산 충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722034950122>. (검색일 2024. 2. 23.)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23. 11. 29).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7992>. (검색일 2024. 3. 21.)
- KBS 뉴스 (2023. 2. 24). “잇단 어린이집 폐원에 부모 한숨… “이러니 안 낫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2334>. (검색일 2024. 4. 12.)

#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린이집 원장의 폐원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A Qualitative Study of the Closing Experiences of Christian Childcare Center Directors

김성원 (총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폐원을 경험한 기독교인 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자로서의 소명의 의미를 파악하여 관련 분야에 제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면담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어린이집 폐원 경험을 한 기독교인 원장 8명과 면담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운영 철학 및 원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원하기, 건강한 인성의 형성,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로 양육하는 것이었다. 원장들은 교사다움을 유지하고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한 불평을 금하는 교사 원칙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발견되었는데, 기독교교육 실천, 부모교육 및 상담, 영어교육·성경교육·유아교육의 동시 실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원비나 특강비 면제 등이며, 따뜻한 돌봄을 실천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하여 부모들의 인정을 받는 어린이집, 불신자의 구원, 부족한 정원 수의 충원, 졸업생의 방문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폐원의 원인은 운영난, 아동학대 신고, 보육·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현장, 재개발로 인한 이전 실패, 임대료 인상, 어린이집 두 개 운영자를 타켓으로 한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폐원을 경험한 원장들의 진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희망, 원예치료사로 이직, 월급 원장으로 취업, 2개소 운영에서 1개소 운영 등이었고, 재취업 과정에서 연령의 한계를 경험했다는 연구참여 자들도 있었다. 폐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돌보심·훈련·복 경험, 새로운 소명 발견, 인도하심 대로 따르는 훈련, 쉼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 원장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성 검사 실시,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력과 연계된 직업으로서의 이직 가능성이 확대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유관기관에서 고난에 대한 교육과 유형별 고난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기독교 신앙,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폐원, 면담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 논문주요내용:

###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 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 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 )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이윤리, 2007b: 27)

⑩ 한글 번역서 인용의 경우: (Jackson, 전광철 역, 2013: 7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

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CESS>. (검색일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⑨ 번역서: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박원근 (이화여자대학교)

손화철 (한동대학교)

송재일 (명지대학교)

신응철 (송실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4호 (통권 98호), 2024년 3월호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